



# 농업·농촌경제동향

2009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

(김배성 [bbskim@krei.re.kr](mailto:bbskim@krei.re.kr)/송성환 [song9370@krei.re.kr](mailto:song9370@krei.re.kr)/장도환 [zzangdh@krei.re.kr](mailto:zzangdh@krei.re.kr))

연락처: 3299-4325 / 팩스: 964-5631

# 목 차

## I. 국내경제 동향

- 1. 경제성장 ..... 1
- 2. 고용 ..... 3
- 3. 소비 ..... 4
- 4. 물가 ..... 6
- 5. 금융·환율 ..... 10

## II. 농촌경제 동향

- 1. 농림업생산액 ..... 13
- 2.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노동생산성 격차 분석 ..... 15
- 3. 농촌물가(자료발표 후 교체) ..... 19
- 4. 농가교역조건(자료발표 후 교체) ..... 22
- 5. 농림업 취업자 ..... 24
- 6. 농산물 수출입 ..... 25

## III.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 1. 곡물 ..... 31
- 2. 채소 ..... 35
- 3. 과일 ..... 54
- 4. 과채 ..... 65
- 5. 축산 ..... 74

|                                |    |
|--------------------------------|----|
| 특별 주제 1.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 | 87 |
| 2. 쇠고기 이력제 추진배경과 향후계획 .....    | 99 |

## 【요약】

### I. 국내경제 동향

- 2009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감소세가 다소 축소됨.
- 2009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축소됨.
- 2009년 2/4분기 총수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함.
- 2009년 2/4분기 총수입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3.7% 감소함.
- 2009년 5월 취업자는 내수부진, 수출감소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1.9만명 감소함.
- 2009년 5월 소비자 판매는 승용차판매 호조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5.1%)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 '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1.7%)
- 2009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0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실질로는 3.7% 감소).
- '09년도 2/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7로 전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6로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 전월대비 0.1% 감소하였으며, 4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임.
- '09년도 2/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110.3으로 전분기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1.0% 하락.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9.8로 전년 동월대비 3.1% 하락, 전월대비 0.3% 하락.

- 2009년 1/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 폭이 커지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함.
- 6월 원/달러 환율은 '09년 5월 경상수지 36.4 억불 흑자, 무역수지 50.6 억불 흑자와 지속적인 외국인 주식순매수에 힘입어 1,230원대에서 1,290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

## II. 농촌경제 동향

- 2008년 농림업생산액은 39조 6,62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함. 그 중 농업생산액은 38조 4,698억원으로 10.9% 증가하였으며, 임업생산액은 1조 1,928억원으로 3.5% 증가함.
- 기계화·자동화 진전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되는 추세. 시간당 노동생산성(실질)은 1990년 9,760원에서 2002년 13,960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정체되어 2008년 12,420원 수준. 반면에 노동집약도는 동기간 126.7에서 89.6으로 감소함.
- 6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07.9로 전년 동월대비 7.8% 상승하였으나, 5월보다는 4.1% 하락함.
- 2009년 2/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 2009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3.4로 전년 동기대비 1.3%, 전분기대비 0.7% 상승함.
- 2009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1.2로 전년 동기대비 6.1%,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2009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5.3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전분기대비 0.6% 악화됨.
- 2009년 6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5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1.1% 증가함. 2008년 2/4분기 2009년 1분기까지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30% 증가함.
- 2009년 1~6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1,36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함.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1,260백만 달러로 고추, 양배추 등 채소류와 팥이버섯, 새송이 버섯 등 버섯류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함.
- 2009년 1~6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8,30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8% 감소함.



## I. 국내경제 동향 1)

### 1. 경제성장

- 2009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감소세가 다소 축소됨.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 성장세가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제조업 생산의 감소폭도 축소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지출과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민간소비지출과 재화수출의 감소폭은 크게 축소
- 2009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축소됨.
- 2009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보다도 2.4% 증가함.
- 2009년 2/4분기 총수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함.
  - 선박 및 액정 디바이스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임.
- 2009년 2/4분기 총수입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3.7% 감소함.
  -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수출급감 등으로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임.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배성 연구위원(bbskim@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7 | 2008p |      |      |     |       | 2009p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G D P 성장률        | 5.1  | 2.2   | 5.5  | 4.3  | 3.1 | △3.4  | △4.2  | △2.5  |
| 최종 소비지출<br>(민 간) | 5.1  | 1.6   | 3.9  | 2.6  | 2.0 | △1.9  | △2.0  | 0.7   |
|                  | 5.1  | 0.9   | 4.0  | 2.3  | 1.4 | △3.7  | △4.4  | △1.1  |
| 총고정자본형성<br>(건 설) | 4.2  | △1.7  | △0.5 | 0.6  | 1.8 | △7.3  | △8.1  | △4.0  |
|                  | 1.4  | △2.1  | △1.9 | △0.3 | 0.2 | △5.6  | 1.6   | 2.4   |
| (설 비)            | 9.3  | △2.0  | 1.5  | 1.1  | 4.3 | △14.0 | △23.5 | △17.2 |
| 총 수 출            | 12.6 | 5.7   | 11.0 | 11.5 | 9.3 | △6.9  | △10.6 | △3.6  |
| 총 수 입            | 11.7 | 3.7   | 9.7  | 8.9  | 9.0 | △11.2 | △18.2 | △13.7 |

주: 2008p, 2009p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09년 2/4분기 농림어업은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하였으나 전분기보다 감소세가 축소됨.
- 2009년 2/4분기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함.

**【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7 | 2008p |     |      |      |      | 2009p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전 산 업   | 5.1  | 2.2   | 5.5 | 4.3  | 3.1  | △3.4 | △4.2  | △2.5 |
| 농 립 어 업 | 4.0  | 5.5   | 7.4 | 4.4  | 4.2  | 6.4  | 1.5   | △1.0 |
| 제 조 업   | 7.2  | 3.1   | 9.1 | 8.4  | 5.6  | △9.1 | △13.6 | △7.9 |
| 건 설 업   | 2.6  | △2.4  | 0.8 | △1.5 | △1.0 | △6.3 | 0.4   | 1.3  |
| 서 비 스 업 | 5.1  | 2.5   | 4.4 | 3.3  | 2.6  | △0.1 | △0.5  | 0.3  |

자료: 한국은행

## 2. 고용

- 2009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취업자수는 0.6% 감소하였음. 실업률(계절조정)은 3.9%로 전년동기 3.2%보다 0.7%p 증가하였고, 전분기보다는 0.4%p 증가함.
- 2009년 5월 취업자는 내수부진, 수출감소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1.9만명 감소함.
  -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감소폭은 전월보다 감소(4월 △19만명 → 5월 △17만명)
- 5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자영업주 등 비임금근로자는 크게 감소(△29.8만명)하였으나, 임시·일용직의 대폭 감소(△22.7만명)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의 증가(30.6만명)로 임금근로자는 7.9만명 증가함.

### 【 고용 활동 】

단위: 천명, %

|                     | 2007   | 2008   |        |        |        | 2009   |        | 전년<br>동기비<br>증감률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 2/4  |
| 경제활동 인구             | 24,216 | 24,347 | 23,852 | 24,638 | 24,503 | 24,394 | 23,812 | 24,680           | 0.2  |
| (경제활동참가율)           | 61.8   | 61.5   | 60.5   | 62.3   | 61.8   | 61.3   | 60.0   | 61.7             | △1.0 |
| 취업자                 | 23,433 | 23,577 | 23,051 | 23,871 | 23,752 | 23,636 | 22,904 | 23,737           | △0.6 |
| · 농림어업              | 1,723  | 1,686  | 1,384  | 1,842  | 1,824  | 1,695  | 1,398  | 1,817            | △1.4 |
| · 광공업               | 4,031  | 3,985  | 4,036  | 4,015  | 3,957  | 3,933  | 3,872  | 3,865            | △3.7 |
| (제조업)               | 4,014  | 3,963  | 4,013  | 3,993  | 3,934  | 3,910  | 3,850  | 3,843            | △3.8 |
| · 사회간접자본<br>및 기타서비스 | 17,679 | 17,906 | 17,631 | 18,014 | 17,970 | 18,009 | 17,634 | 18,055           | 0.2  |
| (건설업)               | 1,849  | 1,812  | 1,748  | 1,886  | 1,801  | 1,811  | 1,705  | 1,772            | △6.0 |
| 실업자                 | 783    | 769    | 801    | 767    | 752    | 757    | 908    | 943              | 22.9 |
| 실업률(계절조정)           |        |        | 3.1    | 3.2    | 3.2    | 3.2    | 3.5    | 3.9              |      |

자료: 통계청

### 3. 소비

- 2009년 5월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판매 호조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5.1%)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 '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1.7%)
  - 전년동월대비로는 내구재가 4.8% 상승하여 10여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도 각각 0.4% 상승
  - 전월대비로는 내구재가 17.9% 상승하여 소비재판매가 상승하였으며, 준내구재는 △3.2%감소, 비내구재는 1.4% 상승
  
- 6월 소비재 판매는 소비심리 개선과 속보지표 동향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작년 11개월 이후 8개월만에 두자리수 증가(12.4%)
  - 국산자동차 내수판매량이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증가
  - 고용상황은 부진한 상태이나, 물가상승세 둔화와 금융시장 안정, 소비심리개선 등으로 인해 소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7 | 2008 |     |      |     |      | 2009p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5월  |
| 소비재판매    | 5.1  | 1.0  | 4.4 | 2.9  | 1.4 | △4.2 | △4.9  | 1.7 |
| (내 구 재)1 | 9.6  | 1.9  | 9.5 | 8.7  | 0.0 | △9.9 | △13.6 | 4.8 |
| (준내구재)2  | 3.9  | △2.4 | 3.8 | △2.1 | 0.6 | △9.9 | △0.9  | 0.4 |
| (비내구재)3  | 5.2  | 0.7  | 1.9 | 0.3  | 1.2 | △0.4 | △1.4  | 0.4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09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0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실질로는 3.7% 감소).
  - 정상소득은 0.3% 감소하였으나, 비정상소득은 5.2% 증가
  - 근로소득( $\Delta 1.9\%$ ) 및 재산소득( $\Delta 2.0\%$ )은 각각 감소한 반면에 이전소득(28.1%)은 증가
- 2009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2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실질로는 7.0% 감소).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Delta 3.0\%$ ), 주류 및 담배( $\Delta 11.9\%$ ) 및 교통( $\Delta 17.9\%$ ) 등은 감소한 반면에 보건(7.0%) 및 교육(6.0%) 등은 증가

【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7 |     |      |      |      | 2008 |      |      |      |      | 2009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 소 득   | 6.7  | 9.3 | 4.8  | 9.2  | 3.8  | 6.0  | 6.0  | 8.5  | 6.9  | 2.7  | 0.0          |
| 소비 지출 | 5.8  | 5.4 | 5.3  | 10.2 | 2.5  | 6.2  | 8.2  | 8.7  | 4.7  | 3.3  | $\Delta 3.5$ |
| (식료품) | 3.2  | 1.3 | 3.7  | 7.8  | 0.3  | 7.2  | 7.1  | 10.0 | 6.8  | 5.0  | $\Delta 3.0$ |
| (교 육) | 10.1 | 6.1 | 11.9 | 11.9 | 12.2 | 15.4 | 13.2 | 18.6 | 17.0 | 13.3 | 6.0          |

자료: 통계청

#### 4. 물가

- '09년도 2/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7로 전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함.
-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6로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임.
  - 부문별로는 석유류가 상승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폭이 커서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
  -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4.8% 하락, 공업제품은 3.5% 상승하였으며 공공서비스는 0.2% 상승, 서비스부문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전월대비 0.1% 상승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       | 2007           | 2008           |                |                |                 | 2009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총 지 수 | 104.8<br>(2.5) | 109.7<br>(4.7) | 107.4<br>(3.8) | 109.6<br>(4.8) | 111.1<br>(5.5)  | 110.8<br>(4.5)  | 111.6<br>(3.9) | 112.7<br>(2.8) |
| 상 품   | 103.5<br>(2.0) | 109.9<br>(6.2) | 106.7<br>(4.6) | 109.9<br>(6.9) | 112.4<br>(8.3)  | 110.7<br>(5.2)  | 111.9<br>(4.9) | 113.6<br>(3.4) |
| 농축수산물 | 101.8<br>(1.9) | 102.3<br>(0.5) | 101.9<br>(0.0) | 100.8<br>(0.7) | 103.6<br>(1.3)  | 102.8<br>(△0.1) | 109.2<br>(7.2) | 110.8<br>(9.9) |
| 공업 제품 | 104.0<br>(2.0) | 112.1<br>(7.8) | 108.0<br>(5.9) | 112.5<br>(8.6) | 114.9<br>(10.2) | 113.0<br>(6.7)  | 112.7<br>(4.4) | 114.4<br>(1.7) |
| 서 비 스 | 105.7<br>(2.9) | 109.6<br>(3.7) | 107.8<br>(3.3) | 109.5<br>(3.6) | 110.3<br>(4.0)  | 110.8<br>(4.0)  | 111.4<br>(3.3) | 112.0<br>(2.3) |
| 집 세   | 102.0<br>(1.8) | 104.5<br>(2.3) | 103.5<br>(1.9) | 104.2<br>(2.2) | 104.9<br>(2.4)  | 105.5<br>(2.5)  | 105.7<br>(2.1) | 105.9<br>(1.6) |
| 공공서비스 | 106.7<br>(3.1) | 109.3<br>(2.4) | 108.5<br>(3.2) | 109.2<br>(2.7) | 109.4<br>(2.1)  | 110.0<br>(1.9)  | 110.6<br>(1.9) | 111.0<br>(1.6) |
| 개인서비스 | 106.2<br>(3.1) | 111.2<br>(4.7) | 108.8<br>(3.6) | 111.1<br>(4.4) | 112.2<br>(5.2)  | 112.7<br>(5.4)  | 113.3<br>(4.1) | 114.3<br>(2.9) |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 '09년도 2/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110.3으로 전분기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1.0% 하락
-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9.8로 전년 동월대비 3.1% 하락, 전월대비 0.3% 하락.
- 6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6.7로 전년 동월대비 10.0% 상승, 전월대비 9.6% 하락함.
  - 과일류와 채소류는 산지출하 증가로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각각 4.3%, 24.0% 하락함. 축산물 전월대비 0.8%상승, 수산물 19.7% 하락, 곡물류는 3.0% 하락함.
- 6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5.8% 하락, 전월대비 0.2% 상승함.
  -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업체간 경쟁으로 1차 금속제품 하락이 지속되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관련 석유·화학 제품이 올라 0.2% 상승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          | 2007           | 2008            |                 |                 |                 | 2009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총 지 수    | 100.9<br>(1.4) | 111.1<br>(8.6)  | 105.8<br>(5.1)  | 111.4<br>(9.0)  | 115.2<br>(12.1) | 112.0<br>(8.0)  | 110.2<br>(4.2)  | 110.3<br>(△1.0) |
| 농림수산물    | 97.5<br>(2.8)  | 101.3<br>(1.1)  | 102.4<br>(△0.3) | 99.4<br>(0.0)   | 100.3<br>(0.5)  | 103.1<br>(4.2)  | 115.2<br>(12.5) | 114.3<br>(15.0) |
| 광 산 품    | 97.8<br>(7.3)  | 115.1<br>(9.7)  | 110.1<br>(8.4)  | 115.4<br>(12.3) | 115.5<br>(10.4) | 119.5<br>(8.2)  | 121.5<br>(10.4) | 123.3<br>(6.8)  |
| 공 산 품    | 100.2<br>(0.8) | 113.0<br>(11.9) | 105.5<br>(6.6)  | 113.8<br>(12.7) | 118.9<br>(17.3) | 114.0<br>(11.2) | 110.4<br>(4.6)  | 110.3<br>(△3.1) |
| 전력/수도/가스 | 107.4<br>(3.5) | 115.9<br>(4.2)  | 114.4<br>(5.0)  | 114.7<br>(4.7)  | 115.3<br>(3.4)  | 119.2<br>(3.7)  | 120.3<br>(5.2)  | 120.0<br>(4.6)  |
| 서 비 스    | 102.2<br>(2.3) | 107.2<br>(2.5)  | 105.8<br>(2.4)  | 107.0<br>(2.5)  | 108.6<br>(3.2)  | 107.6<br>(2.1)  | 107.2<br>(1.3)  | 107.9<br>(0.8)  |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 '09년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22.8로 전분기 대비 1.5% 하락,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
- 6월 수출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월대비 3.3% 하락, 전월대비 1.9% 상승함.
  - 환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국제 원자재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제품과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상승
-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3.0으로 전년 동월대비 6.9% 상승, 전월대비 12.0% 상승함.
  - 농림수산물은 어획량 감소로 조개, 참치가 상승했고, 공급부족으로 배 물량이 부족하여 전월대비 상승함.

【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       | 2007           | 2008            |                 |                 |                 | 2009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농림수산물 | 96.6<br>(5.4)  | 121.5<br>(25.8) | 108.2<br>(18.0) | 118.8<br>(27.7) | 127.3<br>(27.4) | 131.9<br>(29.9) | 124.7<br>(15.2) | 122.8<br>(3.4)  |
| 공 산 품 | 89.8<br>(△2.2) | 109.4<br>(21.8) | 96.4<br>(8.9)   | 108.6<br>(21.6) | 112.7<br>(24.8) | 119.9<br>(31.6) | 115.3<br>(19.6) | 108.5<br>(△0.1) |
| 원 자 재 | 94.0<br>(△0.4) | 125.7<br>(33.8) | 108.0<br>(19.4) | 122.9<br>(38.5) | 132.9<br>(36.8) | 139.2<br>(39.9) | 133.9<br>(24.0) | 129.9<br>(5.7)  |
| 자 본 재 | 91.0<br>(△1.1) | 109.2<br>(20.0) | 97.1<br>(7.4)   | 103.5<br>(14.9) | 106.3<br>(16.4) | 129.9<br>(40.7) | 130.5<br>(34.4) | 122.1<br>(18.0) |
| 소 비 재 | 80.5<br>(△6.3) | 93.5<br>(16.1)  | 84.5<br>(4.0)   | 90.2<br>(12.8)  | 91.8<br>(14.5)  | 107.4<br>(32.9) | 107.2<br>(26.9) | 99.5<br>(10.4)  |
| 총 지 수 | 89.8<br>(△2.1) | 109.5<br>(21.9) | 96.4<br>(8.9)   | 108.7<br>(21.6) | 112.7<br>(24.8) | 120.0<br>(31.7) | 115.3<br>(19.6) | 108.6<br>(△0.1) |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은행

- '09년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56.7로 전분기 대비 4.3% 하락, 전년 동기대비 1.9% 하락
- 6월 수입물가지수는 136.7로 전년 동월대비 11.9% 하락, 전월대비 5.1% 상승함.
  -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자본재, 소비재가 환율 영향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57.6으로 전년 동월대비 2.6% 하락, 전월대비 2.0% 상승함.
  - 돼지고기, 천연고무의 수요부진과 커피의 공급증가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대두, 옥수수, 쇠고기의 공급 감소로 상승

【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       | 2007            | 2008            |                 |                 |                 | 2009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농림수산물 | 117.7<br>(17.2) | 160.5<br>(36.4) | 148.7<br>(33.3) | 159.8<br>(41.9) | 161.3<br>(38.4) | 172.2<br>(32.5) | 163.7<br>(10.1) | 156.7<br>(△1.9)  |
| 광 산 품 | 124.0<br>(5.6)  | 194.1<br>(56.5) | 163.5<br>(53.0) | 216.4<br>(81.9) | 225.1<br>(77.8) | 171.3<br>(19.2) | 150.1<br>(△8.2) | 151.3<br>(△30.1) |
| 공 산 품 | 98.4<br>(3.3)   | 125.3<br>(27.3) | 108.7<br>(12.1) | 123.0<br>(24.7) | 128.1<br>(31.1) | 141.2<br>(40.9) | 138.5<br>(27.4) | 126.2<br>(2.6)   |
| 원 자 재 | 123.9<br>(7.0)  | 191.5<br>(54.6) | 163.1<br>(51.5) | 211.5<br>(78.2) | 219.3<br>(74.1) | 172.2<br>(20.3) | 152.1<br>(△6.8) | 152.2<br>(△28.1) |
| 자 본 재 | 88.0<br>(△2.6)  | 108.3<br>(23.1) | 94.2<br>(6.6)   | 100.5<br>(15.5) | 103.3<br>(17.7) | 135.2<br>(52.0) | 142.6<br>(51.5) | 128.5<br>(27.8)  |
| 소 비 재 | 96.7<br>(1.2)   | 118.3<br>(22.3) | 105.8<br>(10.1) | 113.0<br>(17.7) | 117.0<br>(21.7) | 137.3<br>(39.4) | 138.3<br>(30.8) | 130.0<br>(15.0)  |
| 총 지 수 | 105.5<br>(4.5)  | 143.7<br>(36.2) | 123.8<br>(23.8) | 147.6<br>(41.6) | 153.4<br>(45.3) | 149.8<br>(33.6) | 142.3<br>(15.0) | 133.6<br>(△9.5)  |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은행

## 5. 금융·환율

- 2009년 1/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 폭이 커지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함.
- 2009년 5월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9.9% 증가
  -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국외부문의 통화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이 전월(10.6%)에 비해 하락함.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2007 | 2008 |       |      |      |      | 2009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 M1 <sup>1</sup> | △5.2 | △1.8 | △12.4 | △0.1 | 2.1  | 5.0  | 10.8 |
| M2 <sup>2</sup> | 11.2 | 14.3 | 13.3  | 15.3 | 14.7 | 13.8 | 11.5 |
| Lf <sup>3</sup> | 10.2 | 11.9 | 11.6  | 12.8 | 12.1 | 11.2 | 8.8  |
| 본원통화            | 16.5 | 7.7  | 4.2   | 6.3  | 8.1  | 12.1 | 26.5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과 함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금리 상승
  - 단, 6월 하반기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채권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금 리 동 향 】

단위: %

|                  | 2008 |      |      | 2009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콜 금 리            | 4.88 | 4.00 | 3.27 | 2.43 | 2.06 | 1.77 | 1.80 | 1.91 | 1.93 |
| CD유통수익률          | 6.03 | 5.62 | 4.68 | 3.22 | 2.70 | 2.45 | 2.42 | 2.41 | 2.41 |
| 회사채 <sup>1</sup> | 7.95 | 8.56 | 8.35 | 7.34 | 7.07 | 6.14 | 5.68 | 5.16 | 5.21 |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6월 원/달러 환율은 '09년 5월 경상수지 36.4 억불 흑자, 무역수지 50.6 억불 흑자와 지속적인 외국인 주식순매수에 힘입어 1,230원대에서 1,290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
  - 6월말 증가는 전월말 증가(1,255원)대비 19원 상승한 1,272원
- 6월말 원/엔 환율은 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전월말 증가인 1,300원대에서 소폭 상승한 1,33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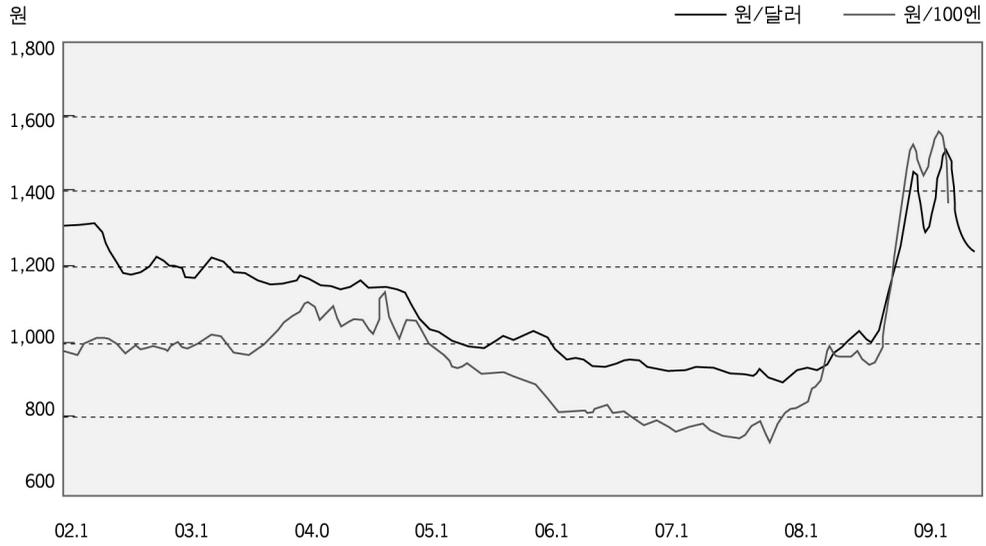
【 원화 환율 동향 】

단위: 원(기말 기준)

|        | 2008  |       |       |       |       |       | 2009  |       |       |       |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원/달러   | 1,012 | 1,090 | 1,207 | 1,298 | 1,463 | 1,310 | 1,380 | 1,533 | 1,370 | 1,288 | 1,253 | 1,272 |
| 원/100엔 | 936   | 1,004 | 1,152 | 1,335 | 1,535 | 1,452 | 1,544 | 1,569 | 1,394 | 1,320 | 1,301 | 1,331 |

자료: 외환은행 고시환율

【 원화 환율 추세 】



자료: 외환은행

## II. 농촌경제 동향 2)

### 1. 농림업생산액

- 2008년 농림업생산액은 39조 6,62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함. 그 중 농업생산액은 38조 4,698억원으로 10.9% 증가하였으며, 임업생산액은 1조 1,928억원으로 3.5% 증가함.

【 연도별 농림업생산액 】

단위: 억 원, %

|         | '05     |      | '06     |      | '07     |      | '08     |      | 전년대비   |      |
|---------|---------|------|---------|------|---------|------|---------|------|--------|------|
|         | 생산액     | 비중   | 생산액     | 비중   | 생산액     | 비중   | 생산액     | 비중   | 증 감    | 증감률  |
| 농 립 업   | 362,729 | 100  | 363,893 | 100  | 358,372 | 100  | 396,626 | 100  | 38,254 | 10.7 |
| 농 업     | 350,889 | 96.7 | 352,324 | 96.8 | 346,850 | 96.8 | 384,698 | 97.0 | 37,848 | 10.9 |
| - 재 배 업 | 233,217 | 64.3 | 235,561 | 64.7 | 234,077 | 65.3 | 248,769 | 62.7 | 14,692 | 6.3  |
| 식량작물    | 97,383  | 26.8 | 94,118  | 25.9 | 89,095  | 24.9 | 106,067 | 26.7 | 16,972 | 19.0 |
| 채 소     | 69,186  | 19.1 | 73,534  | 20.2 | 74,830  | 20.9 | 72,135  | 18.2 | △2,695 | △3.6 |
| 과 실     | 30,817  | 8.5  | 29,706  | 8.2  | 28,223  | 7.9  | 29,984  | 7.6  | 1,761  | 6.2  |
| 특용기타    | 35,832  | 9.9  | 38,203  | 10.4 | 41,929  | 11.7 | 40,583  | 10.2 | △1,346 | △3.2 |
| - 축 산 업 | 117,672 | 32.4 | 116,763 | 32.1 | 112,773 | 31.5 | 135,929 | 34.3 | 23,156 | 20.5 |
| 임 업     | 11,840  | 3.3  | 11,569  | 3.2  | 11,522  | 3.2  | 11,928  | 3.0  | 406    | 3.5  |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 농업 중 재배업의 경우 2007년보다 기상여건이 좋아 미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곡, 과실, 특용작물 등의 농가판매가격도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함.
  - 식량작물 생산액: 맥류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미곡, 잡곡, 두류, 서류는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19.0% 증가함.
  - 채소류 생산액: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양채류 등 생산액 감소로 전년대비 3.6% 감소함.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배성 연구위원(bbskim@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과실류 생산액: 배, 포도, 감 생산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사과, 감귤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함.
- 축산 부문은 생산두수 및 축산물생산량 증가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액이 전년대비 20.5% 증가함.
- 임업부문은 용재, 수실, 약용, 산나물 등의 생산액로 전년대비 3.5% 증가함.
- 품목별 생산액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미곡, ②돼지, ③한우, ④우유, ⑤닭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5개 품목의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49.9%를 차지함. ⑥계란, ⑦오리, ⑧수박, ⑨건고추, ⑩인삼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62.6%를 차지함.

【 상위 10개 품목의 농업생산액 】

단위: 억 원, %

| 순위 | '05 |         | '06 |         | '07 |         | '08 |         | 증감률  |
|----|-----|---------|-----|---------|-----|---------|-----|---------|------|
|    | 품목  | 생산액     | 품목  | 생산액     | 품목  | 생산액     | 품목  | 생산액     |      |
| 전체 |     | 362,729 |     | 363,893 |     | 358,372 |     | 396,626 | 10.7 |
| 1  | 미 곡 | 85,368  | 미 곡 | 84,057  | 미 곡 | 78,575  | 미 곡 | 93,796  | 19.4 |
| 2  | 돼 지 | 37,586  | 돼 지 | 36,093  | 돼 지 | 33,197  | 돼 지 | 40,853  | 23.1 |
| 3  | 한육우 | 31,479  | 한 우 | 28,356  | 한 우 | 31,156  | 한 우 | 32,819  | 5.3  |
| 4  | 우 유 | 15,513  | 우 유 | 15,213  | 우 유 | 15,512  | 우 유 | 16,041  | 3.4  |
| 5  | 닭   | 11,132  | 닭   | 13,300  | 닭   | 10,275  | 닭   | 14,294  | 39.1 |
| 누계 |     | 181,077 |     | 177,020 |     | 168,715 |     | 197,803 |      |
| 6  | 계 란 | 10,853  | 계 란 | 8,674   | 건고추 | 9,990   | 계 란 | 11,586  | 35.7 |
| 7  | 수 박 | 8,920   | 수 박 | 8,294   | 계 란 | 8,537   | 오 리 | 11,544  | 98.2 |
| 8  | 건고추 | 8,606   | 건고추 | 8,157   | 수 박 | 8,009   | 수 박 | 9,393   | 17.3 |
| 9  | 감 귤 | 8,108   | 딸 기 | 7,596   | 딸 기 | 7,997   | 건고추 | 9,117   | △8.7 |
| 10 | 오 리 | 6,490   | 인 삼 | 7,069   | 인 삼 | 7,990   | 인 삼 | 8,749   | 9.5  |
| 누계 |     | 224,055 |     | 216,809 |     | 211,238 |     | 248,192 |      |

주: 2006년부터 한·육우를 한우와 육우로 분리하였으며, 증감률은 동일 품목에 대한 전년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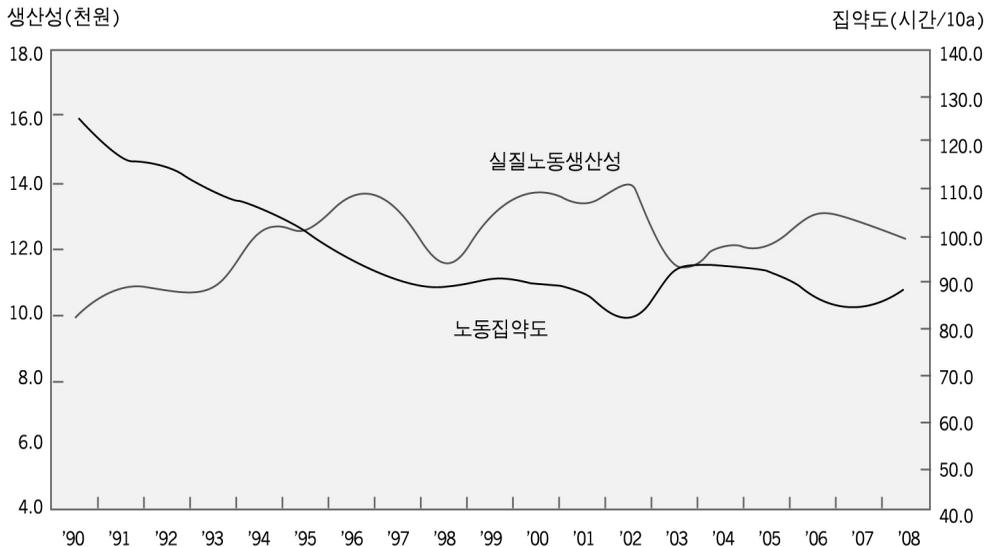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노동생산성 격차 분석

### 2.1. 노동생산성과 노동집약도의 추이

- 기계화·자동화 진전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되는 추세. 시간당 노동생산성(실질)은 1990년 9,760원에서 2002년 13,960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정체되어 2008년 12,420원 수준. 반면에 노동집약도는 동기간 126.7에서 89.6으로 감소함.

【 노동생산성과 노동집약도 】



주: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영농시간, 노동집약도 = 영농시간/경지면적, GDP디플레이터(2005=100) 실질환산.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2.2. 2008년 농가경제통계의 노동생산성 격차

- 2008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중 농업부가가치, 노동시간, 토지면적, 학력, 연령 등을 모두 기록한 2,527호를 대상으로 노동생산성의 5분위 분석 결과임.

- 농가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1분위와 5분위 계층간 18.4배
  - 노동생산성이 높은 농가가 학력도 높은 편으로 상위 20% 평균 학력은 중학교의 학력을 보유한 반면, 하위로 갈수록 학력 수준이 낮아짐(그러나 1분위의 경우 30대 비율이 높아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않음).
  - 노동생산성이 낮은 농가는 아주 젊거나 노년층 많아, 영농경력보다는 노동능력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줌.

**【 노동생산성과 경영주 특성 】**

| 생산성<br>분위 | 평균     | 표준<br>편차 | 변동<br>계수 | 경영주<br>학력 | 경영주 연령 |      |      |      |      |
|-----------|--------|----------|----------|-----------|--------|------|------|------|------|
|           |        |          |          |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 1분위       | 2,000  | 5,070    | 2.5      | 1.84      | 41.7   | 21.9 | 17.0 | 17.8 | 20.8 |
| 2분위       | 7,073  | 1,074    | 0.2      | 1.67      | 16.7   | 18.0 | 17.4 | 18.8 | 23.1 |
| 3분위       | 11,124 | 1,272    | 0.1      | 1.76      | 8.3    | 19.1 | 17.0 | 19.5 | 23.6 |
| 4분위       | 16,260 | 1,893    | 0.1      | 1.77      | 16.7   | 18.0 | 21.9 | 20.9 | 18.7 |
| 5분위       | 36,898 | 35,417   | 1.0      | 2.08      | 16.7   | 23.0 | 26.7 | 23.0 | 13.7 |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 경영규모 클수록, 농가소득 많을수록 노동생산성 높음
  - 노동생산성이 높은 농가는 농가소득도 많으며, 상하위 20%간 농가소득 격차는 2.1배임.
  - 노동생산성이 높은 농가는 경영규모가 크며, 상하위 20%간 영농규모 격차는 2.2배임.
  -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 높은 농가의 부채비율(부채/소득)도 낮음.

【 노동생산성과 소득 및 영농규모와의 관계 】

| 생산성 | 농가소득평균(천원) | 평균 경지규모(m <sup>2</sup> ) | 부채평균(천원) | 부채/소득 비율(%) |
|-----|------------|--------------------------|----------|-------------|
| 1분위 | 24,231     | 12,713                   | 22,832   | 94.2        |
| 2분위 | 24,037     | 15,765                   | 20,490   | 85.2        |
| 3분위 | 28,724     | 19,650                   | 22,345   | 77.8        |
| 4분위 | 32,739     | 21,608                   | 22,733   | 69.4        |
| 5분위 | 51,005     | 27,463                   | 44,648   | 8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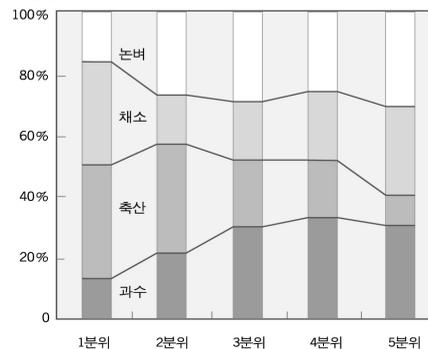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 영농형태별로는 축산농가가 높고, 채소·과수농가는 상대적으로 낮음
  - 영농형태별로는 축산, 논벼, 과수, 채소 순으로 5분위 계층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다른 계층보다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5분위 고생산성 축산농가는 평균 농가(3분위)에 비해 4.2배 높음.
  - 채소 부문은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으며, 생산성 격차도 적은 것으로 분석됨. 이것은 기계화가 덜 진전되어 노동생산성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고생산성(5분위 계층) 농가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영농형태별 노동생산성 】

| 생산성<br>분위 | 영농형태별 노동생산성(원/1h) |        |        |        |
|-----------|-------------------|--------|--------|--------|
|           | 논벼                | 채소     | 축산     | 과수     |
| 1분위       | 2,677             | 2,018  | 169    | 2,723  |
| 2분위       | 7,181             | 6,913  | 7,187  | 7,174  |
| 3분위       | 11,252            | 10,907 | 11,101 | 11,050 |
| 4분위       | 16,249            | 16,000 | 16,713 | 16,186 |
| 5분위       | 36,309            | 28,059 | 46,633 | 32,179 |

영농형태별 각 분위 비율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 고정자산 투입 높을수록 노동생산성 높음
  - 고정자산이 크면 노동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시설, 장비 등 고정자산 투입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함.

**【 노동생산성과 고정자산, 기계·기구와의 관계 】**

| 생산성 분위 | 고정자산 연말평가액 평균(천원) | 기계기구비품 연말평가액(천원) |
|--------|-------------------|------------------|
| 1분위    | 234,760           | 9,823            |
| 2분위    | 213,411           | 8,825            |
| 3분위    | 245,302           | 10,588           |
| 4분위    | 282,604           | 13,667           |
| 5분위    | 428,441           | 18,469           |

자료: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 2.3. 시사점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전문경영인 육성·경영 규모화·기계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쇠퇴가 우려되므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
  -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농업경영인 육성과 영농규모 확대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채소, 과수는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노력 필요

### 3. 농촌물가

- 2009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3.4로 전년 동기대비 1.3%, 전분기대비 0.7% 상승함.
- 곡물은 미곡, 맥류, 잡곡 등이 하락하였으나, 감자, 고구마 등이 상승하면서 전분기 대비 0.6% 상승함.
- 청과물은 상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는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과일류가 상승하면서 전분기대비 2.3% 상승함.
- 축산물은 한우, 돼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3.3%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2005년=100) 】

|       | 2007  | 2008  |       | 2009  |       | 등락률(%)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1/4   | 2/4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총 지 수 | 101.2 | 99.4  | 103.9 | 102.1 | 102.7 | 103.4  | 1.3     | 0.7    |
| 곡 물   | 100.2 | 107.8 | 109.0 | 111.7 | 104.2 | 104.8  | △6.2    | 0.6    |
| 미 곡   | 98.5  | 104.4 | 101.7 | 103.7 | 104.5 | 102.3  | △1.4    | △2.1   |
| 맥 류   | 98.4  | 95.0  | 98.4  | 95.0  | 95.0  | 89.1   | △6.2    | △6.2   |
| 잡 곡   | 106.5 | 117.5 | 107.8 | 116.6 | 116.8 | 113.3  | △2.8    | △3.0   |
| 두 류   | 83.8  | 112.9 | 112.4 | 129.8 | 105.6 | 106.3  | △18.1   | 0.7    |
| 서 류   | 129.0 | 142.3 | 187.2 | 187.7 | 101.1 | 133.7  | △28.8   | 32.2   |
| 청 과 물 | 105.7 | 92.3  | 101.3 | 95.3  | 97.6  | 99.8   | 4.7     | 2.3    |
| 채 소   | 109.1 | 96.9  | 113.1 | 90.8  | 103.8 | 99.0   | 9.0     | △4.6   |
| 과 실   | 98.9  | 83.1  | 78.0  | 104.3 | 85.3  | 101.2  | △3.0    | 18.6   |
| 축 산 물 | 93.3  | 93.0  | 93.1  | 91.8  | 97.7  | 100.9  | 9.9     | 3.3    |
| 가 축   | 91.9  | 87.0  | 89.0  | 87.8  | 88.6  | 93.8   | 6.8     | 5.9    |
| 유 란   | 96.3  | 105.6 | 101.6 | 100.0 | 116.4 | 115.8  | 15.8    | △0.5   |
| 기 타   | 112.2 | 115.3 | 129.0 | 124.5 | 136.8 | 122.6  | △1.5    | △10.4  |
| 특 작   | 96.0  | 95.0  | 102.0 | 96.3  | 92.2  | 91.0   | △5.5    | △1.3   |
| 화 훼   | 148.9 | 162.3 | 193.8 | 191.4 | 245.8 | 198.3  | 3.6     | △19.3  |
| 부산물   | 121.6 | 119.1 | 121.6 | 121.6 | 111.5 | 112.4  | △7.6    | 0.8    |

주: 통계청

- 2009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1.2로 전년 동기대비 6.1%,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가계용품은 기타잡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류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1.6% 상승함.
  - 농업용품은 비료, 사료, 영농자재 등은 하락하였으나, 가축, 농약, 영농광열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6% 상승함.
  - 농촌임료금은 농업노동임금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6%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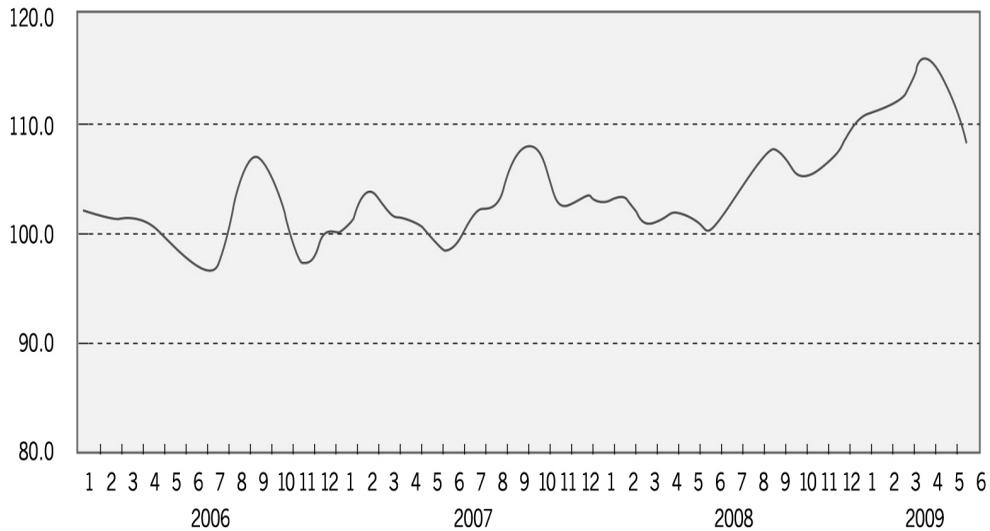
【 농가구입가격지수(2005년=100) 】

|        | 2007  | 2008  |       | 2009  |       | 등락률(%)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1/4   | 2/4    | 전년 동기비 | 전분기 대비 |
| 총지수    | 104.8 | 115.3 | 109.9 | 114.2 | 119.7 | 121.2  | 6.1    | 1.3    |
| 가계용품   | 104.9 | 110.7 | 107.7 | 111.1 | 112.3 | 114.1  | 2.7    | 1.6    |
| 식료품    | 103.3 | 108.9 | 104.8 | 108   | 114.2 | 116.8  | 8.1    | 2.3    |
| 피복     | 105.2 | 107.6 | 106.2 | 107.3 | 109.9 | 111.6  | 4.0    | 1.5    |
| 가구집기   | 88.8  | 90.0  | 88.2  | 89.3  | 93.1  | 93.3   | 4.5    | 0.2    |
| 광열수도   | 108.1 | 122.1 | 115.2 | 126.7 | 110.1 | 111.6  | △11.9  | 1.4    |
| 보건의료   | 104.2 | 106.4 | 105.9 | 106.3 | 108.4 | 108.9  | 2.4    | 0.5    |
| 교육     | 112.8 | 119.9 | 116.5 | 120.8 | 122.1 | 123.8  | 2.5    | 1.4    |
| 교양오락   | 103.0 | 105.7 | 104.5 | 105.8 | 107.8 | 108.9  | 2.9    | 1.0    |
| 교통통신   | 104.9 | 109.5 | 108.4 | 111.2 | 104.8 | 107.7  | △3.1   | 2.8    |
| 기타잡비   | 107.3 | 118.2 | 114.5 | 116.7 | 128.8 | 128.1  | 9.8    | △0.5   |
| 농업용품   | 104.8 | 128.5 | 117.0 | 123.5 | 140.0 | 140.8  | 14.0   | 0.6    |
| 종자     | 96.6  | 96.9  | 96.7  | 96.7  | 104.0 | 104.1  | 7.7    | 0.1    |
| 비료     | 121.0 | 207.5 | 158.3 | 158.3 | 249.4 | 246.1  | 55.5   | △1.3   |
| 농약     | 99.9  | 104.2 | 104.2 | 104.2 | 116.3 | 122.4  | 17.5   | 5.2    |
| 농기구    | 106.5 | 114.1 | 112.9 | 112.9 | 119.2 | 119.2  | 5.6    | -      |
| 영농광열비  | 112.7 | 148.7 | 137.0 | 177.8 | 104.6 | 108.6  | △38.9  | 3.8    |
| 가축     | 86.6  | 69.3  | 77.9  | 73.6  | 62.7  | 74.4   | 1.1    | 18.7   |
| 사료     | 112.1 | 155.5 | 130.6 | 145.8 | 190.8 | 186.8  | 28.1   | △2.1   |
| 영농자재   | 97.6  | 123.3 | 116.5 | 121.6 | 120.9 | 118.4  | △2.6   | △2.1   |
| 농촌임료금  | 103.6 | 111.7 | 105.7 | 110.3 | 116.4 | 117.1  | 6.2    | 0.6    |
| 농업노동임금 | 103.1 | 113.1 | 106.4 | 112.6 | 117.7 | 119.4  | 6.0    | 1.4    |
| 도정료    | 100.5 | 107.3 | 100.7 | 107.1 | 112.5 | 112.7  | 5.2    | 0.2    |
| 농기계임차료 | 104.6 | 110.3 | 105.2 | 107.6 | 115.1 | 114.7  | 6.6    | △0.3   |

주: 통계청

- 6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sup>3)</sup>는 107.9로 전년 동월대비 7.8% 상승하였으나, 5월보다는 4.1% 하락함.
- 전월보다 농산물체감물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배추, 파, 양파, 감자 등 채소류와 토마토, 참외, 수박 등 과채류의 가격이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 2009년 2/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sup>4)</sup>는 마늘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냈으나, 쌀, 양파, 토마토, 마늘 등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전년 동기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이는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채소류 중 배추는 월동배추 저장량 감소와 가뭄으로 인한 봄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4)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9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 채소류 중 양파는 전년산 저장량이 적었으나, 금년산 햇양파 출하가 시작되면서 전분기보다 가격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남.

【 장바구니 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          | 2007  | 2008  |       | 2009  |       | 등락률(%)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1/4   | 2/4    | 전년 동기 | 전분기 대비 |
| 쌀        | 96.3  | 101.3 | 98.3  | 99.9  | 105.0 | 103.2  | 3.3   | △1.7   |
| 쇠고기 (국산) | 106.3 | 106.2 | 107.2 | 104.7 | 108.9 | 110.7  | 5.7   | 1.7    |
| 돼지고기     | 96.8  | 113.4 | 93.4  | 117.3 | 117.9 | 127.0  | 8.3   | 7.7    |
| 닭고기      | 90.1  | 109.8 | 101.4 | 98.8  | 133.3 | 134.2  | 35.8  | 0.7    |
| 사과       | 89.9  | 78.2  | 77.8  | 81.1  | 72.7  | 81.2   | 0.1   | 11.7   |
| 배추       | 115.2 | 89.6  | 102.6 | 85.3  | 75.6  | 139.0  | 63.0  | 83.9   |
| 양파       | 108   | 113.3 | 97.6  | 107.9 | 173.0 | 141.8  | 31.4  | △18.0  |
| 토마토      | 105.7 | 99.2  | 120.6 | 90.4  | 115.1 | 103.2  | 14.2  | △10.3  |
| 마늘       | 114.1 | 107.8 | 108.3 | 109.7 | 106.3 | 104.8  | △4.5  | △1.4   |

자료: 통계청

#### 4.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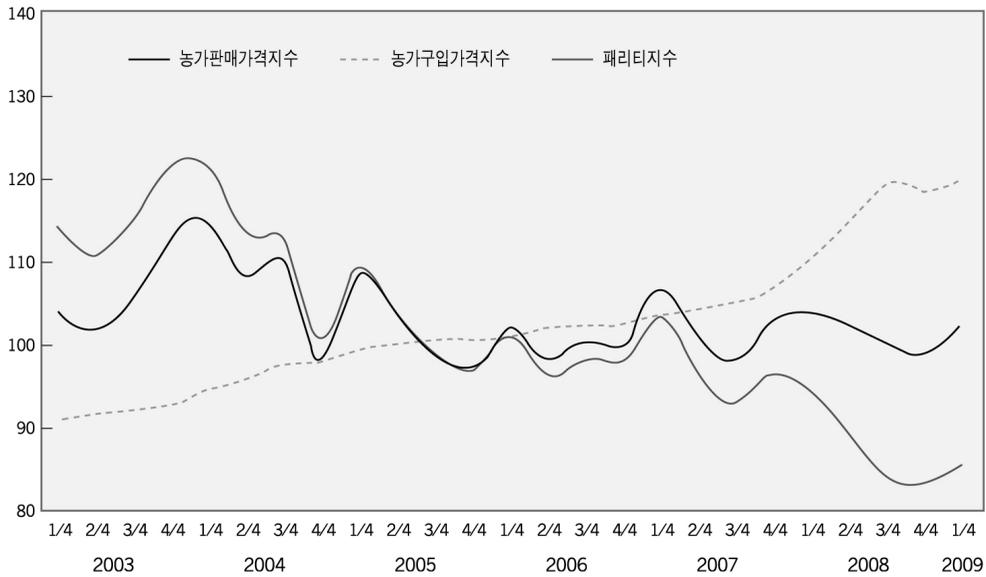
- 2009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5.3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전분기대비 0.6% 악화됨.
  - 농가판매가격이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은 전분기대비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

|                 | 2007  | 2008  |       | 2009  |       | 등락률(%)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1/4   | 2/4    | 전년 동기 | 전분기 대비 |
| 농가판매가격지수(A)     | 101.2 | 99.4  | 103.9 | 102.1 | 102.7 | 103.4  | 1.3   | 0.7    |
| 농가구입가격지수(B)     | 104.8 | 115.3 | 109.9 | 114.2 | 119.7 | 121.2  | 6.1   | 1.3    |
| 농가교역조건(A/B*100) | 96.6  | 86.2  | 94.5  | 89.4  | 85.8  | 85.3   | △4.6  | △0.6   |

자료: 통계청

【 농산물가지수의 변동추이 】



- 2009년 2/4분기 쌀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70.1로 전년 동기대비 16.4%, 전분기보다는 7.2% 악화됨.
- 2009년 2/4분기 마늘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4.6% 개선되었으나, 양파는 악화됨.
- 2009년 2/4분기 토마토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구입가격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7.8% 악화되었으나, 사과는 개선됨.
- 2009년 2/4분기 소 축산농가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구입가격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악화된 반면, 돼지 축산농가는 전분기보다 개선됨.

【 품목별 패리티지수 】

|     | 2007  | 2008  |       | 2009  |       | 증감률(%)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1/4   | 2/4    | 전년 동기 | 전분기 대비 |
| 쌀   | 92.4  | 77.8  | 84.6  | 83.9  | 75.6  | 70.1   | △16.4 | △7.2   |
| 마늘  | 124.6 | 85.2  | 118.9 | 86.2  | 102.0 | 106.8  | 23.9  | 4.6    |
| 양파  | 65.6  | 109.7 | 95.7  | 111.5 | 128.4 | 116.0  | 4.0   | △9.6   |
| 토마토 | 98.1  | 66.8  | 116.0 | 64.5  | 81.9  | 75.5   | 17.1  | △7.8   |
| 사과  | 70.7  | 74.2  | 61.3  | 77.0  | 81.6  | 89.6   | 16.3  | 9.8    |
| 소   | 102.6 | 84.3  | 97.6  | 84.8  | 75.6  | 73.1   | △13.8 | △3.3   |
| 돼지  | 85.3  | 89.2  | 71.2  | 101.8 | 84.4  | 88.1   | △13.5 | 4.3    |

주: 1) 품목별 구입가격지수는 매분기 발표되는 비목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각 품목별 생산비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2)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1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농림업 취업자

- 2009년 6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5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1.1% 증가함. 2008년 2/4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3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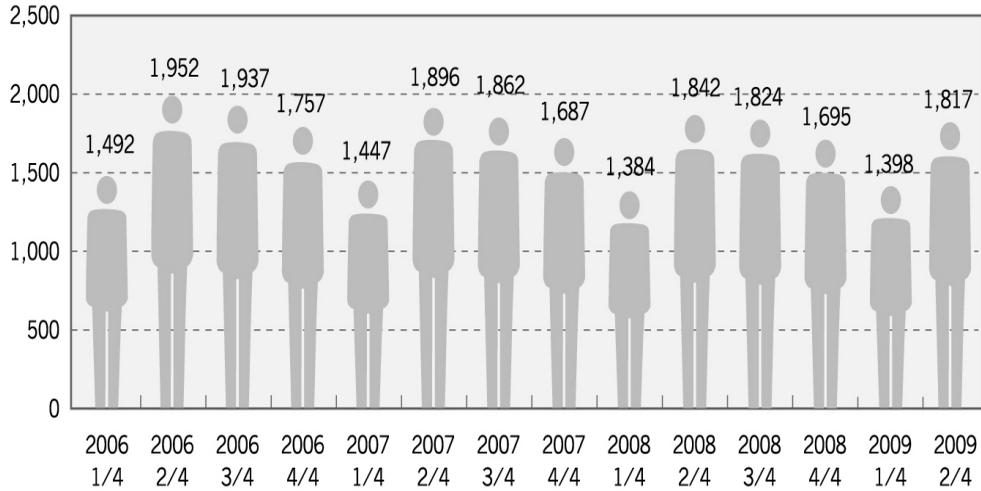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 2008   |        |        | 2009   |        |        | 증감률(%)  |      |     |
|---------|--------|--------|--------|--------|--------|--------|---------|------|-----|
|         | 1/4분기  | 2/4분기  | 6월     | 1/4분기  | 2/4분기  | 6월     | 전년 동월대비 | 전월대비 |     |
| 경제활동 인구 | 23,852 | 24,638 | 24,727 | 23,812 | 24,680 | 24,927 | 0.8     | 1.1  |     |
| 취업자     | 전산업    | 23,051 | 23,871 | 23,963 | 22,904 | 23,737 | 23,967  | 0.0  | 1.0 |
|         | 농림어업   | 1,384  | 1,842  | 1,883  | 1,398  | 1,817  | 1,858   | △1.3 | 1.1 |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6. 농산물 수출입

### 6.1. 수출동향

- 2009년 1~6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1,36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함.
-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1,260백만 달러로 고추, 양배추 등 채소류와 팥이버섯, 새송이 버섯 등 버섯류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함.
- 축산물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기타 육가공품 및 부산물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5.8% 감소함.
- 임산물은 원목, 제재목 등 목재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함.

【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2008    | 2008. 1~6 | 2009. 1~6 | 전년동기대비<br>증감률 (%) |
|-------|---------|-----------|-----------|-------------------|
| 농림축산물 | 2,954.5 | 1,392.7   | 1,368.4   | △1.7              |
| 농산물   | 2,621.0 | 1,247.7   | 1,260.0   | 1.0               |
| 축산물   | 215.1   | 97.0      | 62.3      | △35.8             |
| 임산물   | 118.4   | 47.9      | 46.1      | △3.9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로는 김치, 팥이버섯, 새송이, 가금육, 딸기, 백합 등이 증가하였으며, 과실, 화훼, 인삼 등이 감소함.

【 주요 품목의 수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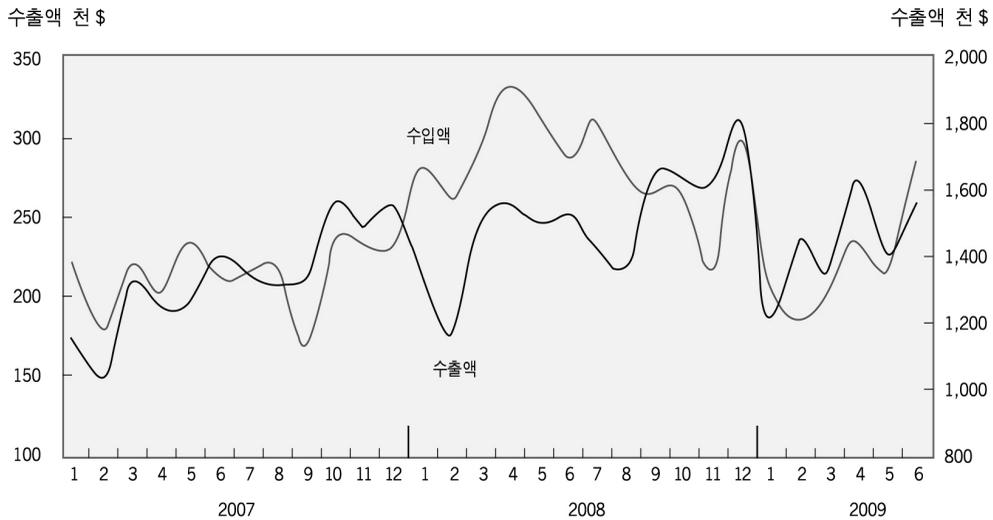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 2007    | 2008    | 2008 1~6월 | 2009 1~6월 | 전년동기대비<br>증감률(%) |
|-------|---------|---------|-----------|-----------|------------------|
| 채 소   | 121.1   | 148.6   | 69.0      | 73.1      | 5.9              |
| 김 치   | 75.3    | 85.3    | 40.0      | 42.3      | 5.7              |
| 인 삼   | 92.1    | 97.2    | 45.0      | 44.0      | △2.2             |
| 화 훼   | 58.1    | 76.2    | 29.0      | 25.4      | △12.4            |
| 과 실   | 144.9   | 154.9   | 60.0      | 47.7      | △20.5            |
| 돼지고기  | 25.6    | 17.7    | 4.1       | 5.4       | 31.7             |
| 가 금 육 | 9.0     | 12.9    | 5.2       | 7.7       | 48.1             |
| 산림부산물 | 71.0    | 59.0    | 18.1      | 18.0      | △0.6             |
| 가공식품  | 1,877.5 | 2,279.5 | 1,084.4   | 1,061.9   | △2.1             |
| 합 계   | 2,474.6 | 2,931.3 | 1,354.8   | 1,325.5   | △2.2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계 실물경제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환율도 안정되면서 2009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입액은 5월보다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 】



6.2. 수입동향

- 2009년 1~6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8,30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8% 감소함.

【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2008     | 2008. 1~6월 | 2009. 1~6월 | 전년동기대비<br>증감률 (%) |
|-------|----------|------------|------------|-------------------|
| 농림축산물 | 20,120.4 | 10,355.7   | 8,305.0    | △19.8             |
| 농 산 물 | 13,904.6 | 7,156.7    | 5,851.3    | △18.2             |
| 축 산 물 | 3,352.2  | 1,717.5    | 1,190.2    | △30.7             |
| 임 산 물 | 2,863.6  | 1,481.5    | 1,263.5    | △14.7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품목의 1~6월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7.2%, 닭고기 31.3%, 대두는 27.9%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품목의 수입액 】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 2006  | 2007  | 2008  | 2008.1~6 | 2009.1~6 | 전년동기대비<br>증감률(%) |
|------|-------|-------|-------|----------|----------|------------------|
| 옥수수  | 1,271 | 1,834 | 2,830 | 1,520    | 803      | △47.2            |
| 밀    | 669   | 856   | 1,314 | 640      | 485      | △24.2            |
| 대두   | 332   | 430   | 813   | 419      | 303      | △27.9            |
| 쇠고기  | 876   | 1,037 | 1,051 | 498      | 380      | △23.7            |
| 돼지고기 | 778   | 904   | 876   | 480      | 376      | △21.8            |
| 닭고기  | 118   | 120   | 154   | 80       | 55       | △31.3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9년 1~6월 열대과일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렌지의 수입이 95백만 달러로 수입액이 가장 컸으며, 바나나, 포도 순으로 나타남.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상반기 열대과일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5.6% 감소함.

【 열대과일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 2006 | 2007 | 2008 | 2008.1~6 | 2009.1~6 | 전년동기대비<br>증감률(%) |
|------|------|------|------|----------|----------|------------------|
| 오렌지  | 123  | 179  | 170  | 132      | 95       | △27.8            |
| 키위   | 63   | 70   | 57   | 26       | 30       | 14.2             |
| 포도   | 33   | 86   | 110  | 82       | 70       | △14.8            |
| 파인애플 | 43   | 68   | 63   | 35       | 27       | △22.6            |
| 바나나  | 145  | 171  | 154  | 90       | 87       | △3.5             |
| 레몬   | 8    | 11   | 11   | 6        | 4        | △33.0            |
| 합계   | 415  | 585  | 565  | 371      | 313      | △15.6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6.3. 국가별 수출입동향

####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9년 1~6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1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5% 감소하였음.
- 가공식품 및 농산물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화훼류 59.9%, 인삼류 38.1% 과자류 8.2%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함.

#### 【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08. 1~6 |       | 2009. 1~6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85.2     | 259.9 | 149.7     | 214.5 | △19.2   | △17.5 |
| 농 산 물 | 85.3      | 150.6 | 95.4      | 140.6 | 11.8    | △6.6  |
| 축 산 물 | 1.2       | 5.4   | 1.9       | 6.6   | 54.2    | 20.9  |
| 임 산 물 | 6.2       | 8.1   | 5.9       | 7.0   | △3.5    | △13.6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 2007 | 2008 | 2008<br>1~6월 | 2009<br>1~6월 | 전년동기대비<br>증감률(%) |
|-----|------|------|--------------|--------------|------------------|
| 당류  | 54.4 | 58.1 | 20.4         | 22.2         | 9.3              |
| 면류  | 30.1 | 36.0 | 19.0         | 17.9         | △5.7             |
| 과자류 | 38.6 | 33.9 | 18.0         | 16.5         | △8.2             |
| 화훼류 | 23.3 | 23.4 | 13.5         | 5.4          | △59.9            |
| 인삼류 | 3.6  | 6.8  | 3.8          | 2.4          | △38.1            |
| 채소류 | 5.5  | 6.9  | 2.8          | 2.6          | △7.9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8년 1~6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17.2%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4.2% 감소함. 특히, 축산물과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08. 1~3 |       | 2009. 1~3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2,412     | 1,456 | 2,822     | 1,395 | 17.0    | △4.2  |
| 농 산 물 | 2,041     | 1,095 | 1,629     | 915   | △20.2   | △16.5 |
| 축 산 물 | 22        | 51    | 9         | 22    | △60.5   | △58.1 |
| 임 산 물 | 349       | 309   | 1,184     | 459   | 238.9   | 48.4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동향**

- 2009년 1~6월 대일 농림축산물 수출은 361.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하였음.
  - 채소류는 양배추, 토마토, 오이, 딸기, 멜론 등이 일본 시장내 가격경쟁력 확보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화훼류는 백합, 카네이션, 양란, 심비디움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5.1% 증가함.
  - 과실류는 사과, 감귤, 과실 주스, 과일잼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47.5%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 2007  | 2008  | 2008. 1~6 | 2009. 1~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
| 농림축산물 | 646.2 | 751.8 | 332.0     | 361.6     | 8.9          |
| 채소류   | 138.4 | 154.8 | 75.2      | 77.2      | 2.7          |
| 주 류   | 119.1 | 146.1 | 61.9      | 71.1      | 14.8         |
| 과자류   | 59.9  | 78.5  | 37.9      | 30.5      | △19.4        |
| 화훼류   | 31.2  | 39.7  | 11.2      | 17.2      | 53.1         |
| 인삼류   | 28.7  | 26.8  | 9.9       | 10.5      | 6.1          |
| 과실류   | 28.3  | 24.9  | 12.7      | 6.7       | △47.5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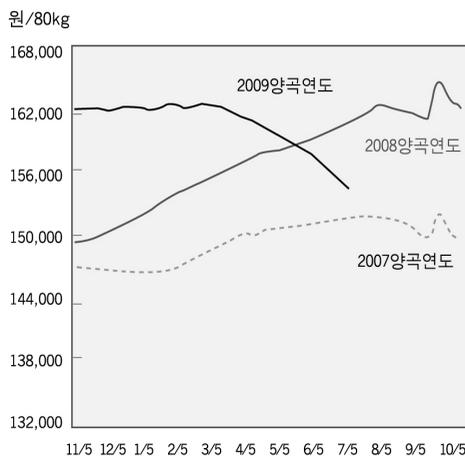
### Ⅲ.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 1. 곡물<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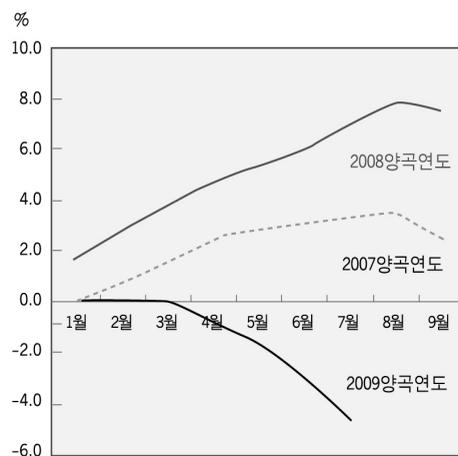
##### 1.1. 쌀

- 2009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11~12월) 이후 3월 중순까지 약 16만 2천 원/80kg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됨. 생산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반기 까지 가격이 높았던 것은 생산요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농가의 매입가격 인상요구로 농협이 수확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임.
- 소비지시장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인하 요구가 강하였지만 농협이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의 쌀 판매가 어려웠음. 하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재고부담이 커져 산지 쌀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함.

【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 추이 】



【 쌀 가격 계절진폭 추이 】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최익창 연구원(cic@krei.re.kr), 승준호 연구원(jhseu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 전국 쌀 평균 가격 】

단위: 원/80kg

|                      |             | 산지 정곡가격 | 소비자가격   |
|----------------------|-------------|---------|---------|
| 2008양곡연도             | 수확기(11~12월) | 150,251 | 180,817 |
|                      | 4월          | 157,352 | 183,841 |
|                      | 5월          | 158,293 | 184,107 |
|                      | 6월          | 159,307 | 184,659 |
|                      | 7월 15일      | 160,860 | 185,948 |
| 2009양곡연도             | 수확기(11~12월) | 161,986 | 195,342 |
|                      | 4월          | 160,813 | 192,760 |
|                      | 5월          | 159,160 | 192,208 |
|                      | 6월          | 157,052 | 190,735 |
|                      | 7월 15일      | 154,508 | 187,237 |
| 등락률(%)<br>(7월 15일기준) | 전월대비        | -1.6    | -1.8    |
|                      | 전년 동기대비     | -3.9    | 0.7     |
|                      | 수확기대비       | -4.6    | -4.1    |

주: 양곡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 쌀이 소비 유통되는 기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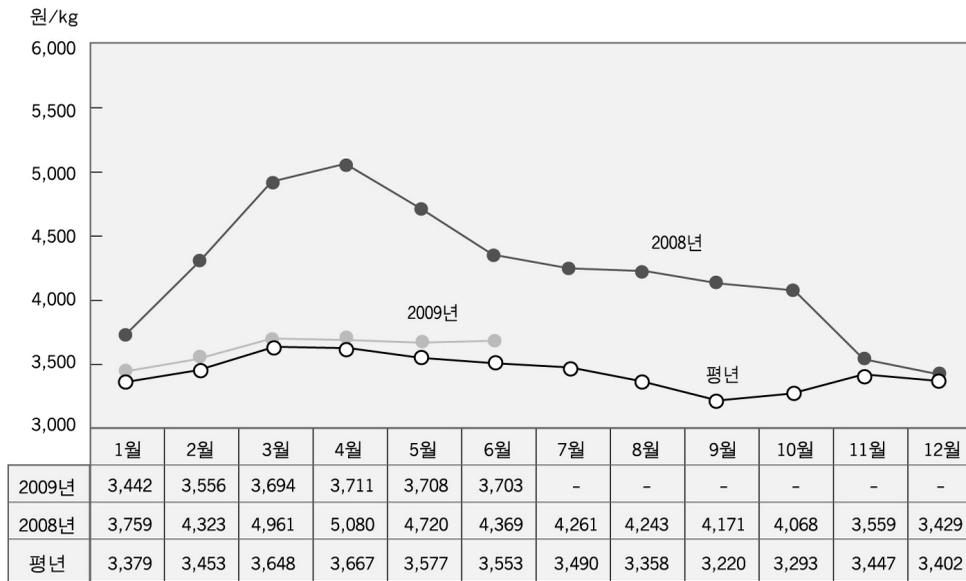
- 7월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15만 4,508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수확기대비 4.6% 하락한 수준을 보임. 역계절진폭도 4월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 가격은 산지 쌀 가격과 비슷한 양상으로 2009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7월 15일 수확기대비 4.1% 하락한 18만 7,237원/80kg을 보임. 하지만 산지 쌀 가격과 달리 전년 동기보다 소폭 높은 수준임.
- POS 데이터 분석 결과, 2008년 11월~2009년 5월까지 소매업체의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함. 2009년 5월 쌀 관측 범호 조사치(2009년 3월까지, 26.4%)보다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던 수치임.
- 2009양곡연도 들어 소매업체들의 쌀 판매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커져, 2009년 2월에는 쌀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33.6%까지 감소하였음. 하지만 3월 이후 대형 할인점의 잦은 할인 행사와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쌀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산지유통업체 2009년 6월말 재고량은 농협(농협RPC+비RPC농협, 53만톤)이 전년 동기대비 76.6%, 민간RPC(곡협, 5만 1천톤)가 143.2% 많은 수준임. 3월 이후 쌀 판매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전 판매가 부진하여 여전히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RPC 재고 증가율이 농협보다 큰 것은 전년에는 2007년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적어 수확기에 농협이 대부분의 벼를 매입하였고 2008년 단경기에 벼 가격이 높아지면서 민간RPC는 벼 매입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음. 하지만 2009년 들어 단경기 벼 가격이 하락하고 오히려 민간RPC가 농협의 벼를 매입하면서 재고가 증가하게 됨.
- 최근 소비지시장에서 소매업체들의 쌀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산지유통업체들의 재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쌀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 정부가 시장 재고의 일부를 격리하는 추가조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실시된다면 단경기 쌀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7%(7천ha) 감소한 92만 9천ha(2009농업전망), 단수는 평년단수인 496kg/10a에서  $\pm 5\%$  변동폭을 감안하면 471~520kg/10a로 가정 시 2009년 쌀 생산량은 437만 5천 톤~483만 5천 톤으로 추정됨. 생산량에 따라 2009년산 수확기 가격은 14만 4천~15만 3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2. 대두

- 콩 도매가격은 2009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5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됨. 2009년 7월 24일 현재 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8% 낮은 3,717원/kg 이고, 중품 도매가격은 3,463원/kg으로 전년대비 13.0% 낮음.

【 콩 도매가격 동향(국산 백태, 상품) 】



주: 평년은 2002년 11월~2007년 10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역별 콩 파종의향 면적은 콩나물콩의 최대 주산지인 제주는 전년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충청이 3.5%, 영남이 2.3%, 호남은 0.5%, 강원·경기가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 안동, 정선, 충주, 영월, 제천, 단양, 문경 등 콩 주산지를 중심으로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지역별 콩 파종면적 전망 】

| 지역    | 2008년(확정) | 2009년(전망) | 증감률(%) |
|-------|-----------|-----------|--------|
| 강원,경기 | 13,678    | 13,720    | 0.3    |
| 영남    | 20,613    | 21,095    | 2.3    |
| 호남    | 17,900    | 17,983    | 0.5    |
| 제주    | 6,287     | 6,762     | 7.6    |
| 충청    | 16,764    | 17,352    | 3.5    |
| 전국    | 75,242    | 76,912    | 2.2    |

주: 2009.4.27~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 농가 645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 광역시는 인근 도에 포함함.

- 2009년산 콩 수매계획량은 전년과 동일한 1만 4,100톤이며, 일반 콩 대립종 1등급 수매 예정가격은 3,168원/kg, 콩나물콩 소립종 1등급 수매 예정가격은 3,290원/kg임. 수매 예정가격은 생산비 인상과 비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5.0% 인상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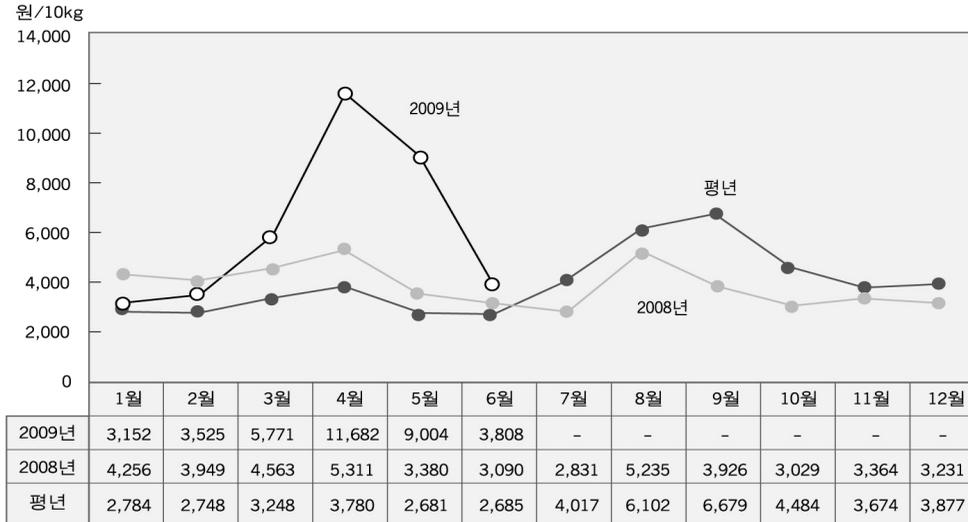
## 2. 채소<sup>6)</sup>

### 2.1. 배추

- 배추 2/4분기 상품 1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8,080원(중품 6,420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6월 배추 가격은 3,560원으로 안정화되었음.
-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가격이 크게 높았던 것은 봄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육기 기상 악화로 출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또한, 위안화 강세로 김치 수입량도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하였기 때문임.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신용광 부연구위원(ykshin22@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김재환(jhkim74@krei.re.kr), 윤종열(fsyoony76@krei.re.kr), 윤형현(aruki00@krei.re.kr), 한승용(han030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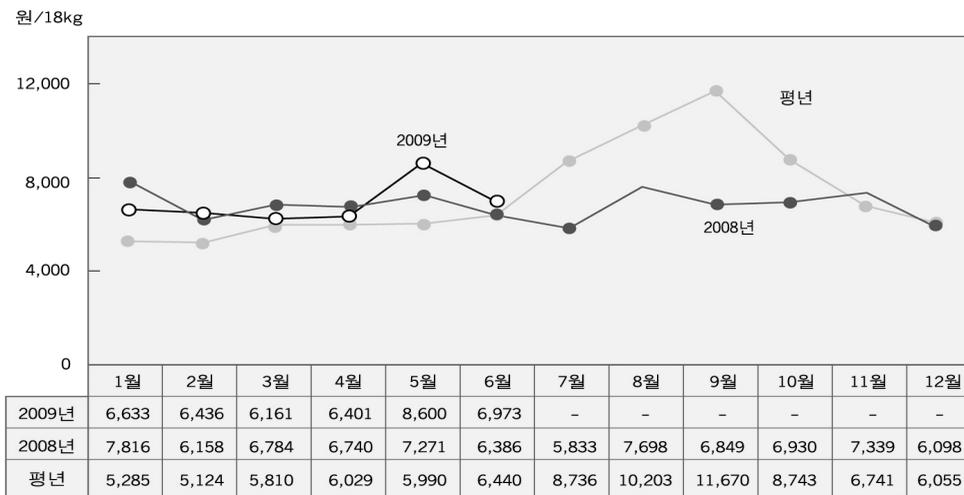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배추 7월 전체 공급량은 산지 출하량과 김치 수입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7%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산지 출하량이 고랭지배추 재배 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3% 감소하였고, 김치 수입량도 중국 배추 재배 면적 감소와 위안화 강세로 작년 동월보다 24% 감소하기 때문임.
- 배추 7월 상품 10kg당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국내 공급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41% 높지만, 평년 동월과 비슷한 4,000원(중품 3,000원)으로 전망됨.
- 고랭지배추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6월초 고랭지무 계약재배가 활성화 되면서 무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가을배추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출하가 가격이 크게 낮아 과수 등으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2.2. 무

- 무 2/4분기 상품 18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7,330원(중품 5,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높고, 평년 동기보다 19% 높은 수준임.

【 무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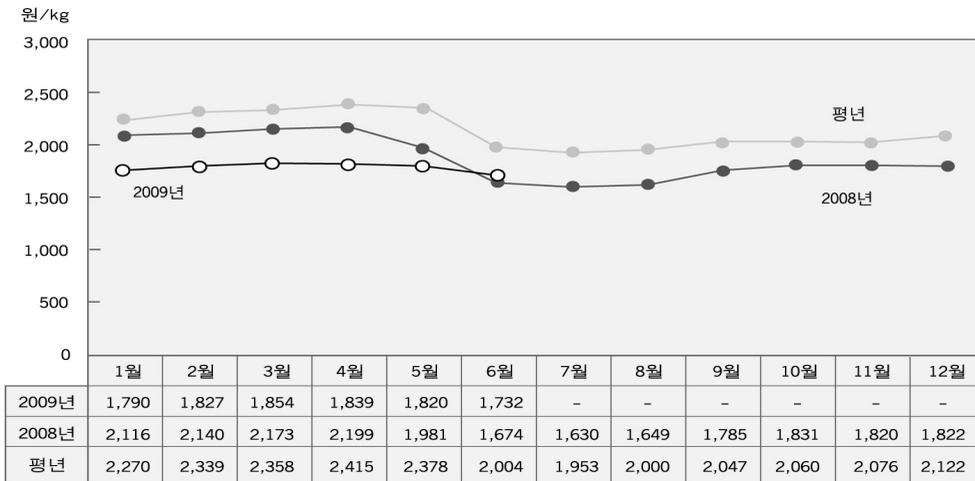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이는 봄무 재배 면적이 작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고, 월동무 저장량도 작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무 7월 산지 출하량은 고랭지무와 여름 평지무의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 무 7월 상품 18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20% 높지만, 평년 동월보다 20% 낮은 7,000원(중품 5,500원)으로 전망됨.
- 고랭지무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하지만, 6월 고랭지무 계약 재배가 활성화 되면서 파종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가을무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출하가 가격이 크게 낮아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임.

### 2.3. 마늘

【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마늘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1,800원(난지형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8%, 평년 동기보다 21% 낮아 약세가 지속되었음.
- 이는 2009년산 마늘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산 재고 마늘이 햇마늘 수확기까지 출하되었기 때문임.
-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7% 감소한 2만 6천 ha임. 품종별로 한지형이 1%, 난지형이 9%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음(통계청).
- 금년산 마늘 단수는 작년산보다 1% 감소한 한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 작황은 충북, 충남, 전북이 작년보다 좋지만, 주산지인 경북, 경남, 전남, 제주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마늘 생산량 추정 】

|     | 재배면적(ha) | 생산량(천톤) | 작년대비 증감률(%) |
|-----|----------|---------|-------------|
| 한지형 | 5,384    | 48.7    | -1.9        |
| 난지형 | 20,939   | 294.0   | -9.8        |
| 전체  | 26,323   | 342.6   | -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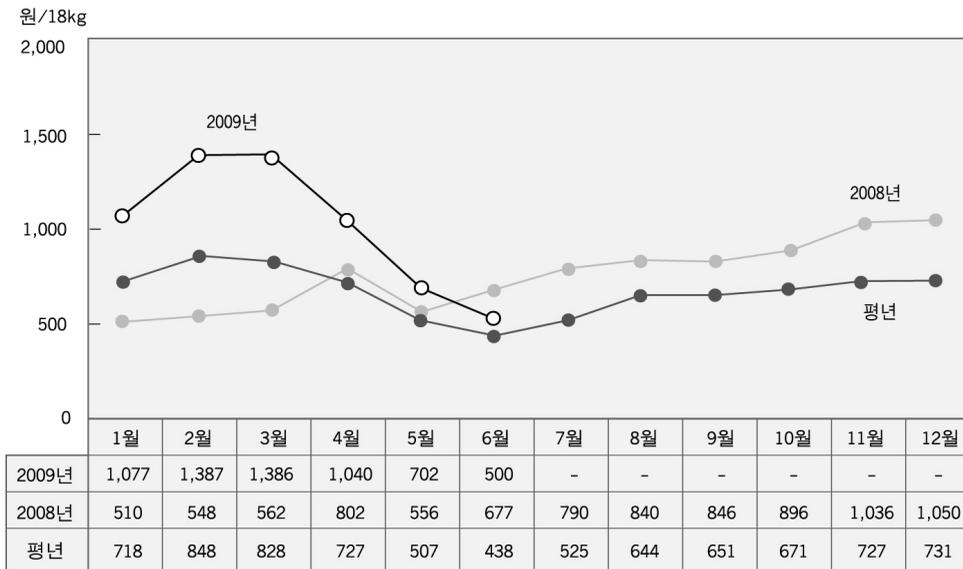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 저장업체 조사 결과, 금년산 마늘 입고 희망물량은 작년 동기(9만 2,417톤)보다 12% 감소한 8만 1,800톤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입고 희망량 중 6월 20일까지 마늘 입고량은 전체의 49%가 완료되어 작년 동기 입고실적(57%)과 비교할 경우 입고 관망세가 좀 더 길어지고 있음.
- 입고 완료된 마늘의 kg당 가격은 1,510원 내외이며 향후 입고계획량에 대한 희망 가격은 1,420원으로 작년 입고가격 1,590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국 마늘 산지 가격은 생산량이 10~20% 감소한데다 자국 내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마늘 산지 가격은 톤당 550달러로 작년 동월(110달러) 대비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중국 산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4분기 수입량도 작년 동기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금년 마늘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여 7-8월 마늘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국 마늘 산지 가격도 강세가 지속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 2.4. 양파

- 양파 2/4분기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680원으로 작년보다 2배, 평년보다 15% 높아 1/4분기에 이어 강세가 계속되었음.
- 이는 금년 조생종 양파의 병해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4월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임. 그러나 중만생종이 출하되는 5~6월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하였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18% 증가한 1만 8,496ha로 발표되었음 (통계청). 관측센터 조사 결과, 양파 단수는 작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과 단수를 고려한 금년 양파 생산량은 작년보다 17% 많은 121만 톤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15만톤 중만생종이 106만톤으로 추정됨.

【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      | 재배면적<br>(ha) | 생산량<br>(천톤) | 작년대비<br>증감률 | 평년대비<br>증감률 |
|------|--------------|-------------|-------------|-------------|
| 조생종  | 2,431        | 151.8       | 29.3        | 0.6         |
| 중만생종 | 16,035       | 1,060.0     | 15.5        | 24.5        |
| 전체   | 18,496       | 1,211.8     | 17.1        | 2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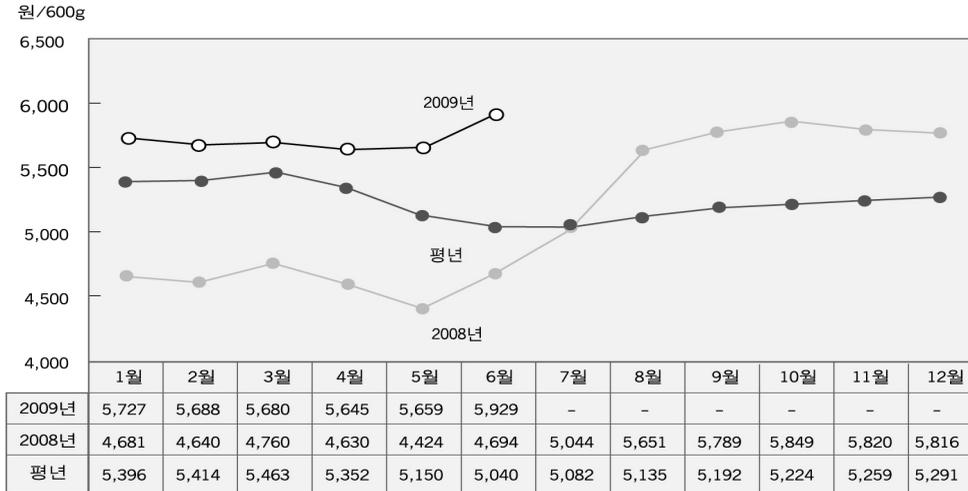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 저장업체의 금년산 양파 입고 희망량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57만 5천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입고 희망량 중 6월 20일까지 입고량은 44만 2천 톤으로 입고량의 77% 정도가 완료되었음.
- 입고 완료된 양파의 kg당 가격은 380원 내외이며 향후 도입될 물량의 입고희망 가격도 400원으로 기존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6월말 중국산 신선양파 kg당 국내 판매 추정(도매)가격은 1,240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양파 수입도 관세가 낮은 건조와 냉동양파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신선양파로 환산하면 631톤으로 작년 동월보다 51% 감소하였음.
- 국내 양파 생산량 증가로 6월부터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반전되었음. 또한 생산량 증가는 가저장량 출하 장기화로 이어져 저장 양파 출고 시점인 9월까지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5. 건고추

- 건고추 화건 2/4분기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600g당 5,740원, 양건은 6,62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25%, 17% 높은 수준이었음.
- 이는 '08년산 건고추 재고량이 '07년산보다 17%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고추(화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건고추 7월 재고량은 '08년산 고추 생산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17% 적은 8,677톤으로 추정됨.
- '08년 8월~'09년 7월 중순까지 건고추 이월·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한 8만 4,679톤임.

【 고추 공급량 추정 】

단위: 톤

| 연산     | 생산량 (A) | 8~7월 이월·수입량 (B) | 공급량 (C=A+B) | 8~7월 소비량 (D) | 7월 재고량 (E=D-C) |
|--------|---------|-----------------|-------------|--------------|----------------|
| 2008   | 123,509 | 84,679          | 208,188     | 199,511      | 8,677          |
| 2007   | 160,393 | 86,278          | 246,676     | 236,264      | 10,413         |
| 증감률(%) | -23.0   | -1.9            | -15.6       | -15.6        | -16.7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 '08년 8월~'09년 7월 중순까지 건고추 공급량은 20만 8,188톤, 소비량은 19만 9,511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6% 감소하였음.

- 7월 1~20일까지 고추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4% 감소한 5,136톤이었음. 세번별 수입량은 건고추 수입량이 작년 동기보다 70% 감소한 334톤이며 고추 관련품목을 건고추로 환산한 수입량이 작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4,801톤이었음.
- 고추 7월 전체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4% 감소한 7,900톤으로 전망됨. 이는 환율 상승과 중국 산지 가격도 회복되고 있어 수입 가격이 작년 동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건고추(화건) 7월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국내 건고추 재고량과 수입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8% 높지만 6월과 보합세인 상품 600g당 6,000원으로 전망됨.
- 2009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2008년산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 금년 고추 생육은 3.3m<sup>2</sup>당 포기당 착과수가 0.2개 많아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 고추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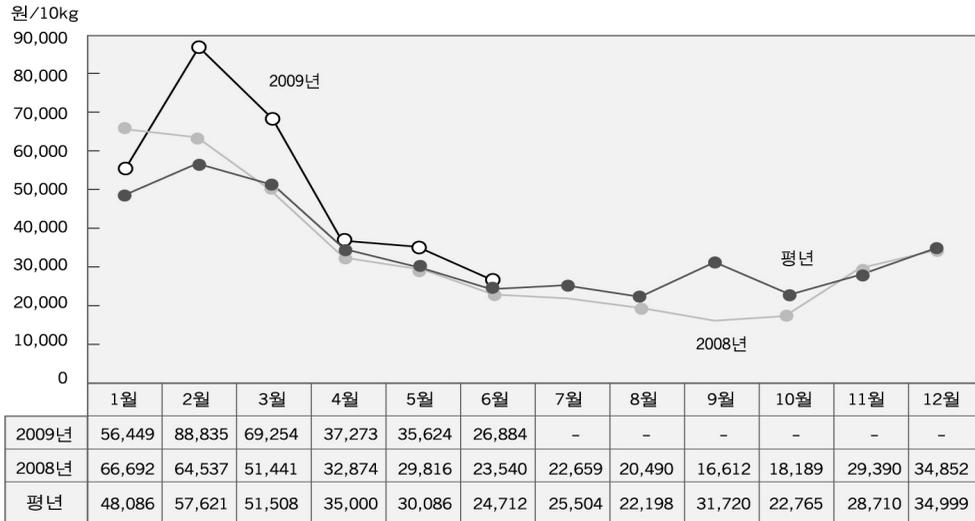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전체   |
|-------|------|-------|------|------|------|-------|------|------|
| -11.9 | -3.4 | -15.3 | -2.1 | -6.3 | -5.4 | -11.7 | -6.7 | -8.3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6. 일반풋고추**

- 일반풋고추 2/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33,2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평년 동기보다 11% 높은 수준임.
- 이는 출하 면적 감소와 생육저하로 인한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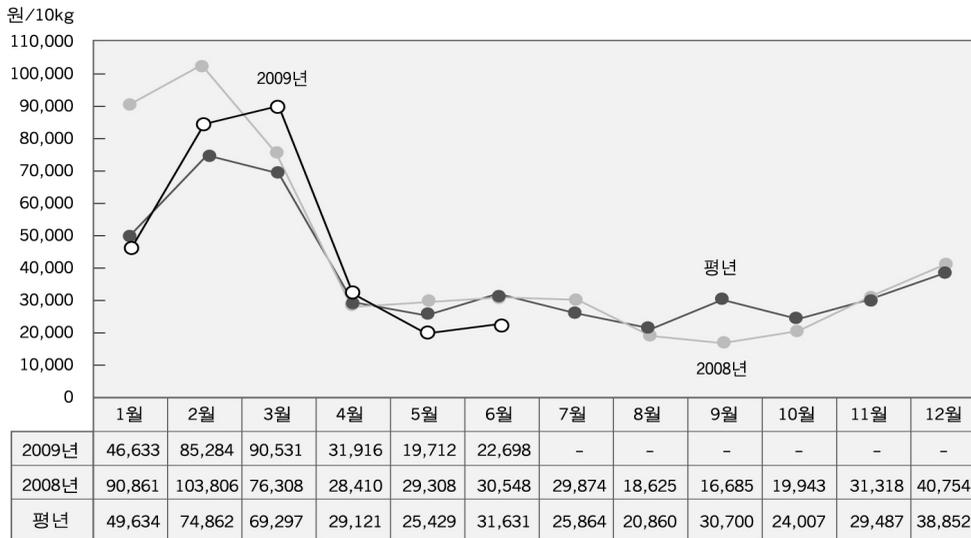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일반풋고추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하지만 강원 지역의 기상여건 악화와 전남 지역의 연작장해로 단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 7월 정식 면적은 충남 지역에서 토마토를 일반풋고추로 돌려짓기 하려는 농가가 늘어 작년 동월보다 3% 증가할 전망이다.

## 2.7. 청양계풋고추

- 청양계풋고추 1/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24,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평년 동기보다 14% 낮은 수준임.
- 이는 주산지인 경남 지역의 신규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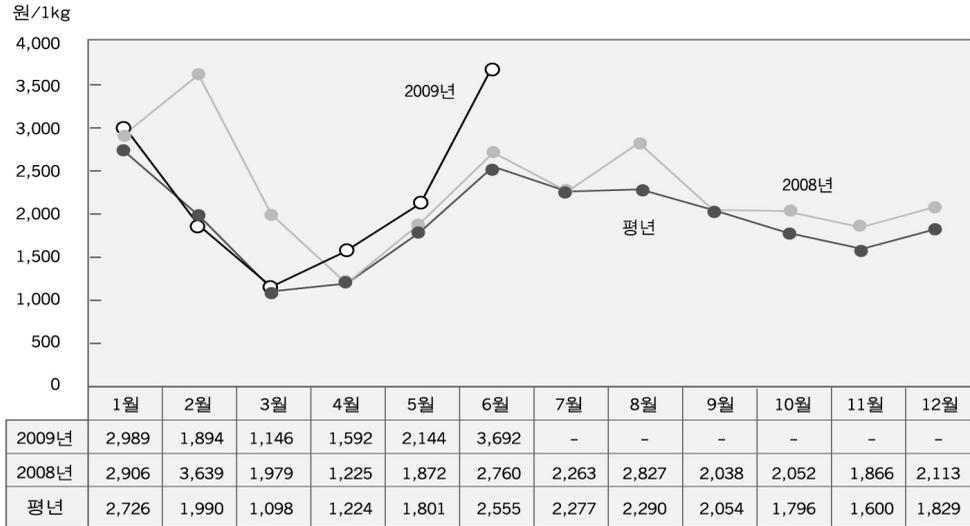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청양계꽃고추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강원 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1% 감소하지만 주산지인 경남과 강원 지역의 재배면적이 3% 증가하기 때문이다.
- 7월 정식 면적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작년 동월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 2.8. 쪽파

- 쪽파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480원으로 작년보다 27% 높고 평년보다 33% 높은 수준임.
- 이는 중국산 종구 수입 감소로 출하 면적이 감소했고, 작황도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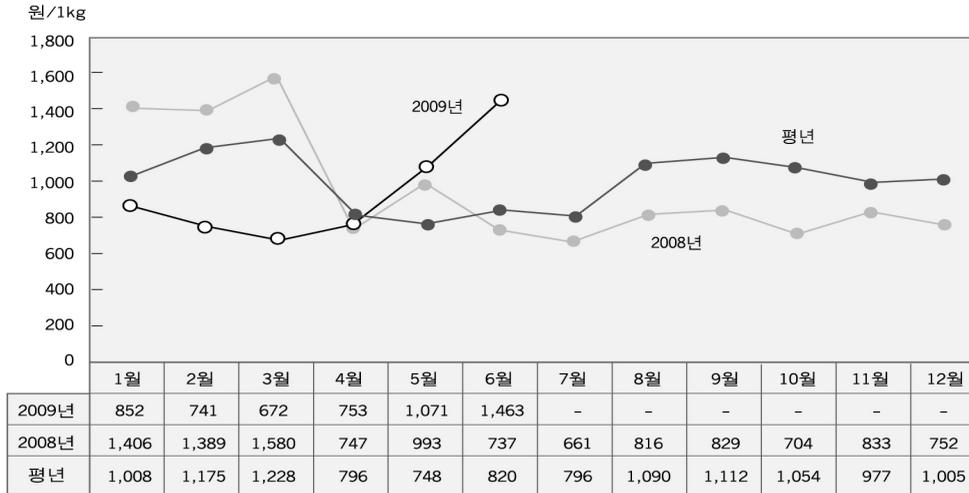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쪽파 7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4% 증가할 전망이며 국산 종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출하량이 하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쪽파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중순 이후 급락하여 출하량이 집중되는 하순에는 상품 kg당 2,500원으로 전망됨.
- 8월 쪽파 출하 면적은 최근 가격 강세로 인해 작년 동월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9. 대파

- 대파 2/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100원으로 작년보다 33%, 평년보다 40% 높은 수준임.
- 이는 작년 가을 정식기 가격 약세로 인해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월동대파 출하가 조기에 종료되었기 때문임.

【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 대파 7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대파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1,3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크게 높을 전망이다.
- 대파 8월과 9월 출하 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각각 3%,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전남 지역이 주산지인 겨울대파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며, 지역별로는 진도, 신안, 영광 지역이 각각 5%, 1%, 4% 감소할 전망이다.

【 겨울대파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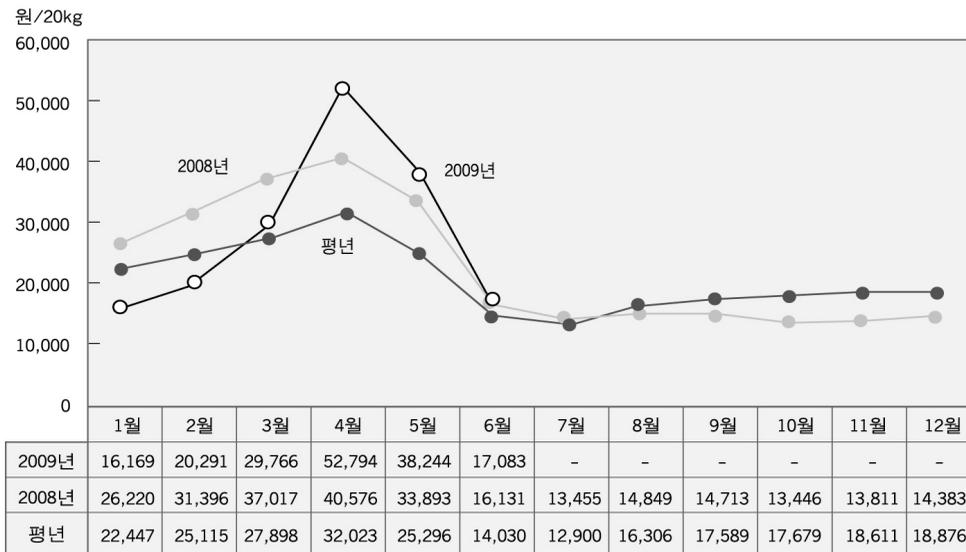
| 조사시기  | 전남   |      |      |      | 부산   | 전체   |
|-------|------|------|------|------|------|------|
|       | 진도   | 신안   | 영광   | 계    |      |      |
| 5. 20 | -6.1 | -1.4 | -8.8 | -5.2 | -    | -    |
| 6. 20 | -4.9 | -1.1 | -4.4 | -3.8 | -8.2 | -5.0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 조사치.

## 2.10. 감자

- 수미 2/4분기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만 6,04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평년 동기보다 52% 높은 수준이었음.
- 이는 생육기 작황 부진으로 봄(노지) 및 봄(시설)감자 출하량이 작년 동월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봄(노지)감자와 준고랭지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수미 7월 전체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4% 감소할 전망이다.
- 봄(노지)감자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출하 면적이 작년 동월보다 3% 감소하고 단수가 생육기 작황 부진으로 작년 동월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평창, 횡성, 홍천 지역의 준고랭지감자 7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출하 면적이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하지만, 단수가 생육기 기상 호조로 작년 동월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한편, 고랭지감자 8월 출하 면적은 재배 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 수미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1%, 평년동월보다 16% 높은 상품 20kg당 1만 5,000원으로 전망됨.
- 고랭지감자(수미) 재배 면적은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수확기 가격 약세로 브로콜리, 무, 옥수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 고랭지감자 재배 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 강릉   | 양구   | 인제   | 정선  | 평창   | 홍천  | 횡성   | 전체   |
|------|------|------|-----|------|-----|------|------|
| -2.3 | -5.6 | -2.1 | 2.6 | -2.4 | 3.9 | -1.4 | -1.3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금년 가을감자(대지)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 수확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대체 작목은 고구마, 콩 등으로 나타남.

**【 가을감자 재배 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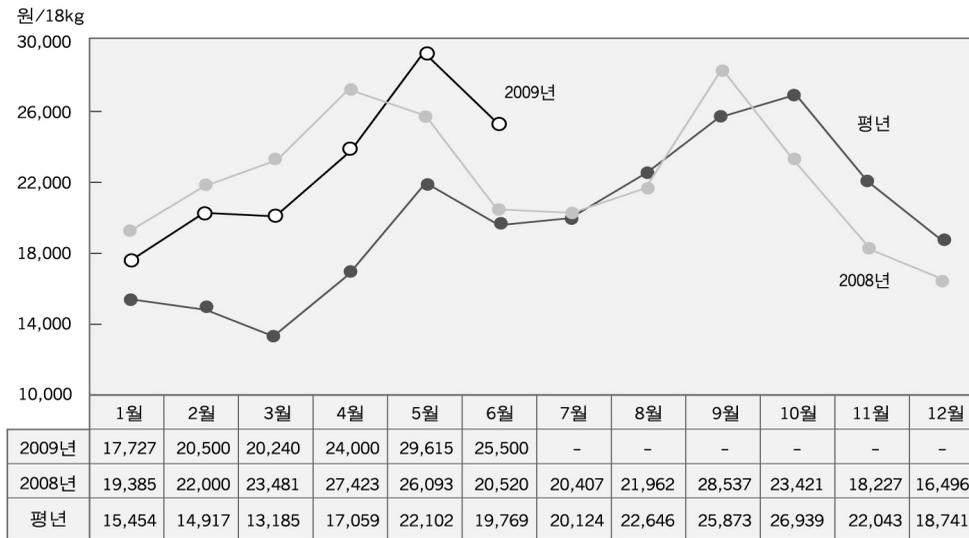
| 전북   | 전남   | 경남   | 제주   | 전체   |
|------|------|------|------|------|
| -8.7 | -7.6 | -7.7 | -6.5 | -6.9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11. 당근

- 당근 2/4분기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6,383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34% 높은 수준임.
- 이는 단수 감소로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데다 위안화 강세로 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당근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당근 7월 전체 출하량은 저장량 출하가 증가하지만 산지 출하량과 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4% 감소할 전망이다.
- 산지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6% 감소할 전망이다.
- 저장량은 부산 지역 봄(노지)당근 출하 조절로 작년 동월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10%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재배 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에 따른 중국 생산량 감소로 중국 산지 가격이 상승하였고 위안화 상승으로 수입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 당근 7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산지 출하량과 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23% 높은 상품 20kg당 2만 5,000원으로 전망됨.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봄당근 출하기 가격이 높아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고랭지당근 파종시기별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 조사 시기 | 4월   | 5월   | 6월   | 전체   |
|-------|------|------|------|------|
| 4. 20 | -3.6 | -1.6 | -0.1 | -2.1 |
| 5. 20 | -3.9 | -0.8 | 1.1  | -0.6 |
| 6. 20 | -4.0 | -1.5 | 5.6  | 2.5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가을당근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상반기 당근 가격이 높아 가격 상승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 가을당근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 영남  | 충청  | 전체  |
|-----|-----|-----|
| 9.0 | 0.1 |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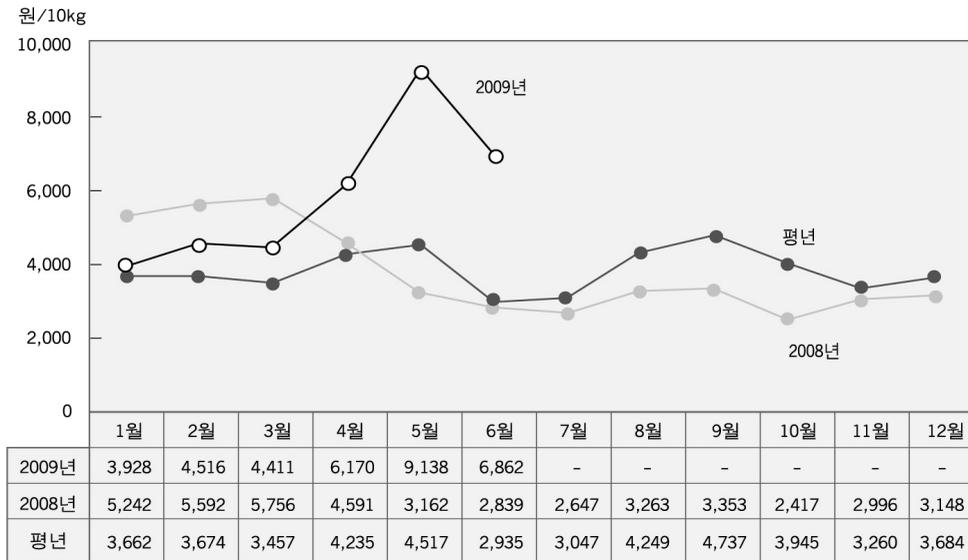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12. 양배추

- 양배추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7,39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는 봄양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한데다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조기 출하되어 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양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양배추 7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6% 감소할 전망이다.
- 출하 면적은 작년 동월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작형별로 봄양배추가 7%, 준고랭지양배추가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충청 지역 봄양배추가 6월에 조기 출하되면서 7월 출하 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또한 준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도 작년과 같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단수는 강원 지역 작황이 양호하지만 경북 청송 지역 작황이 가뭄 피해를 입어 작년 동월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 양배추 8월 출하 면적은 작년과 같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재배 농가들이 공동으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작년 동월보다 7% 감소할 전망이다.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5월 조사치(3% 감소)보다 1% 증가하여 작년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 조사 시기 | 강원   | 경북   | 전체   |
|-------|------|------|------|
| 4. 20 | -5.3 | -2.2 | -4.3 |
| 5. 20 | -3.0 | -2.3 | -2.8 |
| 6. 20 | -2.7 | -0.1 | -1.8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상반기 가격 강세가 계속되면서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임.

**【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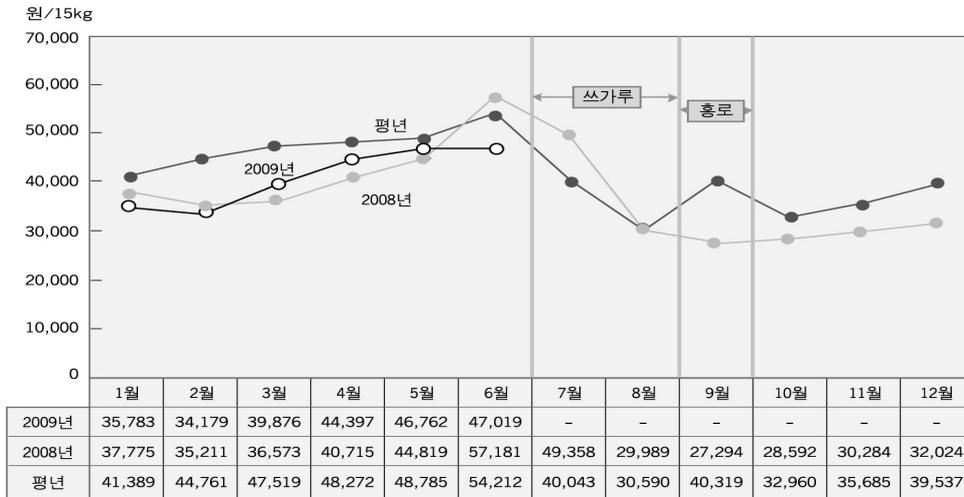
| 영남  | 호남   | 충청  | 전체  |
|-----|------|-----|-----|
| 3.4 | 19.8 | 2.2 | 7.6 |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3. 과일기

#### 3.1. 사과

【 사과 도매가격(15kg 상품) 】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후지 도매가격 상품 15kg에 4월 4만 4천원, 5월 4만 7천원, 6월 4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4월 9%, 5월 4% 높았으나 6월은 18% 낮았음. 6월 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저장량이 많아 시장반입량이 작년보다 38% 많았기 때문임.
-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늘어난 3만 451ha, 성목면적은 4% 증가한 1만 9,179ha인 것으로 조사됨. 후지, 홍로 중심으로 신규식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늘고 작황호조로 단수도 많아 작년보다 5% 증가한 49만 5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은미 부연구위원(jeongem@krei.re.kr), 천인석(chunis94@krei.re.kr), 조용래(cik1114@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사과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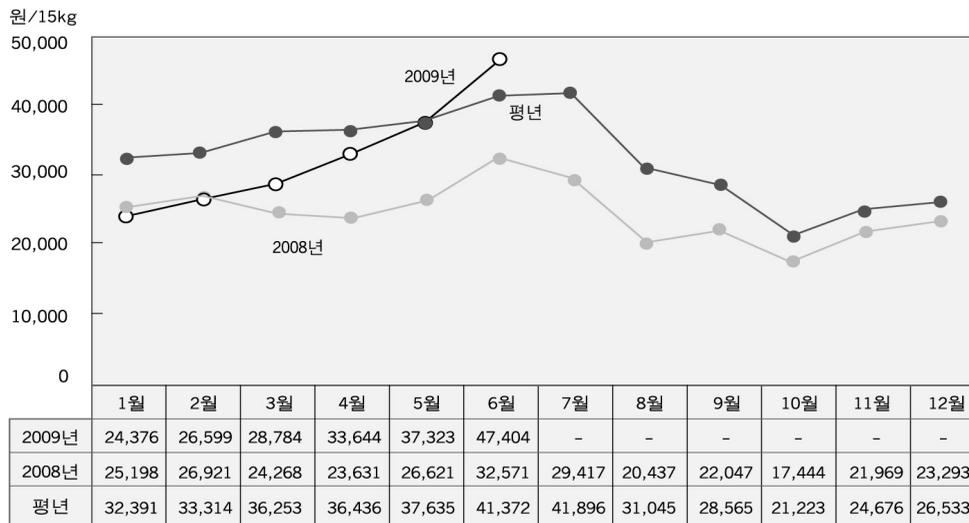
단위 : ha, ,톤, %

|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
| 성목면적 | 18,534  | 19,179  | 3.5 |
| 생산량  | 470,865 | 495,617 | 5.3 |

주: '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 생산량 '08 '09년 성목면적).

3.2. 배

【 배 도매가격(신고 15kg 상품) 】



주: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매월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에 4월 3만 4천원, 5월 3만 7천원, 6월에 4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40% 이상 높게 형성됨.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저장량이 적어 반입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7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32%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 및 평년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배 월별 출하예상량 】

단위: 천톤, %

|        | 생산량   | 출하량   | 수출량  | 국내 출하량 |       |
|--------|-------|-------|------|--------|-------|
|        |       |       |      | 6월까지   | 7월 이후 |
| 2007년산 | 467.4 | 424.4 | 20.0 | 364.4  | 40.0  |
| 2008년산 | 470.7 | 402.8 | 23.6 | 352.0  | 27.2  |
| 증감률    | 0.7   | -5.1  | 18.3 | -3.4   | -32.1 |

주: 출하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08년산 출하량은 전체 생산량에서 비상품과 산지폐기 1만톤을 제외한 수치임. 출하량 = 수출량 + 국내 출하량  
 자료: 통계청(생산량)

- 봉지수는 개화기 저온 피해 등으로 착과량이 적어 작년보다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생육상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양호하지만 울산, 경기 안성, 충남 논산, 전남 나주·영암에 꼬마배나무이와 응애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수는 개화기 저온 현상과 서리 피해로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배 지역별 봉지수 및 단수 작년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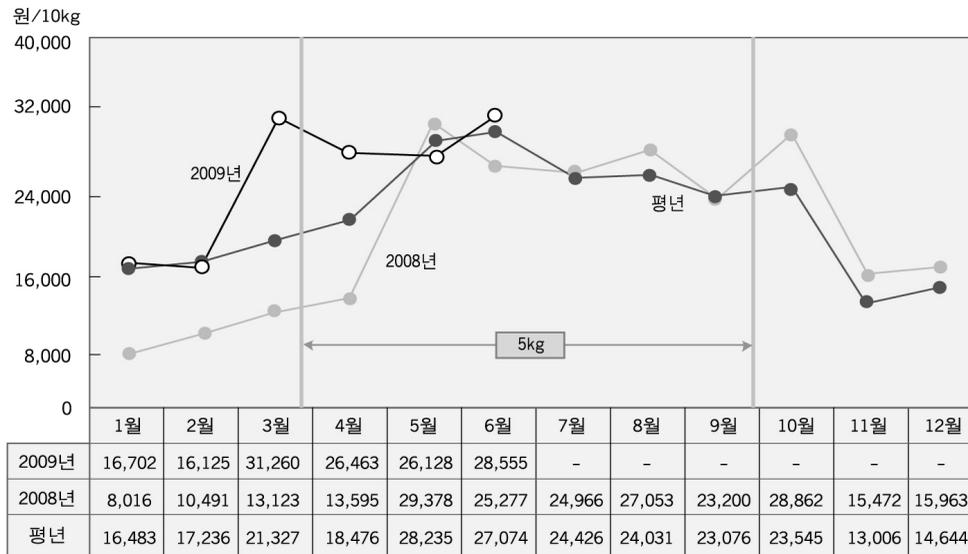
단위: %

|         | 경기   | 충청   | 호남   | 영남  | 전국   |
|---------|------|------|------|-----|------|
| 봉지수 증감률 | -1.0 | -0.6 | -0.8 | 1.7 | -0.7 |
| 단수 증감률  | -0.7 | -0.6 | -1.4 | 0.5 | -2.2 |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3.3. 감귤

【 감귤 도매가격(상품) 】



주: 4~9월은 5kg, 2009년 5월은 3kg, 10~3월은 10kg 기준임. 평년은 2004~08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감귤 도매가격은 4월 월동온주 상품 5kg에 2만 7천원, 5월부터 출하된 시설온주는 5월 상품 3kg에 2만 6천원, 6월 상품 5kg에 2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작년 고유가의 영향으로 가온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출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임.
- 시설온주 재배면적은 고유가로 경영비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3% 감소한 303ha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시설온주의 생산량은 일조량이 많고 착과 상황이 양호하여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노지온주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은 각각 18,236ha, 18,114ha로 작년보다 1% 감소하지만 기상여건과 착과상황이 좋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23% 증가한 64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시설온주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ha, kg/10a, 톤, %

|       | 재 배 면 적 | 단 수   | 생 산 량  |
|-------|---------|-------|--------|
| 2008년 | 312     | 7,165 | 22,356 |
| 2009년 | 303     | 7,567 | 22,947 |
| 증감률   | -2.8    | 5.6   | 2.6    |

주: 08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ha, kg/10a, 톤, %

|           | 성 목 면 적  | 단 수   | 생 산 량   |      |
|-----------|----------|-------|---------|------|
| 2007년     | 18,469   | 3,70  | 677,700 |      |
| 2008년     | 18,351   | 2,834 | 520,100 |      |
| 2009년(예상) | 18,114   | 3,542 | 641,598 |      |
| 증감률       | 2007년 대비 | -1.9  | -3.5    | -5.3 |
|           | 2008년 대비 | -1.3  | 25.0    | 23.4 |

주: 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07, 08년 성목면적, 생산량).

- 2/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환율상승 영향으로 4월은 작년보다 적었지만 5월은 환율이 안정되고 수익성이 호전되어 13% 많았음. 그러나 6월 수입량은 5월 재고량과 국산 제철과일 출하가 많아 작년보다 13% 적었음.
- 오렌지 국내 도매가격은 상품 18kg에 4~5월은 작년보다 높았지만 6월은 작년보다 10% 낮은 3만 5천원이었음.

**【 오렌지 수입량 】**

단위 : 톤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연간      |
|-------|--------|--------|--------|--------|--------|-------|-------|---------|
| 2007년 | 12,020 | 9,768  | 15,887 | 21,076 | 5,120  | 486   | 1,778 | 77,671  |
| 2008년 | 9,265  | 14,334 | 34,660 | 30,565 | 8,416  | 1,974 | 1,438 | 106,812 |
| 2009년 | 2,481  | 6,576  | 17,740 | 26,473 | 9,540  | 1,232 |       |         |
| 평년    | 9,906  | 17,057 | 35,568 | 30,686 | 11,203 | 1,597 | 1,336 | 110,181 |

주: 평년은 2004~08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치,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 오렌지 도매가격(상품) 】

단위 : 원/18kg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2007년 | 39,740 | 41,713 | 42,037 | 42,447 | 41,736 | -      | 50,635 | 41500  |
| 2008년 | 23,280 | 26,000 | 31,096 | 34,146 | 42,648 | 39,231 | 35,278 | 30,673 |
| 2009년 | 51,727 | 48,979 | 54,942 | 48,712 | 47,442 | 35,442 |        |        |
| 평년    | 34,980 | 33,853 | 35,080 | 36,854 | 40,359 | 34,542 | 36,404 | 35,2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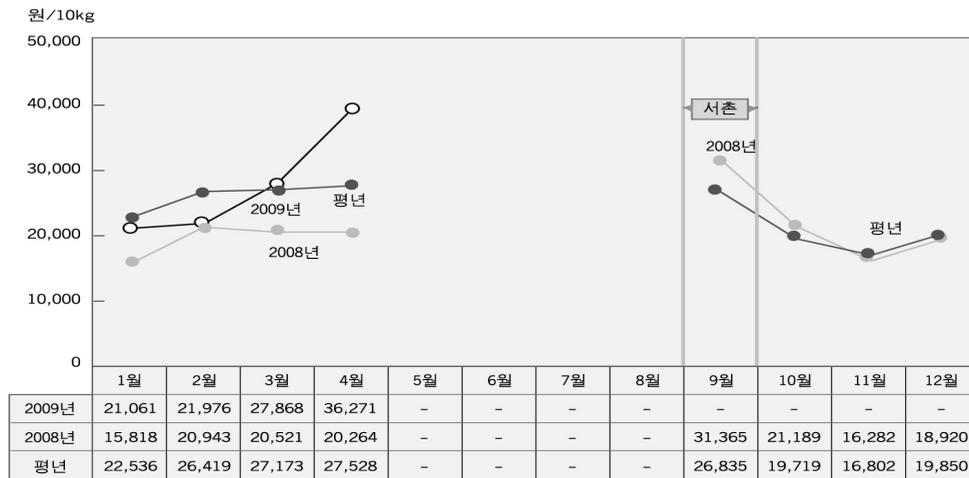
주: 1~5월은 네이블, 6~9월은 발렌시아 기준임. 평년은 2004~08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4. 단감

- 올해 단감 성목면적은 12,982ha으로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 작년보다 부유 8%, 차랑 7%, 서촌조생 9%, 기타 2% 줄었음. 도시개발에 따른 과원편입, 농가 고령화, 단감 수익성 감소에 따른 석류, 매실 등 타작목으로 전환하여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단감 도매가격(10kg 상품) 】



주: 9월은 서촌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단감 품종별 성목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ha, %

|      | 부유     | 차랑    | 서촌조생 | 기타   | 전체     |
|------|--------|-------|------|------|--------|
| 2008 | 11,553 | 1,458 | 621  | 432  | 14,064 |
| 2009 | 10,629 | 1,364 | 564  | 425  | 12,982 |
| 증감률  | -8.0   | -6.5  | -9.2 | -1.6 | -7.7   |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09년 전체 성목면적).

【 단감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ha, kg/10a, 톤, %

|      | 성목면적   | 단수    | 생산량     |
|------|--------|-------|---------|
| 2008 | 14,064 | 1,536 | 216,030 |
| 2009 | 12,982 | 1,619 | 217,955 |
| 증감률  | -7.7   | 9.3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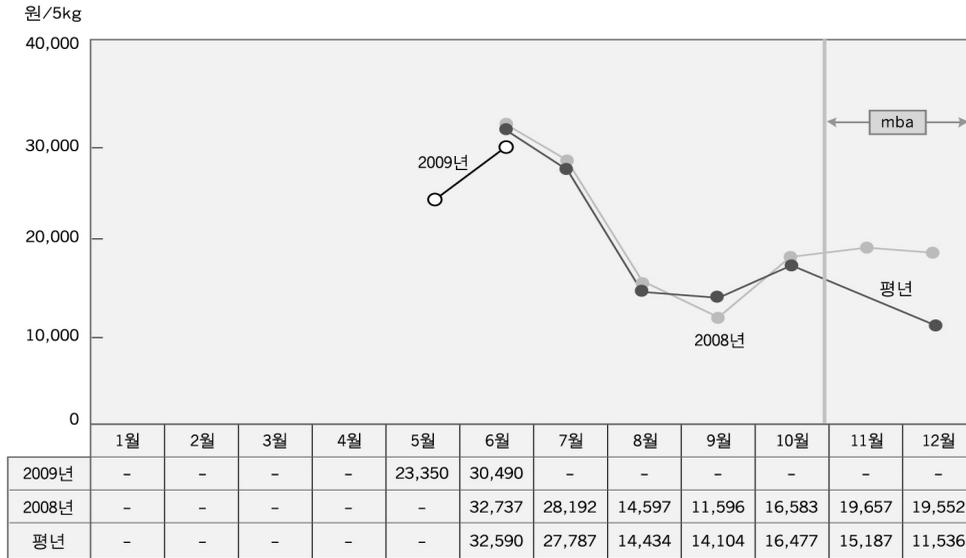
주: '09년 단수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09년 성목면적, '08년 생산량).

- 올해 단감 단수는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좋고 생육상황도 양호하며 병해충 발생이 적어 작년보다 9%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한 22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3.5. 포도

- 2/4분기 포도 도매가격은 5월 텔라웨어 상품 2kg에 2만 3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고, 6월 캠벨얼리 상품 5kg에 3만원으로 작년보다 7% 낮았음. 6월 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반입량이 적었지만 소비대체 제철과일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7월 출하면적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무가운 시설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8월 출하면적은 비가림면적의 증가와 고온현상으로 숙기가 빨라 작년보다 2% 증가하나 9월 이후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포도 도매가격(5kg 상품) 】



주: 5월은 델라웨어 2kg, 6월 중순~10월은 캠벨얼리, 11~12월은 MBA 가격임.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매월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8월에 출하될 포도 품질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송이모양, 당도, 착색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7월은 출하면적이 늘고 단수도 증가하여 출하량이 많고 대체과일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포도 월별 출하예상면적 】

단위: ha, %

|       | 7월    | 8월    | 9월 이후  |
|-------|-------|-------|--------|
| 2008년 | 1,159 | 5,990 | 10,772 |
| 비중    | 6.4   | 32.8  | 59.1   |
| 2009년 | 1,218 | 6,093 | 10,711 |
| 증감률   | 5.1   | 1.7   | -0.6   |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비중은 가락시장 반입량 기준임.

- 올해 포도 단수는 개화기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노지포도는 전반적인 생육상황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포도 월별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      | 7월  | 8월  | 9월 이후 |
|------|-----|-----|-------|
| 출하면적 | 5.1 | 1.7 | -0.6  |
| 단수   | 1.9 | -   | -     |
| 출하량  | 7.1 | 1.7 | -0.6  |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예상단수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kg/10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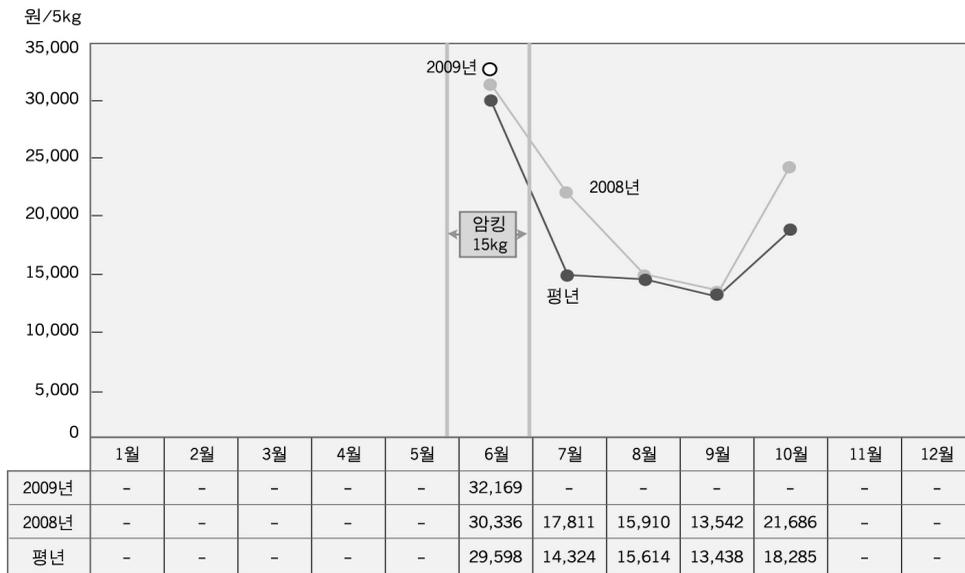
|      | 시설포도  |       |      | 노지포도  |       |      | 전체    |       |      |
|------|-------|-------|------|-------|-------|------|-------|-------|------|
|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2008년 | 2009년 | 증감률  |
| 캠벨얼리 | 1,755 | 1,789 | 1.9  | 2,250 | 2,262 | 0.5  | 2,197 | 2,219 | 1.0  |
| 거봉   | 2,028 | 2,026 | -0.1 | 2,290 | 2,341 | 2.2  | 2,294 | 2,275 | 1.7  |
| MBA  | 1,829 | -     | -    | 2,059 | 2,057 | -0.1 | 2,022 | 2,057 | -0.1 |
| 세리단  | 1,829 | -     | -    | 2,142 | 2,161 | 0.9  | 2,101 | 2,161 | 0.9  |
| 텔라웨어 | 1,656 | 1,626 | -1.8 | -     | -     | -    | 1,656 | 1,626 | -1.8 |
| 전체   | 1,828 | 1,851 | 1.3  | 2,234 | 2,255 | 0.9  | 2,193 | 2,213 | 0.9  |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3.6. 복숭아

- 6월 천도계 암킹 도매가격 상품 15kg에 3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6% 높았고, 유모계 월봉 도매가격은 상품 4.5kg에 작년과 비슷한 1만 5천원이었음.

【 복숭아 도매가격(4.5kg 상품) 】



주: 6월은 암킹 15kg, 7월은 창방, 8월은 미백, 9월 유명, 10월은 황도 가격임.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복숭아 성목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고 단수는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작년보다 5% 증가한 19만 7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복숭아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ha, kg/10a,톤, %

|       | 성목면적  | 단수    | 생산량     |
|-------|-------|-------|---------|
| 2008년 | 8,823 | 2,143 | 189,077 |
| 2009년 | 8,810 | 2,242 | 197,559 |
| 증감률   | 0.1   | 4.6   | 4.5     |

주: '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 생산량 '08 '09년 성목면적).

- 올해 복숭아는 기온 상승으로 생육이 빨라져 수확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7월 출하면적도 늘고 단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작년보다 5% 증가하고 8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복숭아 조·중생종 당도 등 품질은 유모계, 천도계 모두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경북 경산·김천은 가뭄으로 인해 과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복숭아 월별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

|      | 7월  | 8월  | 9월 이후 |
|------|-----|-----|-------|
| 성목면적 | 0.7 | 4.1 | -8.8  |
| 단수   | 4.2 | 4.5 | 4.8   |
| 출하량  | 5.0 | 8.8 | -4.4  |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4. 과채<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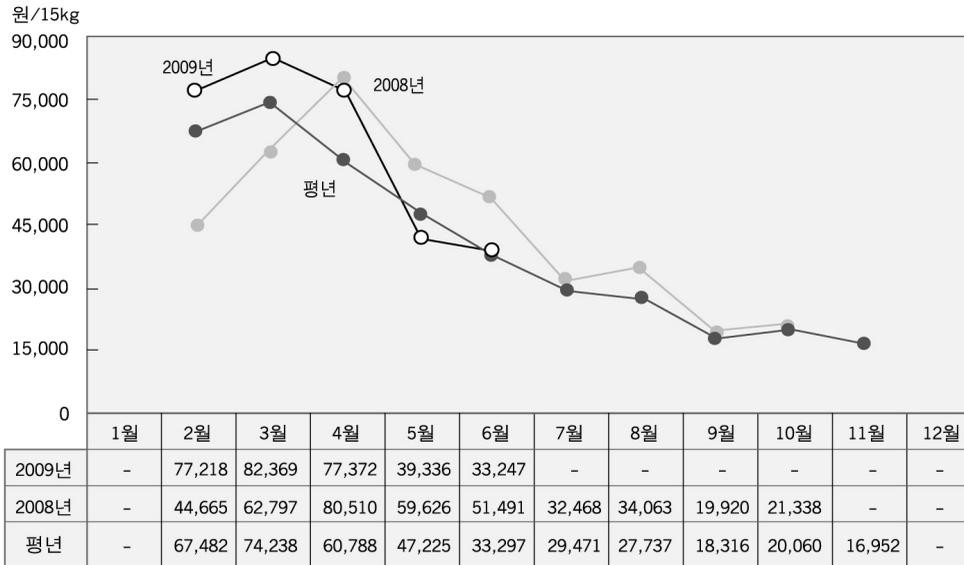
### 4.1. 참외

- 2/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4월은 7만 7,400원으로 작년보다 30% 높았지만 5월은 3만 9,300원으로 24% 낮았고 6월은 3만 3,2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 4월 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비대가 늦어져 5월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4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줄고 5월은 많았지만 6월은 2·3화방 물량공백기에 반입량이 작년보다 적었음.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은미 부연구위원(jeongem@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지현서(kpnu@krei.re.kr), 김종규(jkim@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참외 7월은 주산지 착과 및 과비대 상태가 좋아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참외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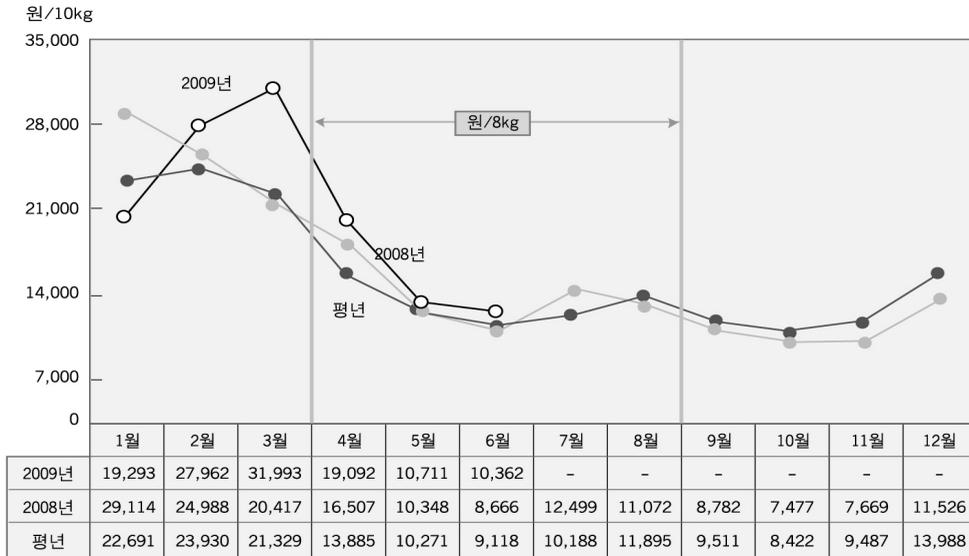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참외 2기작 정식면적은 주산지인 경북에서 연장재배나 휴경하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2. 수박

【수박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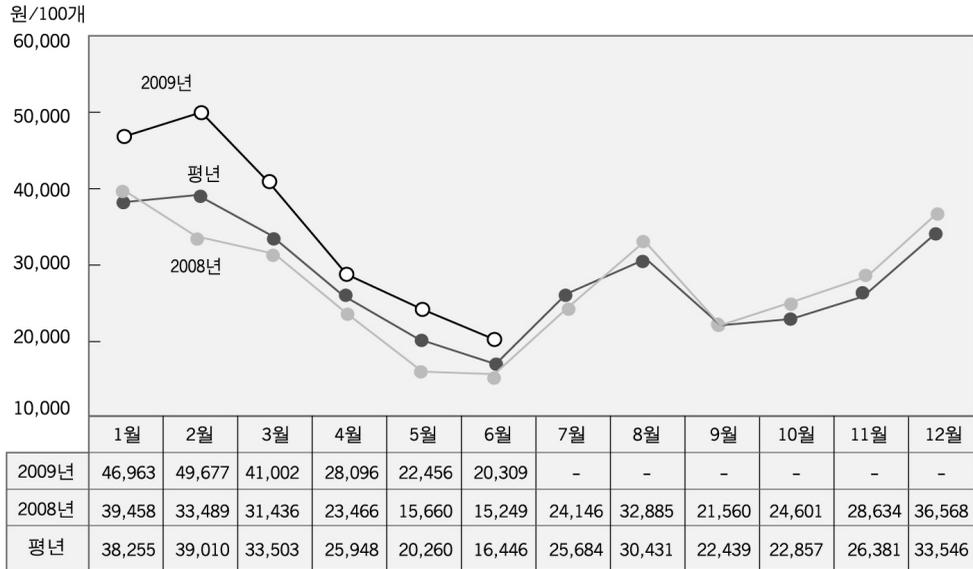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수박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8kg 상자에 4월 1만 9,100원, 5월 1만 700원, 6월 1만 400원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4월은 환율상승 영향으로 과일 수입량이 적었고 반축성 정식이 앞당겨지며 6월 반입량이 줄었음.
- 수박 7월은 충남 부여에서 2기작 정식이 앞당겨지고 충북 진천에서 신규면적 증가 등 출하면적이 늘고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시설수박 6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줄지만 7~8월은 충청의 2·3기작 정식이 앞당겨지고 신규시설이 늘어 각각 3%,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노지 수박 6월 정식은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9% 증가함.

### 4.3. 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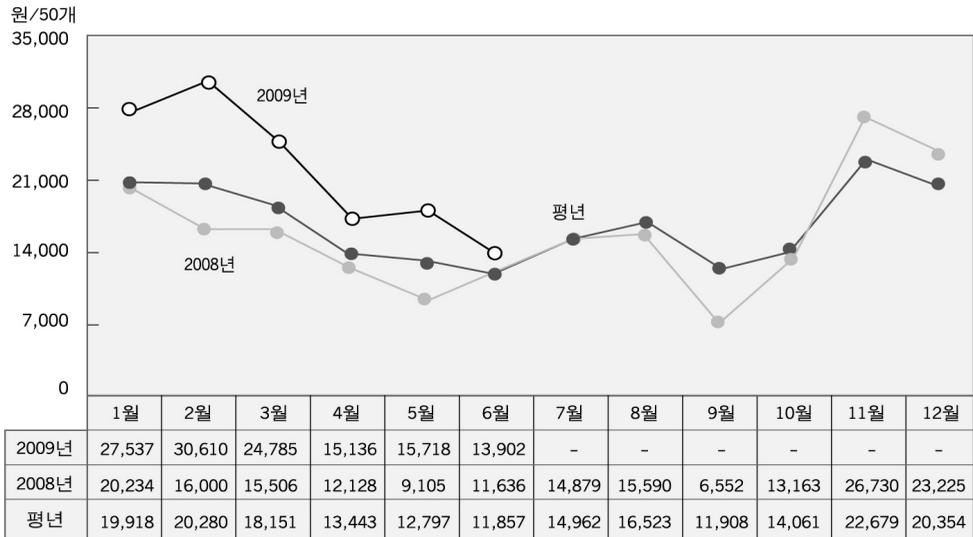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에 4월 2만 8,100원, 5월 2만 2,500원, 6월 2만 300원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주산지인 충남과 강원지역에서 흐린 날이 많았고 주야간 일교차가 커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작황이 부진하거나 출하가 지연되어 반입량이 적었음.
- 취청오이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4월 1만 5,100원, 5월 1만 5,700원, 6월 1만 3,900원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주산지의 작황이 좋지 않아 반입량이 적었기 때문임.
- 백다다기오이 7월 가격은 강원지역의 일사량 부족으로 노균병이 발생하는 등 생육 상황이 저조하지만 대전, 충남 천안, 경북 상주의 일부 농가가 최근 가격이 높아 연장재배 할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 7월 가격은 강원 횡성의 신규시설면적 증가와 충남 연기·천안의 일부 농가는 최근 취청오이 가격이 높아 여름재배를 늘릴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백다다기오이 7월 정식면적은 강원 홍천의 일부 농가가 2기작 면적을 다소 늘리고 충청지역은 지자체 시설지원 사업으로 신규재배가 늘어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8월은 충청, 경기지역의 일부 농가가 최근 백다다기오이 가격이 높아 정식 면적을 늘려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취청오이 7월 정식면적은 강원지역의 일부 농가가 풋고추로 전환해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8월은 최근 취청오이 가격이 높아 충남 천안에서 일부 정식 면적을 늘려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취청오이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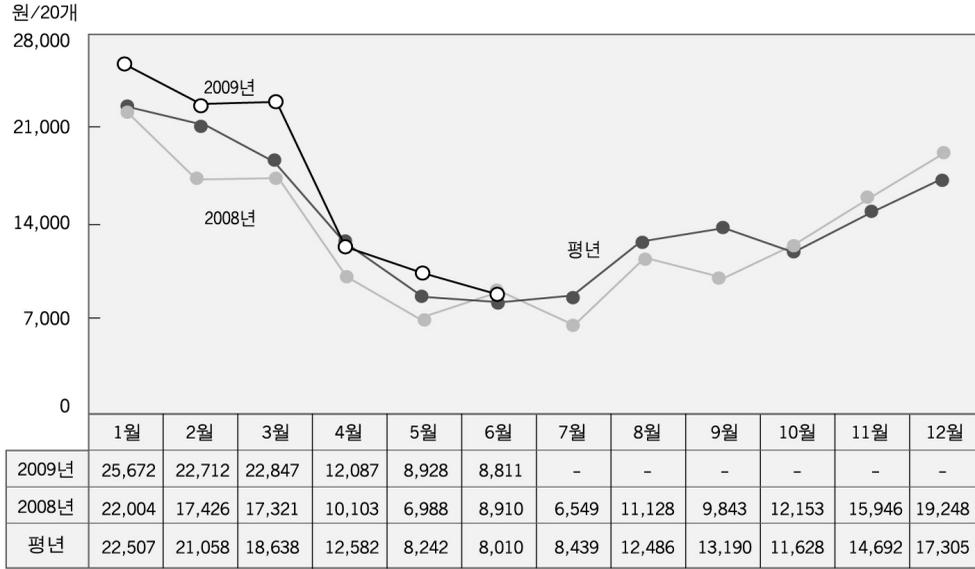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4.4.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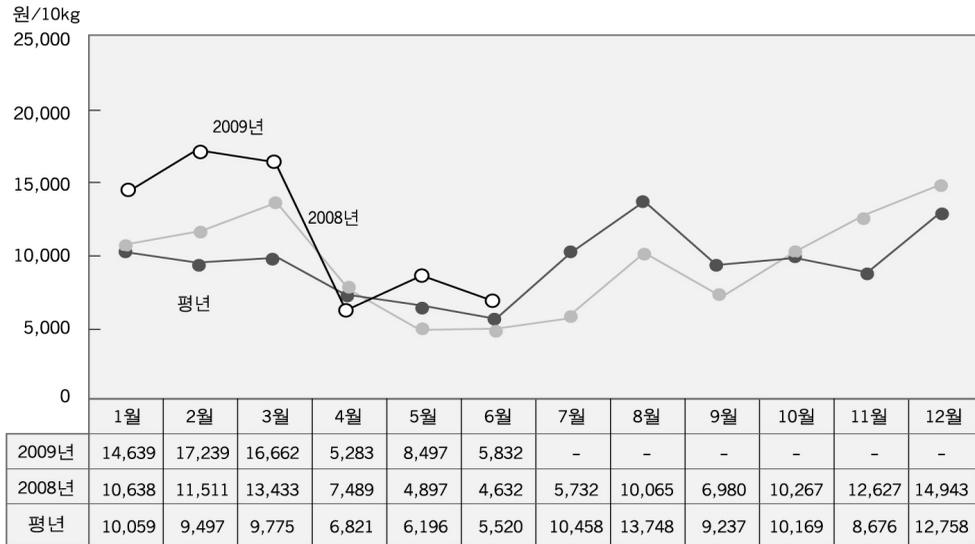
- 애호박 2/4분기 도매가격은 4월 1만 2,100원, 5월 8,900원으로 작년보다 높았지만 6월은 8,800원으로 작년보다 낮았음. 4~5월은 주산지에서 흐린 날이 많았고 큰 일교차로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적었지만 6월은 가격이 높아 영남지역에서 재배를 연장하여 반입량이 많았음.
- 슈키니호박 2/4분기 도매가격은 4월 5,300원, 5월 8,500원 6월 5,800원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 애호박 7월 가격은 최근 애호박 가격이 높아 경기 양주, 충북 음성외의 일부 농가가 연장재배하고 경기 평택, 광주외 일부 슈키니호박, 풋고추에서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출하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슈키니호박 7월 가격은 강원 홍천·횡성의 일부 농가가 슈키니호박에서 풋고추, 인삼, 엽채류 등으로 전환하고 경북 안동은 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상품성 저조로 여름재배가 감소하여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애호박 7월 정식면적은 강원지역의 정식이 앞당겨져 감소하지만 최근 애호박 가격이 높아 충청지역에서 여름재배를 다소 늘려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8월은 충청 청원·음성의 일부 농가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슈키니호박 7~8월 정식면적은 경남 의령, 충남 논산의 일부 농가가 애호박, 멜론으로 전환하여 작년보다 각각 10%,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애호박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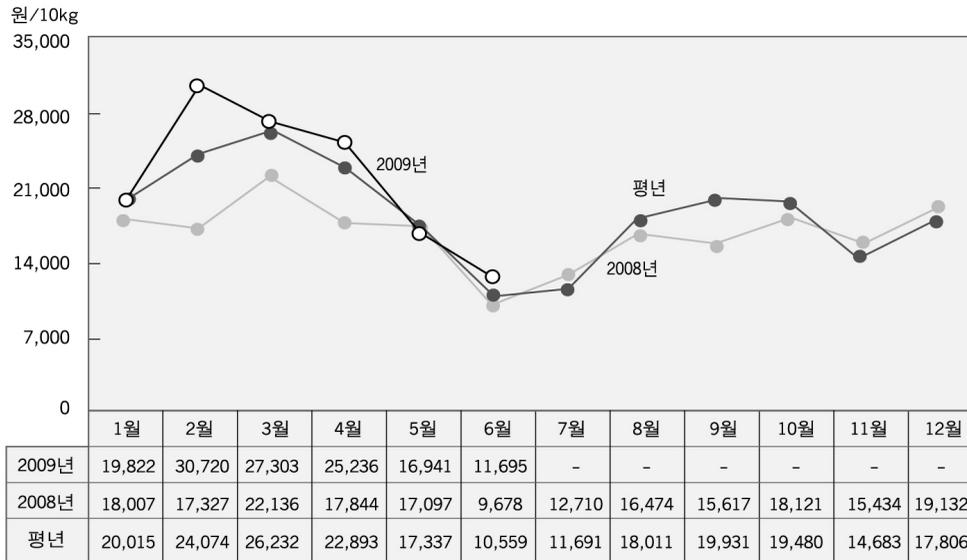
【 쥬키니호박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4.5. 일반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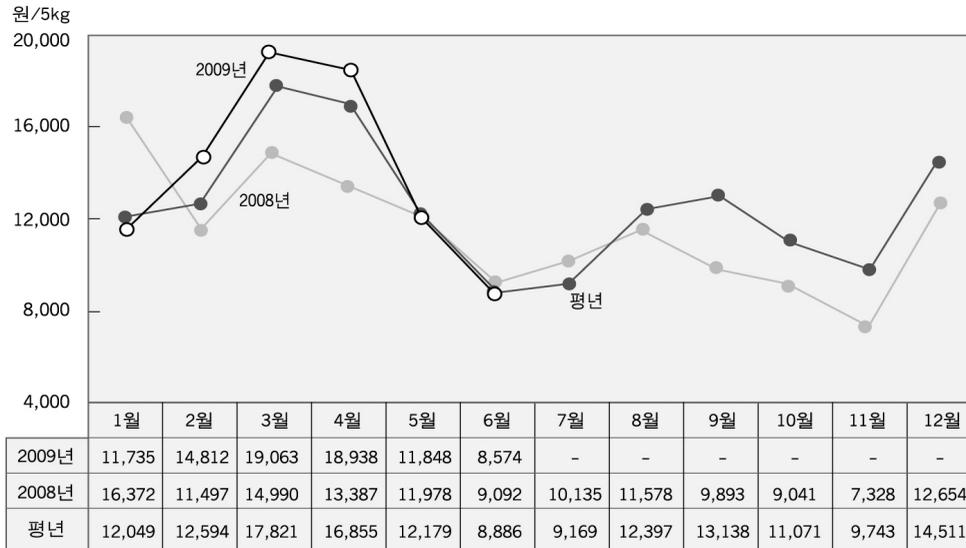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2만 5,200원, 5월 1만 6,900원, 6월 1만 1,700원으로 4월, 6월은 작년보다 각각 41%, 21% 높았음.
- 4월은 환율상승 영향으로 과일수입량이 감소하였고 6월은 제철과일 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토마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토마토 7월은 강원지역에서 신규 시설면적이 증가하고 경기지역은 6월 상순 야간기온이 낮아 숙기 및 출하 지연으로 출하면적이 늘고 출하량이 많을 것을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7~8월 일반토마토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경남 밀양·사천에서 가격상승 기대로 정식을 늘리고 경북 봉화는 수박 후작으로 토마토 정식이 늘며 전남 장성은 겨울재배를 피하기 위해 앞당긴 것으로 나타남.

## 4.6. 방울토마토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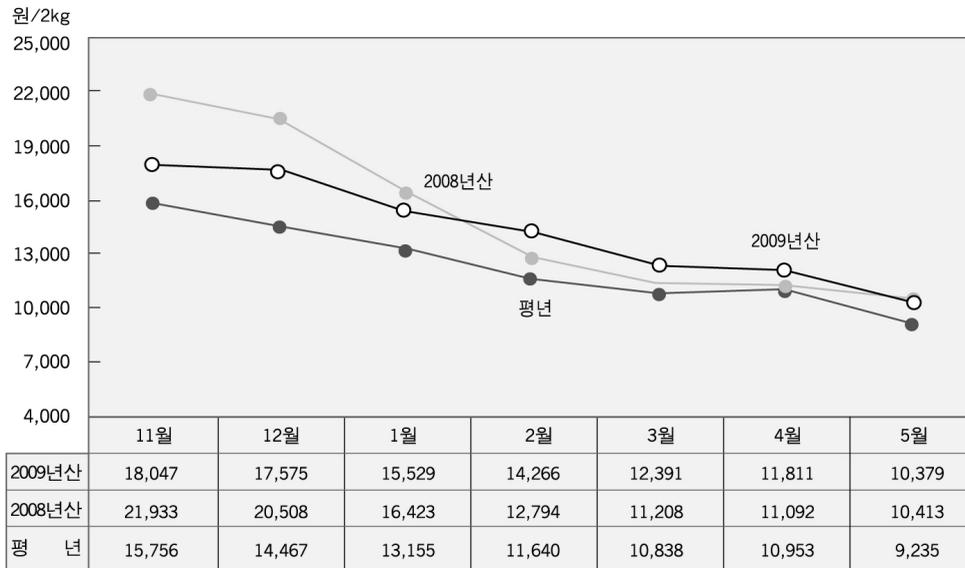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4월 1만 8,900원으로 작년보다 42% 높았지만 5월은 1만 1,800원, 6월은 8,6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았음.
- 4월은 고유가 영향으로 정식시기가 늦어져 출하량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임. 5월은 반입량이 줄었지만 수박, 참외 등 대체과일 출하가 증가하고 6월은 충남지역 출하 마무리로 인한 품질저하로 가격이 낮았음.
- 방울토마토 7월은 충남 보령에서 고유가로 정식시기가 늦춰져 출하면적이 늘고 충남 부여는 일부 농가에서 연장재배 할 것으로 나타나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방울토마토 7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고 8월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전남지역에서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조기정식이 늘고 충남 보령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나타남.

## 4.7. 딸기

【 딸기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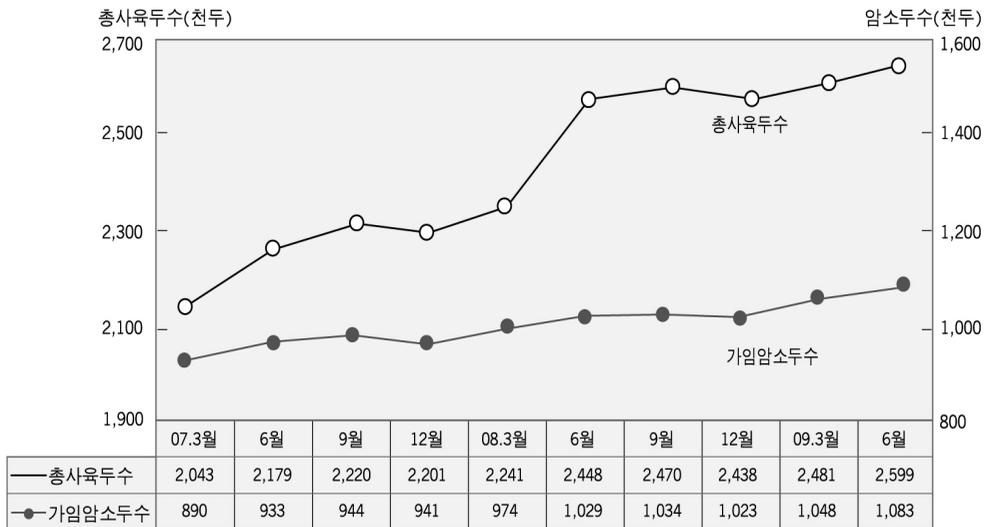
- 2/4분기 딸기 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에 4월 1만 1,800원, 5월 1만 400원으로 작년보다 4월은 7% 높았고 5월은 비슷하였음.
- 4월은 병해충 발생 등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줄었고 5월은 설향 등 특성작형 국산 품종의 보급 확대로 수확을 조기종료하여 반입량이 줄었지만 다소 품질이 좋지 않았음.
- 2009년산 딸기 재배면적은 영남과 전북지역에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하거나 재배규모를 줄인 농가가 많아 감소함.
- 2009년산 딸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경남지역에서 고설재배 보급으로 단수가 증가하였지만 충남, 경북, 호남지역은 겨울철 일조량 부족과 병충해가 발생하여 단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5. 축산<sup>9)</sup>

### 5.1. 한육우

- '09년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59만 9천 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만 1천 두 (6.2%) 증가하였으며, 9월 사육두수는 261만 2천두(5.8% 증가)로 전망됨.
- 가임암소 108만 3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4천두(5.2%) 증가하였으나, 사육가구 수는 17만 7천호로 전년 동기보다 1만 3천호(6.8%) 감소함.

【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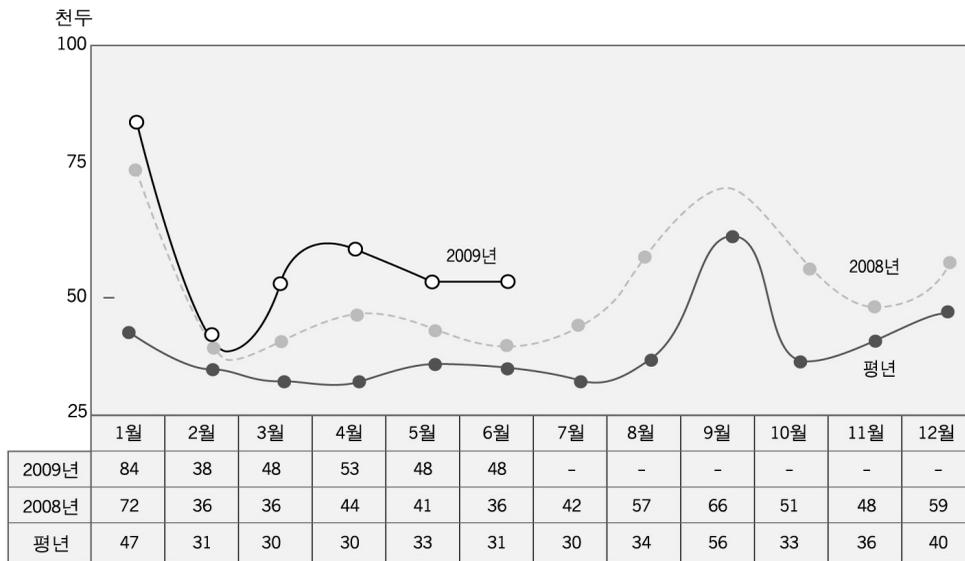
주: 20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과 09년 3월 통계조사방법 변경으로 증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09년 1~6월 한우 등급관정두수는 31만 8천두(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임. 그 중 한우 암소는 전년대비 23.3% 증가한 14만 3천두, 수소는 28.9% 증가한 6만 1천 두, 거세우는 11.7% 증가한 11만 3천 두임.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이정민 연구원(fantom99@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거세우 도축보다 비거세 수소의 도축 증가율이 큰 이유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사육환경에 불안감을 느낀 한우 농가들이 비거세 단기(12~15개월) 비육 위주로 사육된 물량이 현재 출하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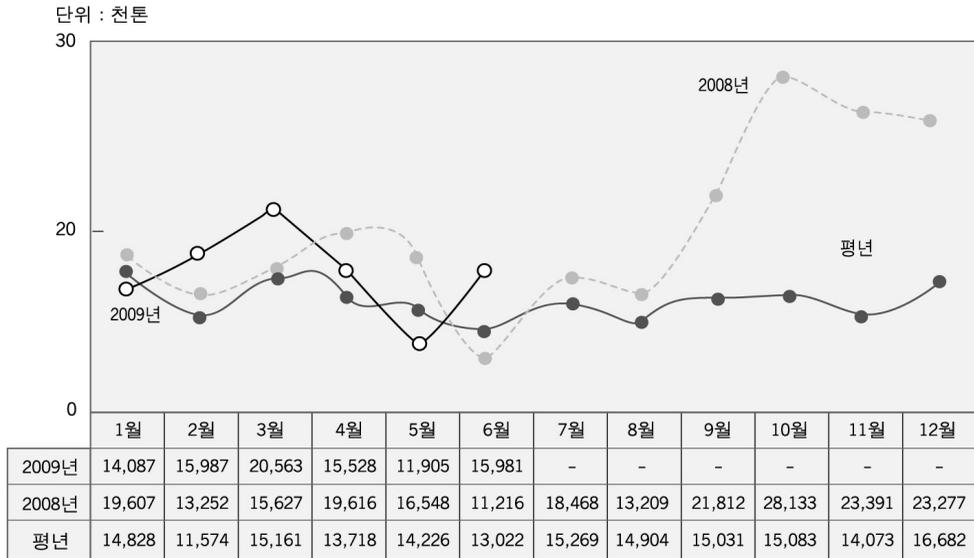
【 한우 월별 등급판정두수 현황 】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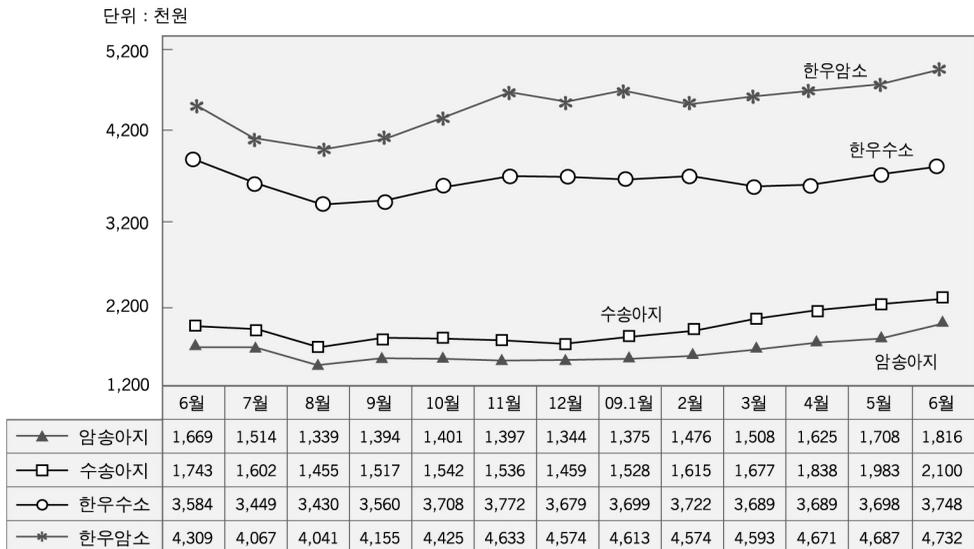
- '09년 1~6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한 9만 4천 톤이었음. 이 중 미국산이 2만 5천톤(26.8%), 호주산이 5만 1천톤(54.5%), 뉴질랜드산이 1만 7천톤(18.1%), 기타 5백톤(0.6%)임.
- '09년 6월 한우(600kg) 산지가격은 수소 375만원(전년 동월대비 4.6% 상승), 암소 473만원(9.8% 상승), 수송아지 210만원(20.5% 상승), 암송아지 182만원(8.8% 상승)이었음.

【 쇠고기 월별 수입 현황(검역기준) 】



자료: 관세청

【 한육우 산지 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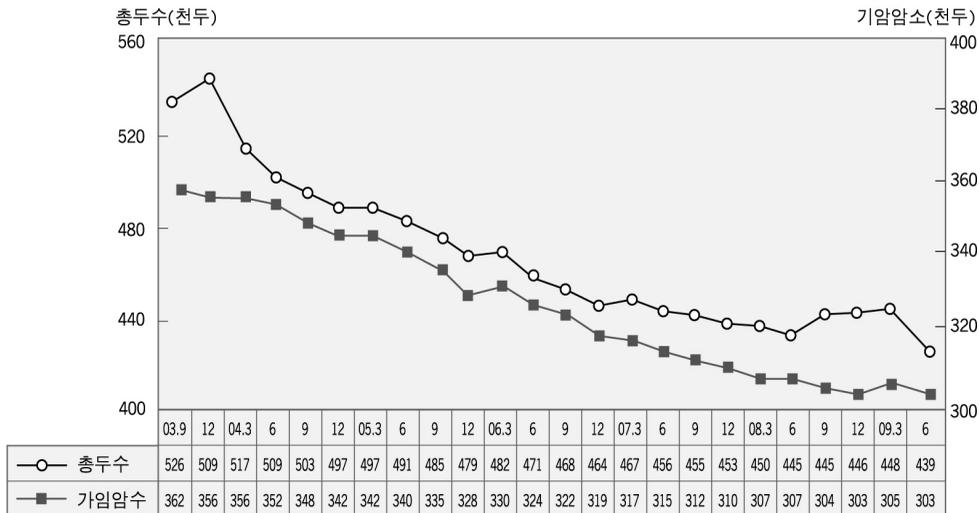
주: 한우 수소 및 암소는 600kg 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5.2. 젓소

- '09년 6월 젓소 사육두수는 저능력우 도태와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송아지 생산 감소 등으로 전분기보다 9천두(△2.0%), 전년 동기보다 6천두(△1.3%) 감소한 43만 9천 두였음. 가임암소 두수는 30만 3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4천두(△1.3%) 감소하였음.
- '09년 6월의 1세 미만 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천두(△2.3%) 감소한 8만 5천두였음. 1~2세 두수는 10만 4천두로 전분기보다 1천두(△1.0%)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기보다 1천두(1.0%) 증가하였음. 2세 이상 두수는 전분기보다 2천두(△0.8%), 전년 동기보다 4천두(△1.6%) 감소하였음.
- '09년 6월 젓소 사육호수는 6천 9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3백호(△4.2%) 감소하였음. 50두 미만은 2천 6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4백호(△13.3%) 감소하였고 50두 이상은 4천 3백호로 1백호(△2.3%) 감소하였음.

【 젓소 사육두수 동향 】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개편과 09년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으로 3월 조사 결과와 이전 결과 사이에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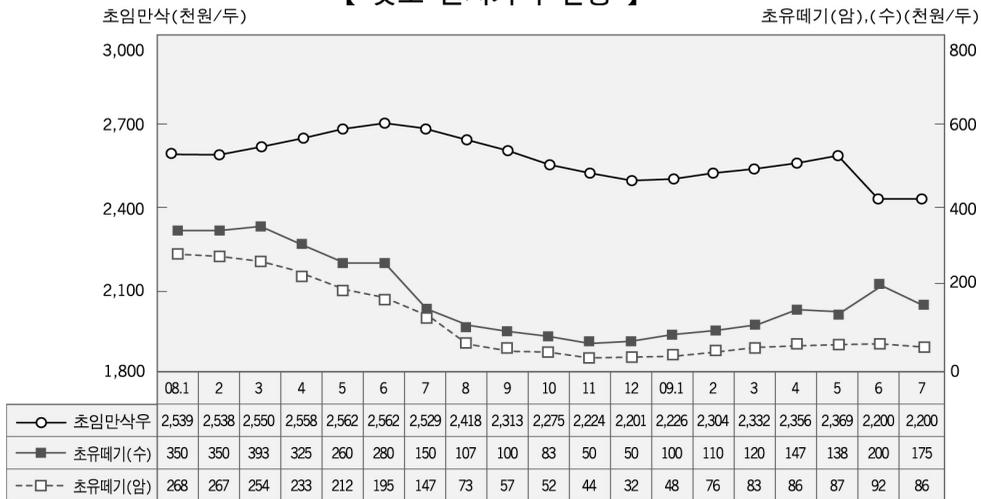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 '09년 6월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4천두 감소(△ 13.9%)하였지만, 50두 이상은 9천두(2.6%) 증가한 35만 3천두였으며, 특히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2천두(11.5%)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08년 6월 61.7두에서 '09년 6월 63.9두로 2.2두(3.6%) 증가하였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09년 4~6월 초유떼기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8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5% 낮았지만 전분기보다는 28.3% 상승하였음. 7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8만 6천원으로 다소 하락하였음.
- 초유떼기(수송아지): '09년 4~6월 초유떼기 수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16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낮았지만 전분기보다는 47.0% 상승하였음, 7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16만 2천원으로 다소 하락하였음.
- 초임만삭우: '09년 4~6월 초임만삭우 평균 산지가격은 231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9% 하락하였지만 전분기보다는 0.9% 상승하였음. 7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22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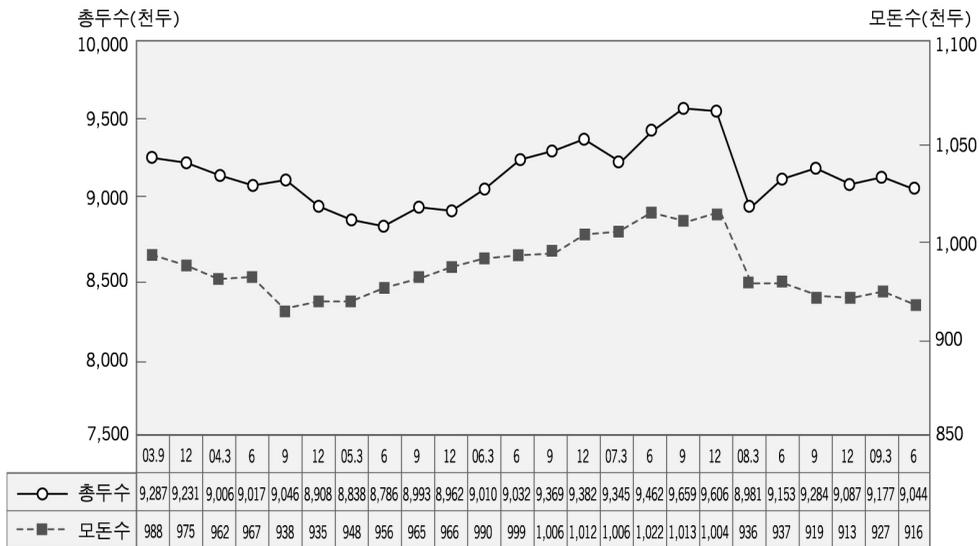
주: 7월 산지가격은 20일까지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5.3. 돼지

- '09년 6월 돼지 사육두수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사육심리가 위축되어 전년 동기보다 10만 9천두(△1.2%) 감소한 904만 4천두로 조사됨. 모돈수는 91만 6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하였으나 4~8개월 사이의 사육두수는 9만 8천두(4.1%) 증가하였음.
- '09년 6월 사육 농가 수는 전년 동기보다 3.8% 감소한 7천 7백호임. 1천두 미만 사육 농가 수는 전년 동기보다 2백호(△4.0%) 감소한 4천 8백호였으며, 1천두 이상은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한 2천 9백호였음.
- '09년 6월 1천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한 134만 8천두였음. 1천~5천두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524만 두로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하였지만 5천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245만두로 6.9%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1,177두로 전년 동기보다 38두(3.3%) 증가하였음.

【 돼지 사육두수 동향 】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결과 사이에 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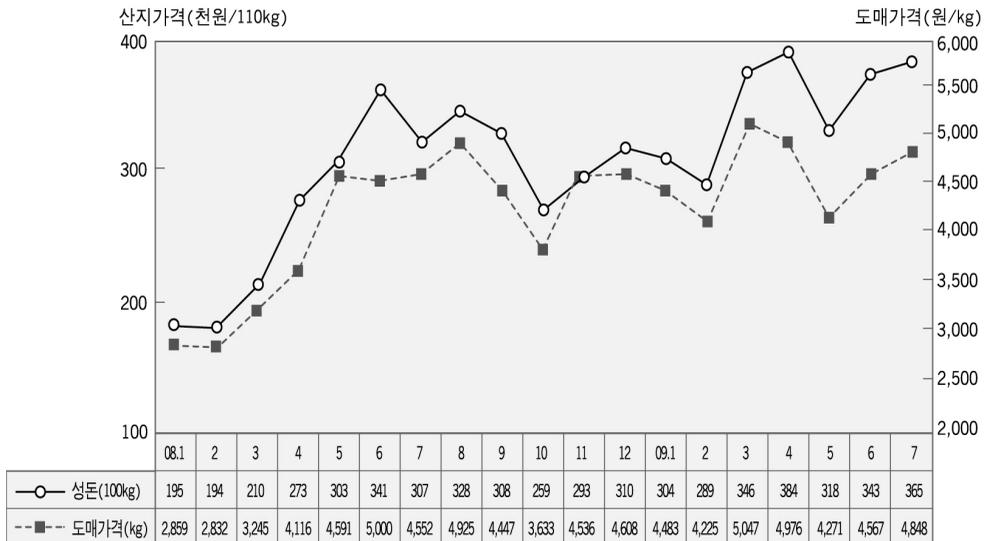
● 돼지 가격 변동

- 산지가격(110kg) :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급등하였던 돼지 성돈가격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충격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임. '09년 4~6월 가격은 성돈 110kg 기준 34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9% 높은 수준이며, 7월 20일까지 가격은 성돈 110kg 기준 36만 5천원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도매가격: '09년 4~6월 전국 공판장 평균 지육가격은 1kg당 4,605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8% 높은 수준이며, 7월 20일까지 가격은 4,848원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돼지 도축두수 및 돼지고기 수입

- '09년 4~6월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330만 두였음. '09년 4~6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가격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증가한 6만 9천 톤이었음.

【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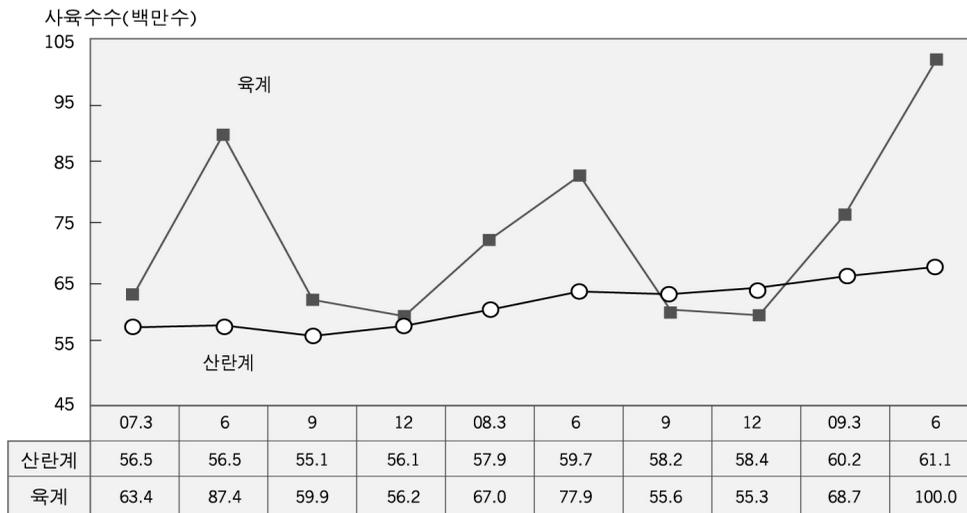


주: 7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20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5.4. 닭

- 노계 도태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가 더 크게 증가하여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6,114만수로 3개월 전보다 1.5%, 전년보다 2.4% 증가
- 병아리 가격 강세로 종계 도태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병아리 생산수수가 증가하여 6월 사육수수는 2008년보다 증가하였음.
  - 6월 육계 사육수수는 9,998만수로 3개월 전보다 45.5%, 전년보다는 28.4% 증가

【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



주: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으로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2009년 1분기에는 계란 생산량 증가로 계란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여야 하나 산지가격에 사료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1분기 계란 전국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4.6% 상승한 1,183원(특란 10개)이었음.
  - 대형 유통업체의 대규모 할인행사, 계란 유통 상인의 재고 감소 등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예상보다 상승하였음. 2분기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19.4% 상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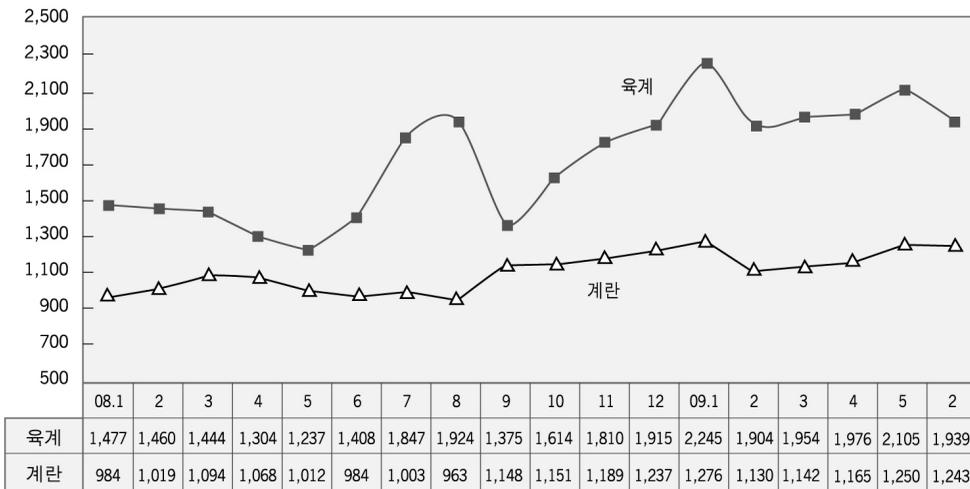
1,219원으로 나타남. 계란 비수기에 접어든 7월에는 계란 가격이 하락하여 1,1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종계 생산성 저하로 국내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고환율로 인해 수입량도 감소하였음. 계열업체 냉동 비축량마저 감소함에 따라 2009년 1분기에는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육계 전국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는 39.3% 상승한 2,034원(생체kg)이었음.
- 2분기에는 도계수수가 증가한 반면 닭고기 수입량이 감소하고 계열업체의 냉동 비축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2분기 육계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2.4% 상승한 2,007원으로 나타남.
- 7월 초에는 장마로 닭고기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최근 소비가 증가하면서 7월 육계 생체 kg당 가격은 예상치와 비슷한 2,2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7월 22일 현재 2,261원, 농협 발표가격).

【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

산지가격(원/10개, 원/생체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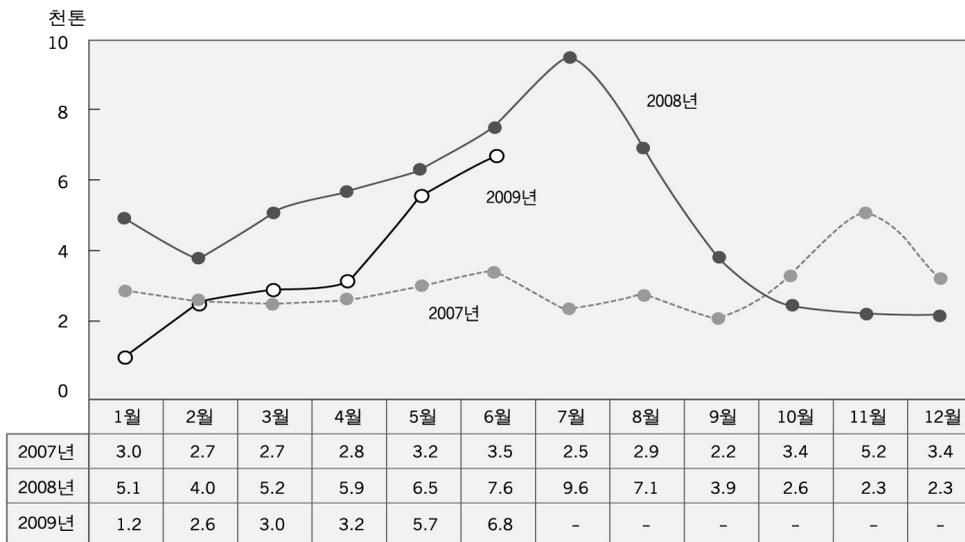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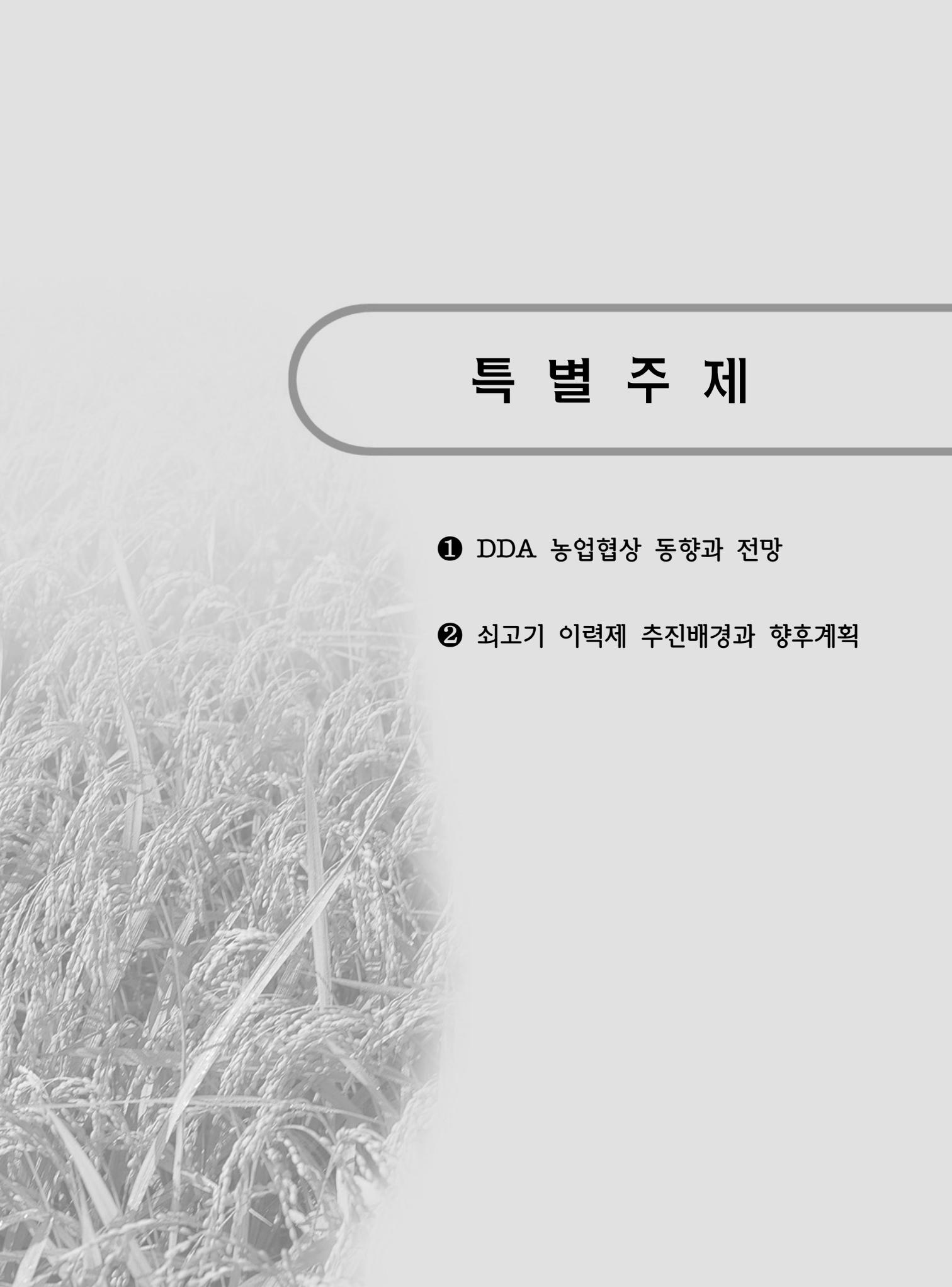
- **중계 병아리 입식수수**
  - 2009년 2분기 산란 중계 입식수수는 18만 수로 전년 동기(18만 6천수)보다 3.2% 감소하였음. 2분기에 입식된 육용 중계 병아리수는 132만수로 전년보다 2.3%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검역기준)**
  - 2008년 말 이후 환율 급상승과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1~3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크게(52.5%) 감소한 6천 7백 톤임. 4~6월 수입량 또한 전년보다 21.7% 감소한 1만 6천 톤이었음.

【 닭고기 월별 수입 현황(검역기준) 】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특별 주제

- ①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 ② 쇠고기 이력제 추진배경과 향후계획



【특별 주제 1】

##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송주호\*

### 1. DDA 농업협상의 추진동향

#### 1.1. 2008년까지의 협상 추진 경과

-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 DDA협상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농업과 비농산물분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으로서 현재 이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DDA농업분야 협상은 출범당시 2005년까지 종결할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까지도 종결되지 못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진행되어 왔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03년 2월 농업협상그룹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jhsong@krei.re.kr).

- 2003년 8월 멕시코 칸쿤 5차 WTO 각료회의 결렬
  - 2004년 8월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 2005년 12월 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타결 시한 연장
  - 2006년 7월 라미총장의 협상 일시중단 선언
  - 2006년 11월 라미총장의 협상 재개 선언
  - 2007년 7월 농업협상그룹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초안제시
  - 2008년 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1차 수정안 제시
  - 2008년 5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제시
  - 2008년 7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3차 수정안 제시
  -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
  - 2008년 12월 팔코너의장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 2008년 12월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하려다 무산
- 하지만 2008년은 4차례에 걸친 모델리티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쟁점 사항이 크게 압축되어 실질적인 진전이 많이 이루어진 해였다. 특히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는 잠정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렬되었다.
  - 현재 농업분야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개도국에게 적용되는 긴급수입관세제도(SSM)의 발동조건과 기간, 면화보조금 감축문제, 민감품목에서의 TRQ 신설 여부,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적용조건 등이다.
  -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국 20개국 정상회담에서는 2008년 말까지 모델리티를 타결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파스칼 라미 WTO총장은 2008년 12월에 모델리티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잔여 쟁점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이 입장변화가 없자 각료회의 개최를 연기하였다.

## 1.2. 2009년 상반기의 협상 추진경과

- 세계적 경기 침체속에서 각국이 자기나라의 경제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2009년 상반기에는 DDA 협상은 별 진전이 없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9년 1월 말에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DDA협상에 관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아 협상일정 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몇 달을 허비하였다. 3월에 미국의 통상장관(USTR)으로 론 커크(Ron Kirk)가 임명되었고, 인도는 5월 총선이 끝나고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를 새로운 통상장관으로 임명하였다.
- 4월 22일 주제네바 주재 뉴질랜드 대사인 데이비드 월커(David Walker)가 새로운 농업협상그룹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서 주제네바 뉴질랜드대사들은 팀 그로서(Tim Groser: 2003-2005), 크러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2005-2009)에 이어 3번째로 농업협상그룹의장을 맡게 되었다.
- 2009년 4월 30일에는 현 파스칼 라미 WTO총장(2005. 9- 2009. 8)이 임기 4년의 WTO 사무총장으로 재선되도록 결정되었다. 파스칼 라미 총장은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10월까지 각 협상그룹의장에게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진전이 거의 없었음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많다.
- 파스칼 라미 총장은 5월 일반이사회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모델리티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협상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각국이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품목으로 선정할지 미리 지정하고 이에 대해 양자협상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한다면 일종의 outcome test(결과 점검)를 통해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더 분명해져서 협상타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도, 중국,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모델리티 협상이 먼저 완료된 뒤에 각국이 이에 맞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DDA협상 출범 당시의 방침(mandate) 이었다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 6월 파리에에서의 OECD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모델리티 협상과 병행하여 이행 계획서 작성을 적극 주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 등이 동조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은 반대하며 오직 다자 협상을 통한 모델리티 협상 종료후의 양자협상을 주장하였다.
-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 6월 8-9일에 케언즈 그룹 모임, 6월 OECD통상장관 회담, 7월초 G8+ 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배척해야 하며 DDA협상의 조속한 종결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각국의 경제회복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어 실제로 2009년도에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 7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는 잔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가 열리는 등 아직 이행계획서 작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2. 농업분야 모델리티의 주요내용<sup>2)</sup>

### 2.1. 시장접근분야의 주요 내용

- 관세 감축률 공식을 확정하였는데 관세율에 따라 구간을 4단계로 나누어 관세가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게 하였다. 개도국은 구간경계별 관세수준도 높게 책정되었고, 감축률도 선진국 감축률의 2/3를 적용하였다.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10년이다

---

2) 여기서는 2008. 12월의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DDA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이 내용들이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별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 구간별 관세 감축률 공식 】

| 선진국 (5년)  |        | 개도국(10년)  |        |
|-----------|--------|-----------|--------|
| 관세구간      | 감축률(%) | 관세구간      | 감축률(%) |
| 20% 이하    | 50     | 30% 이하    | 33.3   |
| 20 초과~50% | 57     | 30초과~80%  | 38.0   |
| 50 초과~75% | 64     | 80초과~130% | 42.7   |
| 75% 초과    | 70     | 130% 초과   | 46.7   |

-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에 일부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 감축을 낮출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였다. 일정 한도 범위내에서는 품목별로 TRQ를 추가로 증량하는 조건하에 관세 감축률을 낮게 적용할 수 있는 민감품목이란 옵션을 인정하였다.
  - 예컨대, 선진국의 경우 TRQ를 소비량의 3%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관세를 공식보다 1/3 만큼 덜 감축(1/3 Deviation)할 수 있으며, TRQ를 4%만큼 설정하면 관세를 2/3만큼 덜 감축(2/3 Deviation)할 수 있다.
  - 개도국의 경우에는 TRQ 설정물량이 선진국의 2/3수준이며, 별도로 TRQ를 설정하지 않는 융통성을 인정하였다. 즉, 관세를 1/2만큼 감축하되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한다거나, 혹은 관세를 공식대로 감축하되 이행기간을 길게 하는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 수는 전체 세번 수 대비 선진국은 4%, 개도국은 5.3%까지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에 관련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품목은 관세감축 공식적용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전체 세번 수의 최대 12%까지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평균 감축률을 11%로 맞추면 전체 세번 수의 최대 5%까지는 관세 감축을 면제할 수도 있다.
- 한편, 관세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관세상한 원칙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대신 민감품목의 경우 고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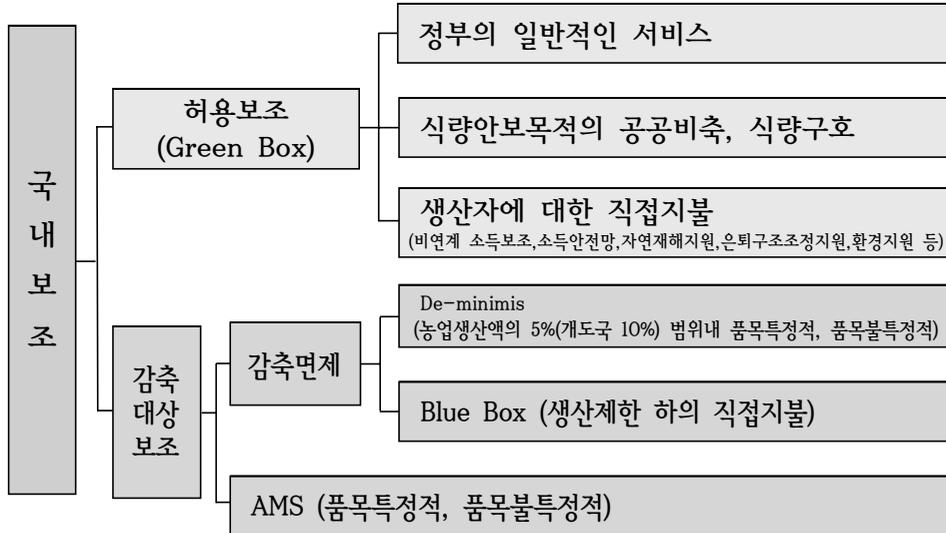
품목(선진국 100%, 개도국 150%)에 대해서는 TRQ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부담을 가하고 있다.

- UR 협상에서 인정된 특별긴급관세(SSG) 제도는 DDA 협상에서는 대폭 축소되었다.
  -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 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해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하여 7년내 완전 철폐하도록 하였다.
  - 개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해에 전체 세번의 2.5%로 감축토록 하였다.
- 현행 복잡한 관세구조를 종가세로 단순화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전체 세번을 단순종가세로 전환하는 안과 최소한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하자는 안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 TRQ 관리방안은 쿼터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쿼터 미소진이 일정 수준이하로 지속될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 2년간 유지하는 등의 미소진 메커니즘을 신설하였다.

## 2.2. 국내보조 분야의 주요 내용

- DDA에서는 기본적으로 UR 농업협정의 보조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보조금은 허용보조금, 감축약속에서 면제되는 보조금(de-minimis, 블루박스), 감축해야 하는 보조금(AMS)으로 구분된다.

## 【 WTO에서의 국내보조의 종류 】



- DDA협상에서는 감축대상 보조금(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금 등 개별 보조금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조금을 전부 합한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bsidy: OTDS)도 감축하도록 하였는데, 2008년도의 4차 수정안에는 각 보조금의 감축률을 단일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8년으로 하였다.
- 감축대상보조금(Aggregate Measurement Subsidy: AMS)의 경우 UR최종이행연도의 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EU는 70%, 미국과 일본은 60%, 기타 선진국들은 45%를 감축하여야 하고, 개도국들은 30%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DM)는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해당 품목 생산액의 5%, 혹은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이상 감축토록 하되 이행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혹은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이상 감축토록 하고 있다.

- 블루박스는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도입하였고, 블루박스 한도는 선진국의 경우 '95~'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설정하였다.
  - 아울러 품목별로 UR 이행기간 통보한 블루박스 사용 평균실적을 품목별 블루박스의 한도로 설정하였다. 다만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는 품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하였다.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은 선진국의 경우 총액의 규모에 따라 감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80%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국과 일본은 70%, 그 밖의 국가는 55%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은 36.7%를 감축하여야 한다.
- DDA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보조금 형태별로 감축해야 할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도국일 경우만 명시하였다.

【 국내보조 지급한도 감축수준(개도국 기준) 】

단위: 억 원

| 구분       | 개도국 기준 적용시                   |  |                    | 이행말 수준                |
|----------|------------------------------|--|--------------------|-----------------------|
|          | 감축기준                         |  | 감축수준               |                       |
| 총 AMS    | 14,900                       | 14,900                                     | 30% 감축             | 10,430                |
| 품목특정 DM  | 당해연도 품목별생산액의 10%             | 32,305 <sup>1)</sup><br>( '95~'04 평균 생산액 ) | 33.3% 감축           | 생산액의 6.7%<br>(21,537) |
| 품목불특정 DM | 당해연도 농업총생산액의 10%             | 32,305<br>( '95~'04 평균 생산액 )               | 33.3% 감축           | 생산액의 6.7%<br>(21,537) |
| 블루박스     | '95~'04 평균 생산액의 5%           | 16,152                                     | '95~'04 평균 생산액의 5% | 16,152                |
| OTDS     | AMS, De-minimis, Blue box 합계 | 95,662<br>(기준기간: '95~'04)                  | 개별보조금 한도 합계        | 69,656                |
|          |                              |  | 36.7% 감축           | 60,554                |

주 1)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의 생산액과 해조류 생산액도 포함된 금액임.

### 2.3. 수출 경쟁 분야의 주요 내용

- 수출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2013년 말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해야 하며, 개도국은 2016년까지 철폐하되 마케팅 비용,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철폐시한 후 5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식량원조는 완전 무상공여로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재수출을 금지하게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은 최대상환기간을 180일로 제한하고 있다.

### 3. 잔여 협상쟁점과 평가

- 2008년 11월말까지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들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발동조건, 일부 국가의 민감품목의 개수, TRQ 신설문제, 면화보조금 감축 문제, 열대작물에 대한 대우, 특혜잠식에 대한 조건 등이 있다. 이중 SSM, 민감품목 개수, TRQ 신설문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4차 수정안에 제시되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로 제시되었다.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는 수입이 과거실적의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로서 DDA 협상에서 개도국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구제조치 이후 UR양허관세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발동조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 수출국들은 SSM 조치로 인한 관세가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무역 증가 추이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G33 등 수입개도국 그룹은 발동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8년 12월 농업협상그룹의장이 별도의 문서로 제시한 절충안에는 수입량이 최근 3년 평균의 120% 초과, 140%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인상할 수 있는 관세의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입급증시에도 국내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SSM 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그 외 일본, 캐나다 등이 민감품목의 개수를 현행 4%에서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TRQ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의 보상 방안, 열대작물 리스트 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 농업부문의 협상에서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으로 볼 때 개도국의 경우 특별 품목과 민감품목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SSM 조치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도 갖추고 있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되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개도국지위 유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제규모 등 여건을 볼 때 개도국지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 전략 마련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4. DDA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책

- 2008년 12월에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세부원칙을 타결하려던 WTO 라미총장의 희망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DDA가 위기에 빠지거나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큰 손상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2009년도의 협상은 4차 세부원칙 수정안을 토대로 쟁점별 협의가 진행될 것이지만 라미 WTO총장과 데이비드 워커 농업협상그룹의장, 그리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EU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델리티 협상과 이행계획서 작성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행계획서 작성을 병행 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최근까지의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SSM 등 각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내용이 너무 많아 DDA 협상에서 각국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 만큼의 시장개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R/O (Request and Offer) 방식의 양자협상을 모델리티 협상과 병행하면 모델리

티 협상의 교착상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이행계획서 병행 작성은 DDA 협상 시작당시의 mandate(협상 기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럴 경우 융통성이 제약되고 주요국들의 개별적인 압력이 심해져서 개도국들에게 불리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2009년 11월 30일~12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제7차 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WTO각료회의는 보통 2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5년에 홍콩에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정례각료회의는 그동안 열리지 않았는데, 이는 각료회의가 DDA협상위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DDA협상 진전여부와 상관없이 정례회의로써 개최될 예정이며, 다자통상체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과 과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료회의 개최 전에 DDA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DDA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 2009년도에 계속될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로 볼 때 세부원칙의 일부 잔여쟁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번 농업협상이 개도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차후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쟁점별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수입국그룹(G10)과 개도국그룹(G33)과의 공조를 강화하되, 실익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모델리티 협상과 이행계획서 작성의 병행 가능성을 대비해서 주요국들과의 양자협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한편, 국내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농업인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과 수시로 협상 동향 설명회와 토론회 등 기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세부원칙 내용이 거의 확정되었으므로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며 품목별로 이해관계를 가진 농업인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어떤 품목을 특별품목 혹은 민감품목으로 선정할지, 특별품목에서도 관세 감축률을 어떻게 배분할 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내보조의 경우 감축대상보조(AMS)를 추가로 감축(개도국은 30%)해야 하고 블루박스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DDA하에서 국내 보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DDA나 FTA 같은 협상은 필요하겠지만 무역 자유화로 인해 손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협상에서는 최대한 우리 농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불가피하게 개방이 확대되는 부문에는 피해액을 감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특별 주제 2】

## 쇠고기 이력제 추진배경과 향후계획

정진형\*

## 1. 추진배경

-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BSE(소 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은 소비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가축질병인 BSE는 변이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육의 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BSE는 단순히 가축위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공중위생의 문제가 되었다.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기는 경제적 피해액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의 추계에 의하면 축산물생산액의 2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자료가 말하듯이 가축전염병 발생은 국가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복합요인으로 인해 농업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 시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경쟁력 제고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각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확실한 지표 제공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소 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쇠고기 이력제도의 도입이다.

\*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관리팀장(jjh7287@hanmail.net).

-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 유통에 있어서는 도축장에서 판매장까지의 하류 유통 분야(Tracking)와 소비자에서 농가까지 추적되는 상류부분(Tracing)을 향한 추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EU, 일본, 미국 및 호주 등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광우병(BSE)과 같은 질병의 효율적 추적관리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의한 구매력 증진에 의한 마케팅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력제는 질병에 감염된 소로부터 생산되는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비상시 효과적인 회수(Recall)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이동 경로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쇠고기 구매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WTO에서는 쇠고기 국제교역에 있어서 이력제는 부당한 무역장벽이 아닌 과학적으로 수행되는 위해요인의 평가와 방지 수단으로써 수입국의 경우 자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동등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이력제도가 확립되었을 때의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위험관리의 수단으로 제품의 결함원인을 프로세스를 거슬러 탐색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목표로 정한 제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적이나 소급이 가능하며, 생산, 도축, 가공, 판매에 관련하는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쇠고기 제품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 확보수단으로서 이동경로의 투명성과 표시의 신뢰성을 돕는다. 표시의 신뢰성을 돕는 역할은 원산지나 소의 종류(품종)에 의해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허위표시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한우 등에 크게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고 원산지는 물론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많은 마츠자카우(松阪牛) 등 산지브랜드에서 표시를 보호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이력제가 도입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쇠고기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가격차가 커서 표시의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산쇠고기표시나 품종표시 등에 이력제가 도입되었다. 셋째, 사업자의 품질관리, 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SCM)에 이력제를 결합하면 관리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된다. 이는 이력제를 통해 제품을 식별 번호로 관리하는 방식이 고안되면 제품과 그 관리정보를 대응시켜 정확히 기록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고관리에 대해서는 언제 입하되어 어떠한 쇠고기가 창고의 어디에 있는지 등의 재고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

요한 재고를 보유하는 일이 없어져 거래처주문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위별 등급별 재고물량 등도 쉽게 파악되어, 주문처에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물량회계를 도입하면 제품의 사용가능비율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품의 사용가능한 비율의 개선을 통해서도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 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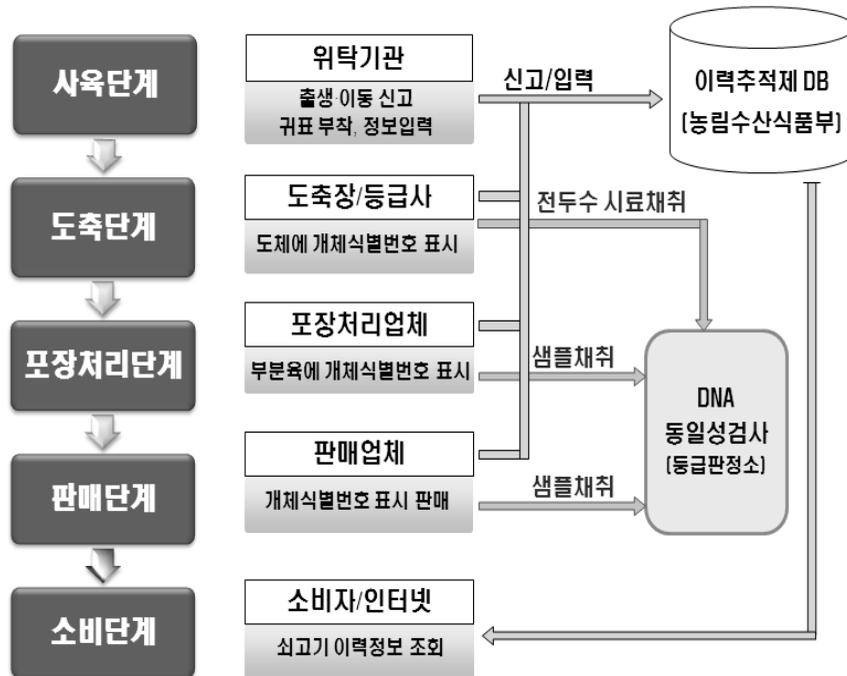
## 2. 쇠고기 이력제란?

- 이력추적의 영어표현인 ‘Traceability’는 trace와 ability의 복합어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EU의 식품법에는 식품, 사료, 축산가공품 및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의도된 또는 예상되는 물질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특히 프랑스 공업규격협회(AFNOR)에서는 농업 식품산업부문에 있어서의 Traceability란 주로 제품/프로세서, 제품/지방화(Localization)라는 두 가지 조합에 적용되고, 물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쇠고기 이력제의 개념은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 단계별 정보관리를 위해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시스템에 기록·관리하며,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하며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소유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검증 및 이력관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축된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보관하다가 포장처리 또는 판매되는 쇠고기와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 동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 일부 생산자들이 말하는 생산이력제와 쇠고기 이력제를 혼동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이력제는 농장단계의 사육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기록과 개시는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관리의 상태를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생산과정을 투명화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제는 생산·기록뿐만 아니라, 도축·가공·판매까지의 기록이 있어 문제발생시 추적은 물론 소급까지 가능한 개념으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쇠고기 이력제 사업추진체계도 】



### 3. 외국추진사례

#### 3.1. 프랑스

- 프랑스의 이력추적제도는 EU규정(Regulation No 820/97, Regulation 1760/2000)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미 1966년에 축산진흥법을 제정하여 개체식별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 1998년 이후 모든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양쪽에 장착하고 관리장부에 출생·이동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프랑스 이력추적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둘째, 출생 시 만들어진 패스포트라는 이력증명서가 출생에서 만들어져 도축장까지 소와 함께 이동되고 셋째, 패스포트에는 반드시 위생증명이 첨부되어지며 넷째, 도축이후의 관리는 세금계산서로 이동이 추적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 귀표는 반드시 2조를 구입하여 양쪽 귀에 달아 귀표 탈착으로 인한 문제를 없애고 재발급 시에는 출생시 부여된 식별번호 이외에 재발급 번호가 인쇄된 귀표를 장착하여야 한다. 귀표의 구입 및 장착은 농가 스스로가 하며 귀표구입비 이외에 이력관리회비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
- 이렇게 농가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귀표장착 및 신고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EU 및 프랑스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며,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어 귀표 없이는 가축의 이동·도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귀표를 통한 사양 및 개량관리의 필요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패스포트는 농가가 출생일로부터 7일(EU규정은 21일) 이내에 귀표를 장착하고 축산식별관리사무소(EDE)에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패스포트가 발급되게 된다. 패스포트의 내용은 개체식별번호이외에 성, 품종, 출생일, 출생농장번호, 부모

품종, 어미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반드시 위생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도축 후에는 도축번호로 대체되고 관리는 로트(lot)단위로 한다. 따라서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DNA시료채취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거래단계별 세무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계산서만으로도 추적이 가능하며, 고기의 거래량이 많고 유럽 간 교역이 자유로우며, 육질을 크게 중시하지 않아 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2. 일본

- 축산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7년 4월부터 `04년까지 귀표번호 체계의 정비 및 전산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오던 중 `01년 9월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급감으로 안전·안심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해 2002년 2월부터 소비단계에서의 이력전달 실증시험을 대형 유통업체 5곳을 선정 실시하였고, 2003년 6월에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 생산단계부터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고, 일 년 뒤인 2004년 12월에 도축 이후단계의 개체식별번호 의무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로는 전산D/B등과 이력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가축개량센타가 담당하며, DNA보관용시료채취는 일본 식육격부협회에서 그리고 DNA 동일성검사는 가축개량기술연구소에서 담당하며, 관리감독업무는 농림수산성(지방농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본의 쇠고기 이력제도는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점에서는 프랑스와 같으나 업무별 시행기관이 정해져 있는 점이 다르다. 이는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는 편리함도 있으나 조직 간의 상호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일본은 DNA검사를 통한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량의 절대량이 수입육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크기 때문이라 본다. 또 하나 프랑스와 다른 점은 원산지 표시 이외에 특정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요리하여 판매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4. 추진현황

### 4.1. 시범사업 추진현황

- 시범사업 초기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는데, 제1단계는 생산단계로 2004년 10월에, 제2단계는 도축가공단계로 2004년 12월에, 판매단계는 2005년 2월에 실시되어 점차 확대 추진하였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동 제도의 정착가능성을 확인한 후 '07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에는 하위법령을 만들어 제도정비를 실시하였다. 동 법에 근거하여 2008.12.22부터는 사육단계가 시행되었고, 2009.6.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하였다.
- 시범사업 당시에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정부(농림부 축산물위생과)는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예산확보와 집행사항 등을 감독하고 축산물등급관정소와 농협중앙회를 공동 시행기관으로 정하였다.
- 축산물등급관정소는 총괄기관으로 전산시스템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DNA시료 채취 및 동일성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농협중앙회는 귀표관리 및 농가지도를 담당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농축협조합, 관련협회,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 시범사업 및 본 사업추진실적 】

| 구분                   |                | '04       | '05       | '06               | '07               | '08              | '09.6월말          |
|----------------------|----------------|-----------|-----------|-------------------|-------------------|------------------|------------------|
| 전산등록 및<br>귀표부착기관(개소) |                | 9개<br>브랜드 | 9개<br>브랜드 | 23개<br>지역·<br>브랜드 | 76개<br>지역·<br>브랜드 | 전국<br>단위<br>145개 | 135개<br>위탁<br>기관 |
| 참여두수(천두)             |                | 40        | 59        | 215               | 730               | 2,250            | 3,286            |
| 연 계<br>사업장<br>(개소)   | 도축장            | 10        | 13        | 21                | 39                | 80               | 77               |
|                      | 전산신고<br>포장처리업소 | 10        | 13        | 24                | 32                | 69               | 289              |
|                      | 판매장            | 10        | 30        | 93                | 178               | 349              | 50,392           |

【 전국 식육 유통업소 이력사업 참여대상 현황('09.6월말 기준) 】

| 시·도     | 식육포장 처리업소 |             | 식육판매업소(개소) |
|---------|-----------|-------------|------------|
|         | 전체(개소)    | 전산신고 업소(개소) |            |
| 서울특별시   | 269       | 22          | 8,945      |
| 부산광역시   | 185       | 11          | 3,349      |
| 대구광역시   | 147       | 8           | 2,697      |
| 인천광역시   | 64        | 16          | 2,329      |
| 광주광역시   | 81        | 4           | 1,939      |
| 대전광역시   | 88        | 8           | 1,405      |
| 울산광역시   | 45        | 8           | 1,182      |
| 경기도     | 157       | 61          | 9,849      |
| 강원도     | 42        | 13          | 1,973      |
| 충청북도    | 72        | 24          | 1,977      |
| 충청남도    | 126       | 25          | 2,596      |
| 전라북도    | 149       | 9           | 2,472      |
| 전라남도    | 53        | 5           | 2,499      |
| 경상북도    | 104       | 29          | 3,873      |
| 경상남도    | 119       | 35          | 3,307      |
| 제주특별자치도 | 94        | 11          | 661        |
| 계       | 1,701     | 289         | 50,392     |

## 4.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첫째,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소의 소유자가 신고한 소의 정보를 정부의 DB에 관리하고자 함이다.
- 둘째,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소에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 셋째, 누구든지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부여한 개체식별번호관리가 특정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넷째,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는 등록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함이다.
- 다섯째, 소의 소유자 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기 작성된 자료가 소의 소유자 등이 부주의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정보를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꾀하기 위함이다.
- 여섯째,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누락이 있거나 오류를 알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도축이 되었거나 기록사항 등을 누락할 경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일곱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다. 소의 소유자가 기록·관리된 정보가 소 상태에서 도축을 통해 쇠고기가 되었을 때 이들 정보가 최종 판매자까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함이다.
- 여덟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에 의한 장부관리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식육판매업소는 1년간 거래내역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문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기록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함이다. 아홉째, 농림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관련서류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에 필요한 쇠고기를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록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시한다. 열째,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건장치 측면에서 제정하였다.

### 4.3. 신고내용 DB구축 및 정보공개

-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DB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사육에서 도축까지의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식육포장처리업소(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장은 전산신고 대상임)에서 판매 업소까지는 장부를 통해 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사육단계에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에 의한 최소 정보만 신고 받아 출생 등의 신고서에 정보 즉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 소유기축의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 도축일, 등급판정결과, 도축장명을 관리하며, 포장처리단계에서는 포장처리실적, 판매반출실적을 기록하고, 판매단계에서는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관리한다.
- 신고된 소 및 쇠고기 이력자료는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의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 단계별 신고 기한 】

| 단계별            | 구 분      | 신고 및 보존기한   | 비고                   |
|----------------|----------|-------------|----------------------|
| 사육단계<br>(수입포함) | 출생신고     | 30일 이내      |                      |
|                | 양도양수 신고  | 30일 이내      |                      |
|                | 수입신고     |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
|                | 귀포부착     | 신고후 30일 이내  |                      |
| 도축단계           | 도축신고     |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 부득이한 경우<br>3일 이내     |
|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실적신고 | 5일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업소에 한함 |
| 판매단계           | 거래내역서    | 거래발생일 작성    |                      |

### 【 개체식별대장 및 장부 보존기간 】

| 단계별    | 구 분               | 신고 및 보존기한 | 비고                         |
|--------|-------------------|-----------|----------------------------|
| 장부관리   | 도축신고              | 2년        |                            |
|        | 포장처리실적            | 2년        |                            |
|        | 포장처리 판매 및<br>반출실적 | 2년        |                            |
|        | 거래내역서 보존기간        | 1년        |                            |
|        | 묶음번호구성내역서 보존기간    | 2년        | < 축산물 가공처리법<br>시행규칙에서 정함 > |
| 개체식별대장 | 개체식별대장보존기간        | 3년        |                            |
|        | 정보공개              | 3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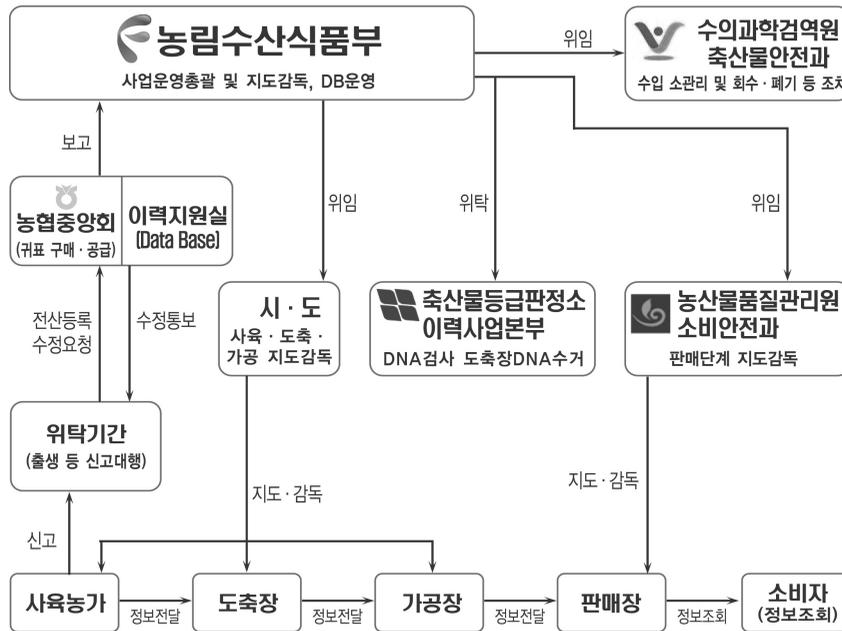
## 4.4.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는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과 예산확보와 집행사항 등을 감독하고, 시·도에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매단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소 관리 및 회수폐기 등에 대한 조치를 한다. 또한 시행기관으로 축산물등급관정소는 개체식별대장에 대한

기록·누락과 오류의 수정 업무 등을 위해 이력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자 등에 필요한 시료수거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 농협중앙회는 귀표구매 및 위탁기관 및 농가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에서는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기관별 역할 】



## 5. 단계별 실시요령

### 5.1. 이력제 적용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젃소, 육우 등)와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쇠고기(지육, 정육, 포장육)가 해당되며,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 5.2. 사육단계

-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국가코드를 포함한 15자리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고, 출생 등의 신고를 통해 전산등록이 완료된 소만이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이 가능하다. 농가 등에서 자체 부착한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재부착용 귀표(민이표)는 도축할 수 없어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재부착용 귀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 소의 소유자등은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 또는 폐사할 경우에는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135개소)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한 후에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서면, 전화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귀표 부착소 】



## 5.3. 도축단계

- 도축단계에서는 전산신고와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이 핵심사항이다. 먼저 소를 도축하기 전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번호를 확인해 이 번호가 이력제 전산망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거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귀표번호가 훼손

되어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축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등을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은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요청을 하고, 발급이 되면 해당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소유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의뢰시 농가명(최종 소유자 등), 주민등록번호,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도축단계 개체식별번호 확인방법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해야한다. 또한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는 확인한 해당 도체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 도축신고에 대한 기한은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까지 하여야 하나,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 5.4. 포장처리(가공)단계

- 도축된 쇠고기가 가공공장에 입고될 때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된 번호가 이력제 전산망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발골·정형하는 것이 포장처리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이와 함께 쇠고기 포장지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 등의 장부를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전산신고대상 업소)는 식육의 포장처리실적으로 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식육포장처리 및 반출실적은 자체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일반 포장처리업자는 식육포장처리실적과 식육포장처리판매반출실적은 자체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면 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장처리업자는 도축업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평균 종업원이 10명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당된다.

## 5.5. 판매단계

- 도축·가공(포장처리)된 쇠고기가 판매장에 입고될 때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된 번호가 이력제 전산망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정형한 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판매단계에서 필수요건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를 대면 판매할 경우에는 식육 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소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관리하는 거래내역서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포함되어 기재하고 그 장부를 1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5.6. 묶음번호관리

- 개체별 판매가 어려워 다수의 개체식별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포장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반드시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묶음을 구성하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묶음번호 표시방법은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하되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다.

## 5.7. 소비자

- 소비자들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휴대전화에서 6626을 누르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눌러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이력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http://www.mtrace.go.kr))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체식별번호 조회요령 】



### 5.8. DNA동일성검사

- 또한 정부에서는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쇠고기 이력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감식기법인 DNA동일성검사 등을 이용하여 이력제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육·도축·가공단계는 시·도, 판매장은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농산물품질관원,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시료관리 및 분석 등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각각 담당하면서 주기적으로 이력제도 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6. 향후 추진계획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력제도는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소 산업정책과 미래의 산업을 반영하여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미처 제도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국가코드 포함 15자리로 되어 있어 기록·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양도·양수신고 및 도축단계에서 귀표를 확인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휴먼에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귀표 대신 전자태그(RFID) 등의 도입 및 적용 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의 편리성 제고를 검토해야겠다.

둘째, 축종확대에 대한 검토로써 국내산 모든 소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소가 정착되면 돼지 또는 개체관리가 꼭 필요한 시슴 등에 대한 제도 도입요구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동 축종에 대해서도 소 이력제도를 좀 더 응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등록정보의 활용도 제고측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력제 전산망에는 소의 부·모 개체정보, 소의 종류, 이동정보, 쇠고기의 육질등급 등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개체별 자료를 활용하여 소의 혈통, 산유능력 등을 개량 및 고급육 생산에 적합한 소 관리 등을 통해 축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등록 자료에 대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유통업체에서는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축이후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위해요소가 발생할 경우 식품사슬 전체에 걸쳐 변화하는 위해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급식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부분육 또는 분쇄육의 쇠고기를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력제를 통해 납품과정의 정확도를 검수하는 수단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력정보와 축산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도출이 필요하다. 이력제 DB에 축적된 자료와 향후 축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사업(축산업등록제, 가축통계, 소 수매 등 현안사항 발생시 활용 등) 자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 등도 향후에 검토해야 할 시안으로 판단된다.

## 7. 맺음말

-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이력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9년 6월 22일부터 전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들에게 위생·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제도로 보여 질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생산단체나 유통업체 등에서 현재 동 시스템을 새로운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향후 더욱 많은 소비자들과 관련업계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교통망의 발달, 무역장벽을 낮추는 국제적인 무역규칙이라는 사회경제구조가 식품사고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저질육이 고급육으로 둔갑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은 불안하게 되어 쇠고기에 대해서는 어떤 쇠고기이든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력제가 정착된다면 이런 불신의 시대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심의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나라 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금후 WTO/DDA협상 등에 따른 국제 교역여건 변화 등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편람」.
- 농촌진흥청. 2004. 3 「식품안전시스템의 이해」.
- 강원대학교. 2006. 「표명된 선호를 통한 쇠고기 안전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